•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690 호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7월 30일(음력 6월 28일) 수요일(주간)



"언어 달라도 불심으로 하나"
5 진관사 국제결혼이주민 산사체험 현장



"좋은작품이 대중 관심의 힘"
6 창단공연 '매혹' 마친 남우성 대표



"가족 보살피는 것도 보살행"
17 선지식-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



'도자기 물고기' 이야기
19 영운 스님 두 번째 개인전 개최

"학내 종교자유 보장돼야"

서울시교육감 후보 토론회…'종교편향 반대' 한목소리

지난달 기도와 <성경> 독송으로 수업 시작하고, "하나님 믿어야 천당 가고,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간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종교편향 행위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불교계는 교육현장은 물론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편향에 대한 재발방지 입법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학내 종교자유를 수호하려면 교육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은 학내 종교편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조계종 불교정책기획단(공동대표 승원)이 7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후보 초청토론회'에는 박장옥(前 동국대부속중학교장), 이영만(동국대 겸임교수), 이인규(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주경복(건국대 교수) 등 4명의 교육감 후보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종교편향 교육은 절대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박장옥 후보(기호 3번)는 "학교는 종교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규 후보(기호 5번)는 "공립학교에서의 편파적 종교교육 행위는 위법행위다. 징계회부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복 후보(기호 6번)도 "종교가 다르다고 특정 학생에게 부담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에 나선 주경복·박장옥·이인규·이영만 후보(우측부터).

학내 종교자유 보장 대책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박장옥 후보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종교단체 전문가를 장학사로 선발해 일선학교의 올바른 종교교육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영만 후보(기호 4번)는 "2010년 실시 예정인 학교선택제에 종교를 제1순위로 놓겠다. 각자의 종교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게 할 것"이라 말했다. 공립학교의 종교자유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등으로 종교활동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종립학교 제도와 학생 종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이인규 후보는 창의형 자율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창의형 자율학교를 운영해 학교는 학교의 종교이념을 드러내고 학생은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인규 후보는 "보편적 종교성 교육은 학교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종교계 사학의 종교교육에 관해 주경복 후보는 "특정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 다른 종교를 배제하는 것은 안 되지만 종교의 건학이념 구현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와 별도로 7월 23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길희성, 이하 종자연)은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종자연 배병태 사무국장은 "정책질의의 핵심은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종교과목 외의 복수과목 편성에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서, "학내 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낮아 아쉽다"고 말했다.

'종교과목 외 복수과목 설치' 실행에는 6명의 후보 중 박장옥, 이영만, 주용복 후보는 계속 유지 입장을, 공정택(기호 1번), 김성동(기호 2번), 이인규 후보는 학교장 및 교사 재량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사무국장은 "학내종교자유문제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닌 학생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요한 투표기준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토론회와 정책질의는 '선거용'일 수 있다는 약점이 있지만 교육현장에서의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화두 풀기'에는 적지 않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30일 교육계 종교편향 근절 여부가 판가름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서울시교육감 어떤 자리?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지역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정책과 행정, 교원인사 및 예산 집행 등을 책임지는 '서울 교육 시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다른 시·도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행사해 '교육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한해 서울시 교육예산 6조원과 교직원 6만여명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영어몰입교육 결정, 학원 심야교습 허용 문제 등 교육정책 전반을 다룬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학교자율화' 조치 등 교육업무의 지방이양이 확산되면서 교육과학부 장관 못지 않은 권한을 갖게 됐다.

2010년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7월 30일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서울시 교육감 임기는 1년 6개월에 불과하나 3선까지 가능하다.

교육계에는 정치 이슈에 따라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교과부장관보다 막강한 권한에도 4년 임기가 보장되는 서울교육감이 훨씬 낫다는 평가도 있다.



"더위 잊고 불교 배워요"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충북 괴산군 다보수련원에서 '2008 연꽃 어린이연합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법회 사찰을 대상으로 한 연합 캠프로서 어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과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7월 24일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선유동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글·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승려복지법안 '윤곽'

승려노후복지특위 4차 회의…소득·의료·주거 대책 구체화

조계종 승려노후를 위한 세부계획과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복지법(안)'이 마련돼 11월 종법 입안이 예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노후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동광, 이하 위원회)은 7월 23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조계종 승려복지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11월 종법 입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박재현 실장(월정사 종무실)이 제안한 '조계종 승려복지 추진방안'은 지난 3차 회의(2008년 6월 18일 개최)에서 제기된 소득·의료·주거보장을 구체화했다.

조계종 재적승려 중 60세 이상 승려 2621명에게 ▲1인당 매월 60만원(예)을 지급하고, ▲교구본사별 노스님 전용숙소를 건립·운영하며, ▲65세 이상 스님에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재적승려 전체에 대해서는 교육 및 수행환경 보장을 골자로 한다.

소득과 의료 보장 대책은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을 적극활용하고, 부족분은 개인연금 가입 또는 교구목적사업기금특별회계(교구승려복지회계) 등을 조성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필요재원은 승려복지사업기금 특별회계의 승려복지 예산과 종단 일반회계 및 교구예산의 10% 출연금, 승려노후복지사업 목적 분담금 및 출연금, 재정우량사찰의 분담금 등을 통해 마련하고, 조계종 승려공제회에서 운용한다.

위원회는 총칙, 조직 구성 및 운영, 소득보장,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 기금조성 등 총8장으로 구성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법(안)도 검토했다.

참가자들은 승려복지법 입안을 위해 종헌 116조와 승려법 34조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종회에 개정안을 함께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제4차 회의에는 위원장 동광 스님을 비롯해 선문·종호·각원·보인·세영 스님과 고경환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9인이 출석했다. 조동섭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부처님 제1공양
향따로, 물따로
백두대간 천혜의 자연에서 자란 편백, 솔, 쑥, 산요초의 황금빛 향기의 핵을 증류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우리땅'

아름다운 등



영가등



주름등



왕생극락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버들가지여, 대중문화와 포옹하라

불교극단 양지무리(대표 남우성)가 창단 초연으로 연극 '매혹'을 무대에 올렸다. 세익스피어의 '멕베드'가 환생한 듯 한 바탕 진상의 앓음앓이를 선사했다. 그러나 '양지무리'가 두 다리로 고통의 향을 피운 향로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초연의 열정이 피운 침 향내는 그윽했지만 제작기반 환경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매혹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

불교문화와 대중문화의 간극은 좁혀져야만 한다. 한국 대중가요에 가장 많이 등장한 나무가 버드나무라는 사실을 아는가.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 왼손에 들려진 것 또한 버들가지다. 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버들가지가 땅을 향해 있는 것은 중생 구제의 서원을 상징한다. 시대와 사랑을 서정적인 노래로 드러내는 버드나무와 공감하는 불교의 치유능력이다.

그렇다면 과연 종교성을 지닌 공연은 대중문화로 성공 가능한가? 먼저 이웃 종교의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를 예로 들어 보자. 1971년 브로드웨이 마크 헬링턴 극장에서 초연됐을 때, 극장 밖은 흥분한 기독교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예수 역을 락 그룹 '딥 퍼플(Deep Purple)'의 보컬 이안 길런(Ian Gillan)이 맡고, 열두 제자들은 히피였기 때문이다. 락과 히피가 반전주의 저항 정신을 의미하던 당시에 신성 모독으로 평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20~30대를 대상으로 공감에 성공, 초연 후 37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러 버전으로 번안돼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는 스테디셀러가 됐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일생은 어떠한가. 중생을 위해 길 위에서 태어나 길에서 전법하시다가 열반에 드신 생애는 대서사시이자 로드무비로 구현되기에 충분하다. 부처님의 정신은 오롯이 살리면서 이 시대 소비정신에 부흥한 욕망의 변주곡을 연주한다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스타배우도 절실하고 거대 자본력과 거장감독의 연출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창한 꿈보다 직시해야할 본질은 관세음보살의 버들가지에 있다. 화제의 뮤지컬 '맨오브라만차(Man of La Mancha)'에서 돈키호테를 연기하는 배우 조승우를 통해 부처님의 구도행을 엿봤다면 억지일까.

서울 올림픽경기장에서 공연될 '오! 마이 붓다 수퍼스타(Oh! My Buddha Superstar)' 공연에서 환희에 움트는 버들가지를 보는 꿈은 정말 '꿈'에 불과할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제자로서 화해·상생정치 펼칠 것"

제18대 국회 정각회 출범식·기념법회 봉행

"일불제자로서 정법을 선양하고, 대승보살 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제18대 불자국회의원들이 7월 23일 오전 7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8대 국회 정각회 출범식 및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비롯해 세민 스님(조계사 주지), 승원 스님(기획실장) 등 종단 교역직스님, 홍파 스님(종단협의회 회장), 김의정 회장(중앙신도회), 허태수 회장(국회직원불교신도회), 제18대 국회의원 20여명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함께했다.

출범식에서 의원들은 제18대 국회 전반기 정각회장으로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을 선출했다. 정각회 부회장은 안홍준 의원(한나라당)과 강창일 의원(민주당), 간사장은 이광재 의원(민주당), 간사는 조문환 의원(한나라당)과 최문순 의원(민주당), 감사는 이계진 의원(한나라당)과 최재성 의원(민주당)을 임명했다.



7월 23일 조계사에서 열린 '제1대 국회 정각회 출범식 및 기념법회'에서 불자의원들이 <반야심경>을 봉독 중이다.

신임 정각회장 최병국 의원은 취임사에서 "사찰에 각종 규제가 많다. 정각회가 힘을 보태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힘쓰겠다"며, 불자로서 화해와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지관 스님은 법문에서 "불교의 기본사상인 상즉(相卽)과 불이(不二)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평화와 행복을 성취한다"며, "18대 정각회 회원들은 여야 구별 없이 나라와 가정, 불교를 생각하는 한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8대 국회 정각회는 한나라당 43명, 민주당 11명, 자유선진당 3명, 친박연대 1명, 무소속 1명 등 59명의 불자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제17대 국회 정각회원 36명을 상회한 숫자다. 불자의원들의 약진 속에 구성된 제18대 국회가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지 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불교계 제 목소리 낼 때"

정각회장 최병국 의원



"부처님은 묵빈대처(默賓對處)하라는 가르침도 주셨으나, 이제는 불교계가 제 목소리 내야할 때입니다."

7월 23일 조계사에서 열린 '제18대 국회 정각회 출범식 및 개원법회'에서 상반기 국회 정각회장으로 선출된 최병국 의원(한나라당, 법명: 輿仁·사진)은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종교편향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병국 회장은 "일부 공직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잉충성해 종교편향을 야기했다"면서, "경기여고 '불교제중원' 표지석 훼손한 사건은 특정 종교 선양을 넘은 범죄행위"라 지적했다.

최병국 회장은 "국회 정각회원이 59명이지만 결속력이 약한 것이 문제"라며, "불자 국회의원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종교편향 재발방지 법제화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대정부 결의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역사적 결단에 나서겠다."

조계종 25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해 국민화합과 종교평화 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지관)은 7월 24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08년 제2차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에 드리는 촉구'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성명서에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편중인사와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미국과의 졸속 협상, 그리고 이에 반발하여 제기된 저항에 대한 정부의 편협된 인식과 수습 조치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본사 주지스님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민족을 화합시키는 대통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종교편향 행위 근절을 위한 당사자 엄중 문책 ▲종교편향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 시행 ▲촛불시위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수배 해제 등을 촉구했다.

스님들은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는 더 이상 내면의 평화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사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조계종은 정부의 종교편향에 총무원 직속 종교편향대책기구를 구성해 강력대응 하는 한편 교계에 범종단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해 범불교적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회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금강산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동섭 기자

"공직자 종교편향 재발 없을 것"

한 총리 지관스님 예방

한승수 국무총리가 7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찾아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 총리는 "소통이 화두인 시대에 오해를 풀러왔다"며, "알고가 등 종교편향 사건으로 불교계에 심려 끼쳐 죄송하다. 국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승수 총리의 발언에 지관 스님은 독도 문제, 금강산 관광객 피살건 등에 대해 언급할 뿐 종교편향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에 배석한 손안식 위원장(종교평화위원회)이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교계의 요구"라 전달했다.

한 총리는 "유념하겠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총리의 조계종 방문과 관련해 7월 22일 시국법회추진위원회가 성명서를 내 비판하고 7월 24일 불교연석회의가 "성의 없는 정부 태도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교계 반응은 싸늘하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영배 스님 원심 유지 징역 10월·집유 2년

신정아 사건과 연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뒀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학)는 7월 22일 열린 신정아씨와 변양균 前 실장(청와대 정책실)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영배 스님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똑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직권을 남용해 흥덕사에 국고지원한 변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후원금을 횡령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박 관장의 동생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120시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영배 스님은 개인 사찰인 울주 흥덕사에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국고지원을 요청해 배정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조동섭 기자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별보시금 60만원 ▷실전교육으로 책임 전수함
▷교육시간(매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오후 6시30분 - 8시
▷특별교육 : 시간,요일 조절가능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제 1기 단전호흡 · 명상 · 최면 수강생 모집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지장사 법당
매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9시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육자진언 염송법은 티베트-몽골-한국 잇는 신앙벨트"

한·몽 국제학술대회 현장

"육자진언 염송법은 티베트·몽골·한반도를 하나의 신앙벨트로 연결시키고 있다."
한국과 몽골의 밀교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양국 불교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몽골 울란바토르 간단사에서 열렸다. 진각종 회당학회(회장 효운)와 몽골불교미술대학(학장 푸래바트)은 7월 23일 몽골 간단사에서 '한-몽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회당학회는 2002년, 세계밀교의식시연법회 등을 통해 몽골불교계와 조금씩 교류해왔지만 밀교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인적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각종 회당학회와 몽골불교미술대학이 몽골 울란바토르 간단사에서 개최한 불교문화 학술대회.

'한-몽 불교문화' 주제…밀교연구 위한 첫 인적교류
진각종 회정 정사·몽골 불교대학장 등 100여명 참석

한-몽 밀교연구 본격 교류 첫 행사

간단사 스님들의 밀교의식으로 시작된 이날 국제학술회의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종회의장 성초 정사, 회당학회장 효운 정사 등 진각종 스승 및 종도 40여명과 몽골불교대학장 소납 라마를 비롯한 간단사 스님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회당학회장 효운 정사는 "불교의 교섭은 한 · 몽 양국의 정신적 세계와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동아시아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밀교사상의 유훈이 남아있는 양국이 상호교류를 통해 전통을 복원하는 한편,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제시할 때"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회정 통리원장은 축사를 통해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설하고 있는 <마니칸붐>이 티베트에서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전해졌다"며 "양국 불교문화의 상호교류를 상기하면서 중생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불국토 건설의 동반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에 간단사 총무원장 최잠츠 라마는 뺨바 스님(간단사 승가대학 교육부장)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화시대에 한국과 몽골불교는 전통과 불교문화를 보호하고 전파하며 젊은이들에게 문화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며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밀교의 사명을 다하자"고 화답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측에서 회당학회 명예회장 혜정 정사, 진각대학원 허일범 · 김경집 교수가 각각 '한국불교와 육자진언' '한-몽사원의 장엄에 관한 연구' '고려시대 한-몽불교의 교섭'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몽골 측에서는 푸래바트 몽골불교미술대학장이 '몽골불화 슈탠쪼락의 특징과 제작이론'을, 몽골불교대학장 소납 라마가 '몽골 불교사'를, 후렐바타르 몽골학술과학원 교수가 '칭기스칸과 몽골불교'를 각각 발표했다.

고려의 사경문화·교학 원나라에 전수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 등 진언 수행을 중심으로 한 밀교(密敎)가 원나라-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한 양국 불교문화교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발제에 나선 허일범 진각대학원 교수는 "13세기에는 티베트불교가 몽골에 전파되고, 그것은 다시 몽골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며 "1294년에는 몽골로부터 티베트 승려 절사팔(折思八)이 티베트 경전과 법구류를 가지고 고려에 들어왔고, 1314년에는 홍약(洪淪)이 티베트경전 1만8000권을 고려에 전해준 일이 있다"고 소개했다. 허 교수는 "육자진언의 염송법은 티베트-몽골-한반도를 하나의 신앙벨트로 연결시키고 있다"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찰들에 남아 있는 육자진언 관련 유적들이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는 한몽간의 불교교류 과정에서 고려의 뛰어난 사경문화와 교학이 원나라에 전수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원나라는 고려의 뛰어난 사경문화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많은 사경승을 요구하여 그들의 사경문화를 성숙시켰다. 그리고 고려의 금강산 장안사와 유점사 등 유명한 사찰에 전래되는 신앙(금강산이 1만2000보살이 상주하는 법기도량이란 사상)을 존숭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칭기스칸은 불교 중흥·외호한 법왕"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몽골측에서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칭기스칸이 인도의 아스카왕에 비견되는 불교의 중흥 · 외호자인 전륜성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몽골 측 발표자들은 칭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몽골에 불교가 확고히 자리잡았고, 공산화가 되기 이전까지 찬란한 라마불교문화의 꽃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후렐바타르 몽골학술과학원 교수는 "칭기스칸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지 영토를 확대하고 정복하고, 살육하는데 치우친 전쟁으로 상대국 멸망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 아니었다"며 "그가 인도의 경전에서 교훈을 얻고 티베트 고승과 현자들을 국사로 숭앙했던 것은 아주 뿌리 깊은 전통이라는 '황금 고삐(중요한 고리)'를 후세에 전해준 법왕(法王)이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후렐바타르 교수는 "몽골불교 사학자들은 칭기스칸을 옛날 인도의 아쇼카 왕과 티베트의 스론장 감보 왕 등 법왕들의 행적과 연관시켜 말한다"며 "칭기스칸 시기에 몽골에 불교의 뿌리가 내렸고 불교 중흥의 기원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푸래바트 라마는 "고대의 문서들은 고대 몽골이 기원전 3세기에 이미 번성했던 불교문화를 누렸다는 기록들을 드러낸다"면서 "세계를 정복했던 대몽골의 영웅들은 불교의 수행에 그들의 모든 힘을 쏟아서 심오한 내면의 세계를 확장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교를 받아들인 후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갈수록 더 많은 몽골의 위대한 전사들이 무기를 던지고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닌 각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적들과 전투했다"며 "몽골의 승려들이 벌였던 전쟁은 칭키스칸이 성취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 우주적 전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랜 역사의 몽골불교는 1937년 완전히 괴멸되었고, 1990년대 초기부터 4번째의 부흥기가 시작되었다"면서, 한국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몽골 울란바토르=김성우 기자

몽골불교 총본산 간단사는 어떤 곳?



종교 억압 이겨낸 유일한 사원

다양한 종교행사 개최 관광객·불자들로 붐벼

17세기에 설립된 간단(Gandan)사는 라마불교 사원으로 정식명칭은 '간등테그친른 히드'이며 '완전한 즐거움을 주는 위대한 사원'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1930년 공산정권의 종교 억압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사원으로 유명하며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라마불교의 대표 중심사원이기도 하다.

간단사 내에는 중심건물인 관음전 내부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26m짜리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으며, 몇 개의 작은 절과 학승들이 공부하는 승가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사원내에는 약 150여명의 라마승들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데, 학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님들은 간단사 부근의 작은 절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간단사는 울란바토르의 중심사원인만큼 연중내내 다양한 종교행사가 열려 볼거리가 많아 항상 외국인 등 관광객과 불자들로 붐빈다. 사원내에 들어서면 티베트불교의 영향으로 마니차, 오체투지, 승복 등 모든 것이 티베트의 어느 사원에 와 있는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라싸의 죠캉사원과 비슷한 지욕적인 법난의 과거와 몽골불교의 총본산인 점이 티베트불교와 몽골 불교의 공통점을 엿보게 한다.

김성우 기자



세계에서 제일, 침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동국대의 5배)

www.njutcm.edu.cn

국립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특차)

조기유학생 모집
초 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남경재경대학	4년	20명	· 경제학, 법학, 공학, 외국어, 예술디자인과 등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8년 8월 20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삼화불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7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제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분교)
삼화불교 대학림

한국 총장 손혜인

대불련 "불심으로 더위 이겨요"

8월 7일부터 4일간 '제27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 개최

뜨거운 불심으로 무더위를 이기는 대학생 불자들의 한마당 '제27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가 8월 7~10일, 경남 진주·하동·남해 일대에서 열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정현, 이하 대불련)이 '언제 어디서나 주인 되는 무한능력, 시원한 세상'을 주제로 여는 대회는 전국 100여개 대학 300여명 대학생이 동참한다.

8월 7일 박광서 교수(서강대)의 '대학생 불자의 가치관' 강의를 비롯해 남해 보리암 등 경남 지역 성지 순례, 참선, 염불 등 수행 프로그램, '한여름 밤의 시원한 문화제' 등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연화사에서 열리는 '한여름밤의 시원한 문화제'에는 남녀혼합 5인조그룹 '언니걸스'의 소핫(So hot), '쥬얼리'의 원모어타임(one more time), 아수라(대불련 문화부) 등이 공연해 대불련 회원들의 숨은 장기를 발산한다.



대불련은 8월 7일부터 제27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작년 대회 모습.

진주 '차 없는 거리'에서 '진주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 체험마당'도 펼쳐진다. 대불련 회원들은 부처님 그리기, 부처님 얼굴 대신 사진 찍기, 찰흙으로 불상 만들기 등 부스를 설치해 지역불교 및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정현 회장은 "대불련 학생들의 한국불교 1600년 대회 참가가 단순한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 겨울에는 '수행학교'를 열어 불교학생회 활동의 맥을 잇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생들만이 갖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불교의 참뜻을 바로 전하겠다"는 비전도 보였다.

김정현 회장의 비전은 대불련 싸이타운(http://town.cyworld.com/yes) 등 온라인 포교로 실현 중이다. 대불련은 앞으로 홍보영상 혹은 UCC 제작을 위한 공모사업도 기획 중이다. 김 회장은 "대학생 불자가 급감하는 침체기지만 대학생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겠다"며, 교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한국불교 1600년 대회는 불교에 관심 있는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732-0239 조동섭 기자

'입시전략 이렇게…' 조계사 수능 특강

서울 조계사(주지·세민)에서 수능입시생을 위한 무료수능특강이 시작됐다. 7월 23일 이석록 메가스터디평가소장의 '입시 마무리 100일 전략'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이래 세 차례의 특강이 수능입시생들을 기다린다.

8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는 '수험생 클리닉-여름철 건강관리 및 집중력 향상'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한방병원에서 한방여성의학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일 전공의가 강의한다.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이사가 강사로 나서는 3차 특강은 9월 25일 오후 3시 30분 '입시 마무리 50일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수능 직전 직후 학부모의 자세'를 주제로 한 4차 특강은 10월 16일 오후 3시 30분 이만기 UA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이 강의한다. 특강은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02)732-2183 강지연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인도서 국제봉사활동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도후)는 12월 19~30일 인도북부지역에서 국제봉사활동 'M세대의 Medi cal Camping'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어려운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경험하게 하기위해 마련됐다.

의료진, 기자단을 포함한 파라미타 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 봉사단 30여 명은 보드가야, 바라나시 등 인도 북부지역 소외계층 어린이 및 주민 2000여명에게 건강관리, 진료, 의약품 전달 등 생활지원 활동을 펼친다.

봉사활동 외에 인도 고려사, 녹야원 등 불교유적지 견학과 유적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인도학교 우수학생 장학금 전달, 타지마할과 아그라 등 세계문화유산 견학, 인도 전통요가센터 탐방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008년 7월 31일까지이며(2차: 8월 31일) 참가비는 청소년 165만원, 성인 180만원으로 선착순 선발한다.(02)723-6165

노덕현 기자

'촛불' 밝힌 불자들

시국법회 추진위 시국문화제 봉행

조계사에서 다시 한 번 촛불이 타올랐다. '시국법회 추진위원회'(공동대표추진위원장 수경)는 7월 2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주권재민과 정교분리, 헌법정신 수호를 위한 시국문화제'를 개최했다.

비가 오는 중에도 법등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법안 스님(실천승가회 대표) 등 조계종 스님 10여명과 수배중인 광우병국민대책위 대표 7명 등 150여명 불자와 시민들은 촛불로 하나 됐다. 행사에는 가수 안치환, 김현성, 이수진, 시인 정희성, 국악인 전명신도 참여해 촛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외쳤다.

법등 스님은 여는 말에서 만해 스님의 '님의침묵'을 인용해 "님은 가셨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듯 청와대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졌어도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보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7월 23일 조계사에서 열린 '시국문화제'.

시국법회추진위원회는 시국문화제에 이어 7월 30일 오후 6시 30분 조계사에서 '촛불문화의 성찰과 생명평화를 위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日 '독도침탈 야욕' 규탄 대회

국토수호범국민운동協

'국토수호범국민운동협의회'(대회장 김동환 천도교령, 국범협)는 7월 23일 오후 2시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3·1정신 계승 국토수호국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과 대한민국 헌정회, 민족대표33인유족회, 독도시민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100여명이 참여했다.

국범협은 7대종교 종교인과 독도 관련 시민단체들이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16일 발족한 단체이다.

이날 국범협은 궐기결의문에서 "일본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표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침략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군국주의 망령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손들에게 조국강토를 부끄럽지 않게 물려주기 위해 일본정부가 영유권 포기선언을 할 때까지 범국민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비로자나 축제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에서 8월 2일 '빛으로·사진으로·사랑으로'를 주제로 '제3회 비로자나, 사랑의 축제'가 펼쳐진다.

한편 8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비로자나불이 빛과 조명의 예술과 만난 '사랑만(卍) 사진전'이, 8월 2일부터 23일까지는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이 열린다. 가연숙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3〉쌍계사 효봉 대선사❶

이튿날 나는 편지 두 장을 가지고 주암에서 차를 탔다. 추강 스님께서 순천포교당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여수 흥국사, 통영포교당, 그리고 미래사를 거쳐 각각 하룻밤을 자고, 올 때에도 그렇게 하여 8일 만에 오라고 하셨다.

하지만 차를 타고 보니 그 차가 바로 여수까지 가는 차였기에 바로 여수로 갔다. 그런데 여수에 가서 보니 또 통영으로 가는 배가 있어 무조건 배를 타고 통영으로 갔다.

오후 8시, 통영에 내려 포교당을 물어 겨우 한 시간 반 만에 찾았으나, 젊은 낭자 한사람만이 절을 지키고 있고, 스님들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해저터널을 거쳐 용화사에 이르니 시간이 11시 반이 넘었다. 문밖에서 큰 소리로 외쳐도 사람 기척이 없더니 겨우 한식경을 지나서야 한 스님이 나왔다.

"이 밤중에 웬 객승이요?"

하고 길을 안내하더니 깜짝 놀라며,

"네가 웬 일이냐?"

하고 물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니,

"너나 나나 도깨비 들린 놈이구나. 나는 고시공부 하다가 효봉 스님을 만나 출가하였는데, 사중일을 보다보니 매일 이렇게 장보러 다니고 있다."

갑자기 학교선배를 만나니 잠잘 생각이 없어졌다.

"효봉스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한말 평양에서 태어나 일본 와세다대학을 나와 판사로 일하다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후 그 죄책감 때문에 전국을 유람하다가 금강산 신계사 석두 스님께 출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하시고 계속 효봉 스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판사까지 하신 분이니 38세 만학으로 용맹정진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어 국내외를 돌아다니다가, 금강산 법기암에 이르러 1일1식으로 재차 용맹정진하여 한 소식을 얻으셨다. 그 후 유점사, 마하연, 송광사 삼일암을 거쳐 해인사에 이르러 종합수도원을 만들었고, 부산 금정선원에 있다가 51년 통영 용화사 도솔암으로 옮겨오셨는데, 어떤 분이 미래사를 지어주어 거기서 살고 계셨다. 그런데, 3일전 갑자기 쌍계사로 떠나셨어."

"어찌하여 지리산으로 가셨습니까? 나는 이 스님을 꼭 만나 뵈어야 하는데…."

"나도 그 이유야 잘 알 수 없지만, 네가 꼭 그분을 뵈어야 한다면 새벽 6시에 남해가는 배가 있으니, 노량에서 내려 하동으로 가면 당일에 들어갈 수 있지."

하고, 스님은 아침 일찍 배를 태워주셨다. 생각해 보니 어제 점심도 굶고, 역시 저녁도 굶었으며, 그런 몸으로 새벽 배를 타니 천지가 빙빙 돌았다. 노량에서 내려 국수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고 하동 가는 버스에 올랐다.

하동 버스정류장에 내리니 경찰이 잡는다.

"어디가는 사람인가?"

"쌍계사에 계신 효봉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들고 있는 편지 두 장을 가로챈다. 그리고 편지들을 살펴보더니,

"웬 돈이 이리 많지! 너는 필시 간첩 아닌가?"

하고 나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그때 당시는 빨강 만원 짜리와 오천원 지폐로 일반 사람들은 거의 만져보기도 힘들었는데, 효봉 스님 편지에는 50만원이 들어있고, 취봉스님 편지에는 30만원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계속〉

효봉 스님 찾아 여수 거쳐 하동까지…

다량의 현금 소지로 간첩 오인 받아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3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불교학과)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 대학학장) · 최종석(금강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김형준(동산불교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이평래(충남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100명) · 주간반(50명) ·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8년 7월 1일 ~ 2008년 8월 9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불교학과 : 8월 9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 최봉수교수, 무진장스님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한문학과)

2. 학과 및 교수

학 과	교 과 목	교 수
불교한문학과(3년)	· 주역(1), 주역(2), 삼국유사(1,2), 중국고전(1,2) 한국고전(1) · 불교경전(1,2), 한자학원론, 설문해자	임채우(원광대교수), 심재동(동국대교수),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심경호(고려대교수), 최정준교수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중국, 일본, 유럽), 제다학(1)(2), 차도문헌, 차수행법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전열교수, 지운스님, 적경스님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본,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등	김익홍(동산불교대), 법인스님
불교장례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례 등	김미혜교수
요가삼밀학과(2년)	· 요가이론, 요가생리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아사나실습, 삼밀수행법	안지용교수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 사찰음식(봄), 사찰음식(여름), 사찰음식(가을), 사찰음식(겨울)	정산스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한문학과(정규통신30명) • 불교다도학과(정규50명) • 불교미술학과(정규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정규30명) • 요가삼밀학과(정규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정규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8년 8월 1일 ~ 2008년 9월 9일 입학금 250,000원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장례문화학과) · 매주 일요일 오후2시(요가삼밀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2시(사찰음식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한문학과 : 9월 11일 (목), 다도학과 : 9월 9일 (화), 불교미술학과 : 9월 9일 (화)
불교장례문화학과 : 9월 9일 (화), 사찰음식문화학과 : 9월 10일 (수), 요가삼밀학과 : 9월 7일 (일)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현장속으로

진관사 국제결혼이주민 산사체험 현장

언어 달라도 불심으로 '우리는 하나'

외국이민자 100만 명 시대. 최근 한국남성과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여성들은 순수혈통, 가부장제를 고수해온 한국사회에 새로운 고민을 던진다. 다문화로 인해 급변하는 한국사회에 맞춰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후원하고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 영등포구 결혼이민자가족센터(대표 금유현)가 공동주최한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상담치료 '우리, 마음으로 소통하기'가 삼각산 진관사(주지 계호)에서 열렸다. 7월 19일, 한 여름 쏟아진 비처럼 시원하게 국제결혼 부부들의 마음을 불심으로 합친 특별한 산사체험을 느껴보자.





음악·미술치료 통해 부부간 마음의 벽 허물어
발우공양 체험하며 '자리이타' 정신 배우기도

"으허허~" "우하하!" "호호호~" 비구니스님들이 수행하는 청정도량 진관사에서 난데없이 웃음소리가 들린다. 대웅전을 외호하는 인왕상이 그려져 있는 홍제루에서는 사천왕을 대신해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연신 큰 웃음을 터뜨린다. 무슨 일일까? 경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은 '우리, 마음으로 소통하기'에 동참한 외국인여성과 한국남편들이다. 종단 차원에서 국제결혼 부부를 상대로 상담치료를 겸한 산사체험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사체험에 참가한 국제결혼 부부들은 영등포구 결혼이민자가족센터 가족들이다. 발우공양, 참선 등 산사체험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음악치료와 미술치료, 웃음치료도 체험했다. 50명에 가까운 이날 참가자 중 여성 80%가 베트남, 몽골, 중국, 태국 등 불교 국가 출신. 하지만 사찰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엔 낯설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국에 이주해와 사회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부인들은 모국에서 만큼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고, 한국말마저 서툴러 종교 활동에 더더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련복을 입고 간단한 사찰 예절을 배운 뒤 프로그램이 진행되자 참가자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자! 배를 치면서 하하하~ 해보세요. 다만 임산부는 배를 안치셔도 됩니다." "어머님~배를 치세요. 혹시 임신하셨나요?" "한쪽조가 하하하 하면 반대쪽 조는 허허허 하는 겁니다."

웃음노래와 말이 필요 없는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치료가 진행되면서 웃음꽃이 피고 도란도란 말문이 트인다. 주지 계호 스님과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도 프로그램에 참가해 부부들과 함께 뛰고 놀며 그들의 고충을 어루만진다. 신나는 음악이후 조용한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참가부부들은 눈빛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주변을 신경 쓰던 부부도 이내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서로를 응시한다. 타국에 와서 느끼던 스트레스도 다른 문화로 인해 쌓였던 앙금도 모두 풀리는 순간이다.

"아내는 몽골 출신이라 불교신자입니다. 절에 함께 오기는 처음이에요. 토요일 일이 있지만 이렇게 오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네요."(최종국 · 43)

"한국에 와서 절에 온 것은 처음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종교를 잊고 지낸 것 같아요. 부부동반 모임에 자주가긴 했지만 남편과 함께 절에 오니 마음도 편하고, 고향생각도 잠시나고 참 좋은 것 같아요."(돌람한드 · 31 · 몽골)

5년 된 부부인 최종국씨와 부인 돌람한드씨는 "산사상담은 평상시와는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이 일이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음악과 미술프로그램으로 마음을 연 참가자들은 발우공양, 다담으로 사찰예절을 체험한다.

"발우공양은 스님들의 식사법이자 수행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먹을 때는 반찬그릇을 돌려 나눠먹기 때문에 누군가 욕심을 부리면 뒷사람이 못 먹게 되죠. 발우공양을 통해 자리이타의 불교정신을 배우길 바랍니다."

설명하는 스님의 말씀을 모두들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도 잠시, 곧이어 "설거지 후 퇴수물의 고춧가루는 다 먹어야 한다"는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임신 8개월을 맞아 특별한 경험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알리바올가(29 · 러시아)씨는 "절에서는 처음 생활하는 거라 많은 것이 힘들었다. 특히 발우공양 할 때 설거지가 힘들었지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먹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좋은 경험이었다"며 "반찬을 배분할 때도 누구하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발우공양 등 산사수행을 경험한 참가부부들은 휴식시간 틈틈이 비가 오는 경내를 손을 잡고 거닐며 그동안 못한 얘기들을 나누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날 참석한 이주여성들은 각자의 고민을 듣고 서로 아픔 보살피는 시간에서 한국말이 서툴러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을 가장 힘든 요인으로 꼽았다. 참가자들은 문화적 차이도 민족의 차이도 소통만 된다면 극복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가장 행복했을 때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있을 때였다.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과 함께 웃고 활동할 때' 등이 한국에서 행복했을 때라는 것. 피부색도 문화도 다른 이들이었지만 각자의 아픔과 행복은 비슷했다. 참가부부들은 각자의 아픔과 행복을 들으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부처님의 은은한 미소를 뒤로 이렇게 진관사의 7월은 흘러갔다.

글=노덕현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관욕	17	지장불공	33	아침저녁종성
2	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4	향수해례예불
3	상용영반	19	종사관욕	35	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4	회심곡(화청)1	20	종사영반	36	생일불공
5	회심곡(화청)2	21	가사불사의식	37	상주권공48제의식 1
6	구병시식	22	신중작법39위	38	상주권공48제의식 2
7	관음시식	23	간단한 신중작업	39	상주권공48제의식 3
8	점안의식	24	전통조석예불	40	상주권공48제의식 4
9	방생의식	25	천수경/장엄염불	41	제사불공
10	사물 다루는 법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2	삼신이운
11	안택	27	사시상단불공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12	시다림	28	작법무(복청게천수)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13	산신불공	29	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45	화엄시식
14	미타불공	30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46	약사여래불공
15	신중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7	교재2권 100,000원
16	관음불공	32	삼보통청		

제11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하계특별교육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 종무소 ☎ 062)362-8604 / 혜공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학장 혜공 스님**

진정한 은사님처럼 기소와 범패신동의식 교육을 잘 섬겨 주는 교육 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각종소, 낭독하는법
- 겉채비 : 바라춤,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화청(회심곡)

◆과 정 : 2년(4학기)
◆입 제 식 :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시까지
◆상좌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1학년
매주 월요일 오후3시 ~ 5시30분까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우 502-242)
◆학 장 : 혜공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기간

〔2008년 8월 19일 ~ 8월 22일 3박 4일〕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오전시간 : 강의, 오후시간 : 실기교육위주)**
- 8월 19일 오후 2시 : 입회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8월 20일 8시 30분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녹음),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법종불사 의식하는 법
- 8월 21일 8시 30분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상축하는법, 창혼의식하는 법, 부도 제막식하는 법, 삼재기도하는 법
- 8월 22일 8시 30분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법,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큰불사시 관음에 법하는법

•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일반불자 - 평상시 복장, 필기도구, 소형녹음기**

일주문



고승초청대법회 설법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은 7월 20일 영천 충효사에서 열린 고승초청대법회에서 초청법사로 설법했다.



안성 파라밀 병원 개원 사진전
각현 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은 7월 25일 안성 파라밀 병원에서 개원축하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전은 10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일본 오사카문화원서 영산재
옥천범음대 학장 마일운 스님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오사카문화원 대극장에서 영산재를 봉행한다.



'행복한 미소' 발원에세이 CD 출시
성전 스님(남해 용문사 주지)은 BBS '행복한 미소' 발원에세이 CD를 출시했다. 가격은 1세트에 1만5천원이다. 부산불교방송 (051)797-5114



일본정부 규탄 성명 발표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대원장(회장) 지암 스님은 7월 19일 강원도 인제에서 중흥회 회원들과 함께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홍천 지장선원 관음 원불 점안식
홍천 지장선원 주지 도성 스님은 7월 20일 일산도량에서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지장, 관음 원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부고



고성 건봉사 주지 영도스님 입적
강원도 고성 건봉사 주지 영도 스님이 7월 21일 오전 세랍 59세, 법랍 43세로 입적했다.
영도 스님은 1964년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65년 부산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0년 속초 신흥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스님은 86년 철원 심원사 주지를 거쳐 포교원 연수부장과 포교부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고성 건봉사 주지소임을 맡아왔다. 영결식은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교구장으로 7월 23일 봉행됐다.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 타계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이 7월 20일 오후 3시경 자택에서 89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故 홍승희 이사장은 1920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현 서울대 상대 전신인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뒤 재무부장관과 국민대 이사장, 동양통신 사장 등을 역임했다.
영결식은 7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대법당에서 대한불교진흥원장으로 봉행됐다.

"좋은 작품·원력이 대중 관심의 힘"

창단공연 '매혹' 마친 극단 양지무리 남우성 대표



"불교가 지닌 종교의 신성함과 대중 예술이 지향하는 창조성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독히 아련하네요. 태백산 홍제암에서 3천배로 다졌던 신심도 10년이 흘렀습니다. 예술로 먹고사는 불자의 사명감일까요. 연극 '매혹'은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불교극단 양지무리 남우성(43) 대표는 7월 20일에 막 내린 연극 '매혹'에 담긴 속내를 고백했다. 한국불교의 3대 종단이 후원했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관3주년 기념에 발맞춰 공연돼 그 의미는 더욱 남달랐다.

"시작은 '이방원과 불교는 과연 무엇일까'였습니다. 사실 회암사도 없었죠. 매개는 '피'입니다. 많은 이들이 태평성대로 평가하는 시대의 논리를 불교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위한 태평성대인가. 절대가치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것들이 사실은 '전도몽상(顚到夢想)'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연극 '매혹'은 미망과 허상에 사로잡힌 악연에 얽힌 이방원과 주변인들이 윤회해 현세에서 만난다. 과거 조선 왕조의 장엄함은 사라지고 황폐한 회암사 터에서 전생의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의 칼날을 세운다. 악업은 악업으로 끊을 수 없다는 보살의 말에 갈등하지만 곪아버린 분노와 욕망의 소용돌이는 모두를 자멸하게 할 뿐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불교 소재로 표현된 다양한 예술과 연극 '매혹'을 비교할 때 공감대의 폭이 좁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불자의 경계를 넘어 대중과 호흡하는 나눔의 코드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낍니다."

작가중심주의를 지향하는 극단 양지무리는 좋은 작품과 원력이 함께한다면 대중의 관심을 부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번 공연을 위해 각 분야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온 전문가만을 섭외했고, 불교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합심의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연극 '매혹'은 천도재입니다. 불교문화가 지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종교간 화합의 장으로 동음 창화할 때 그것이 삼귀의가 아닐까요."

그러나 남 대표는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관객의 입장료 수입과 일부 사찰의 후원금은 3천여만 원. 공연에 들어간 비용은 9천여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중생들 행복 느끼는 무대 만들 것"

우리히어로즈 구단주 대행 취임한 차길진 법사



"사는데는 정중동(靜中動)도 필요하지만 동중정(動中靜)도 필요합니다. 스포츠는 동중정을 배우기 좋은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삶속에서 종교를 배우고, 문화 속에서 진리를 단련하는 장을 열겠습니다."

7월 20일 '우리히어로즈 야구단' 구단주 대행으로 취임한 차길진 법사(한국불교신문 사장). 종교인이 구단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와 기대 속에 차 법사는 스포츠와 문화를 접목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등 우리히어로즈 구단의 비젼을 보였다.

"삶에는 근엄한 부처님뿐만 아니라 화내는 부처님, 돈 버는 부처님도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삶, 종교와 야구는 떨어져 있지 않죠. 2002년 월드컵 때 스포츠로 전 국민이 한마음을 이룬 것처럼 끼가 넘치는 우리 민족에 맞는 신명나는 포교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문화적 실천으로 회향하겠다 마음먹은 그는 오래 전부터 우리 히어로즈 주주로 후원 활동해왔고 구단 내부사정으로 본격적인 대외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차법사는 현재 오성INC회장, 사단법인 후암미래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오페라 'Only Love' 작업과 대학로에 300석 규모 극장을 완공하는 등 문화와 종교 전반에 걸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히어로즈 야구단 운영과 함께 대학로 명상센터를 마련해 대중적인 활용을 할 계획인 그는 '행복'을 화두로 삼은 수행자였다.

"먼저 자신이 행복을 느껴야 다른 이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히어로즈'라는 무대에서 직접 행복을 느끼고 가져가길 바랍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실천불교에 힘쓸 터"

대구사원주지연 임문우 신도회장 취임



"생활 속 실천불교로 조화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조계종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는 7월 14일 노보텔대구 대연회장에서 허운 스님(동화사 주지) 등 회원사찰 스님 50여명을 비롯한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신도회장 이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임문우 변호사는 대구지역 중견변호사로 학창시절부터 대불련활동을 해 온 대구청년불교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날 제3대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임문우 변호사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불제자가 되겠다"며 "지역불교의 화합과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수행으로 부처되고, 보살생으로 중생과 하나된 생활 속 실천불교 선양에 힘써 화합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임문우 회장은 대구사원주지연합회와 신도회의 목적사업을 적극 수행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대구사원주지연합회 부설기관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결식아동 후원자에 감사패



천태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정산)은 7월 3일 창원 원흥사에서 천태종 결식아동후원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월도 스님(삼운사 주지), 도산 스님(대성사주지) 등 천태종 7개 사찰 주지스님과 개인후원자 73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지구촌공생회 몽골 공생유치원 준공식



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월주)는 7월 19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야르막지역에서 공생유치원 준공식을 가졌다. 월주 스님을 비롯 종후스님(노적사 주지), 원광 스님(금산사 부주지)과 몽골주재 이강식 영사, 몽골 간단사 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JTS 굶주리는 북한어린이 돕기 캠페인



7월 22일 JTS와 아름다운가게가 공동 진행하는 '북한긴급식량지원연예인 기증릴레이'에 탤런트 한고은씨가 동참했다. 한고은씨는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 드라마 '경성스캔들' 소품 3점을 기증했다. 노덕현 기자

소아암백혈병 환아를 위한 희망콘서트



7월 23일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는 불자가수 주권기씨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콘서트에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소아암 환아 돕기 캠페인이 함께 열렸으며, 지역 불자 연주가인 유상호씨 등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교육원, 역사문화탐방 열어



사단법인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이순규)은 7월 27일 '남도 답사 1번지 강진을 찾아서'를 주제로 어린이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7번째로 백련결사 터전인 백련사와 다산초당 강진 청자박물관 등을 탐방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대학 및 기초참선 수강생 모집안내

◆ 제27기 선하불교대학

초심자는 물론 불교를 신행생활로 하고 있는 일반불자들 까지도 불교교리는 방대하고 심오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강좌를 통하여 불교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용어, 교리, 사찰예절, 기도 및 참선수행 등 불교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됩니다.

- 법사 : 혜거 큰스님
- 대상 : 불교에 처음 입문한 초심자 및 일반불자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2시
- 회비 : 14주에 6만원 (점심공양 제공)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제13기 기초참선 과정

참선을 처음 접하거나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반입니다. 앉는 법부터 단계적인 지도로, 강의 · 좌선실수 · 묵언 · 지관겸수 · 생활선 · 간화선 연습을 통하여 누구나 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법사 : 혜거 큰스님, 지도법사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저녁 08시 - 10시
- 회비 : 20만원 (14주)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1매

◆ 문의 및 안내:
서울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삼우빌딩 405호 ☎ 02)445-8484 / 팩스 02)445-8043

금강선원 선하불교대학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교육일 : 8월 5일 화요일반 • 교육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믿음’을 방문판매하는 선교사들

해외불교칼럼



서구에서도 지나친 선교행위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국내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교회 투표소’.

최근 아시아 각국은 ‘다국적십자군병’들의 선교공세로 큰 곤욕을 치른다. 그들은 주로 분쟁후유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지역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너희 빈곤시대는 우리 전성시대요, 너희 눈물바다는 우리 선교의 황금어장이라.’

특히 일부 선교사들은 출신지 본국의 선량한 교우들로부터 선교지원 후원금을 쏠쏠히 걷어내는 명분과 도구로도 사용한다. 가상이든 실제든 선교 체험기나 영상물 등이 착한 본국교우들의 감루(感淚)를 자아낼수록 후원재정은 더욱 알차고 빵빵해진다. 게다가 ‘국제선교’라면 꽤 쌈빡하게 들린다. 외국에 나가고픈 꿈도 채워지고 암담한 현실도 도피할 수 있다. 또 외국어 구사능력과 교양도 제법 갖춘 듯 보여 진다. 그리고 자칫하면 얼떨결에 순교자가 되는 수도 있다.

사실 그들은 이처럼 순진한 아마추어다. 따라서 프로들이 던진 그럴싸한 미끼에 걸려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은총과 신분상승의 기회를 거머쥔 양 붕뜨게 마련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영혼은 압류되고 사고(思考)도 프로들이 대행을 한다. 이내 그들은 두뇌세척을 마치고 새로 입력된 작업프로그램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즉, 자신의 상황판단과 분별기능이 황폐화되어 간다. 요즘 캄보디아 등 전통적 힌두교, 불교와 이슬람 지역인 동남아시아에선 다국적 선교굿판이 한창이다. 그들은 염치와 체면을 모른다. 또 기본범절도 배려도 알 바 없다. 언제 어디서나 그저 불쑥 ‘믿음’을 들이밀어 애꿎은 이들을 소스라치게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젠 방문선교사를 내쫓는 퇴치법마저 인터넷에 떠돈다. 다음은 ‘문을 두드리는 저 이는 누구인가?(Who’s that knocking on the door?)’라는 글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독교 백인가정출신으로 태국, 라오스,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인도에서 수계한 담미카 스님이 각종 선교사들의 폐해를 호소하는 불자들을 위해 쓴 글이다. 이집 저집을 떠돌며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 가여운 중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여섯 달 쯤 누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선교사 둘이 서있었다. 남을 개종시키려고 친한 척 거짓미소를 짓는 그들을 보자마자 나는 금세 알아차렸다. 그런 이들이 우리 대문을 두드린 게 그 달만도 세 번째였다. 이젠 꽤 짜증이 났다. “안녕하세요?” 그들이 인사하자 나도 똑같이 했다. 그들은 즉시 작업을 걸어왔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좀 듣긴 했죠. 하지만 저는 불자라서 더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은 으레 그렇듯 내 생각은 아예 무시하고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 줄줄 늘어놨다. 내가 말했다. “제 생각에 댁들은 예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으세요.” 이에 그들은 깜짝 놀랐다. “왜 자격이 없어요?” “댁들은 믿음이 없으시거든요.” 그들이 대꾸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바위처럼 강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보기엔 안 그런 걸요? 그럼 바이블을 펼쳐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세요.” 나는 그들이 그걸 뒤적이는 사이에 얼른 집안에 다녀왔다. 그들은 그 구절을 큰소리로 읽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주: 우리말 개역개정 마가복음).” 그들이 다 읽자 내가 말했다. “그 구절에 보면 예수는 참된 믿음을 지닌다면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곤 나는 뒷짐에 쥐고 있던 라켐(농약제조업체의 상호)의 병을 앞으로 꺼내들며 말했다. “이건 독극물이거든요. 이걸로 댁들이 지닌 믿음의 힘을 보여주세요, 그때부턴 댁들이 예수에 대해 얘기하는 건 죄다 곧이들을게요.” 그들의 마구 일그러진 낯을 여러분도 보셨어야 하는 건데! 내가 물었다. “왜 그러세요? 믿음이 강하지 못하세요?” 머뭇대던 그들이 말했다. “저, 바이블엔 ‘신을 시험해선 아니 되느니라’라고 쓰여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시험하려는 건 신이 아니라 댁들이죠. 댁들은 늘 예수께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죠? 자, 바로 지금이 완벽한 기회군요. 안 그래요?” 그들이 우물댔다. “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교회 목사님과 의논해보고 다시 방문을 드리죠.” “네, 아무 때나.” 물론 그 사람들은 다신 안 왔죠. 끝으로 여러분께 제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우선 바이블에서 이 구절을 한 장 복사하세요. 그리고 라켐 농약도 한 병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문 앞에 와서 집적댈 때마다 이 시험을 해보세요. 아니면 대체 형 디젤연료인 폴랑가를 준비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믿음’이란 아름답거늘 소위 ‘믿는 이’들의 행태가 오죽하면 이런 글이 온 세상을 다 떠돌까? 그게 아니라면, 혹시 믿음을 떠돌이 방문판매하고 기본수당이라도 타야할 만치 삶이 어려운 건지? 밀가루, 헌옷가지 등을 타려고 억지 ‘믿음’을 꾸며야 했던 우리네 옛 모습이 어른댄다. 누렇게 바랜 그 흑백사진들을 뒤적이듯 마음이 시리다.

편역 ; 성휴 스님

참조: Who’s that knocking on the door? A Buddhist’s Guide to Evangelical Christianity, FOCUS, EAS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리스 워커 ❷

“기독교는 흑인 노예화 무기”

아버지 백인우월폭력조직에 의해 살해
킹 목사의 민권 투쟁 합류 불교와 인연

앨리스 워커가 대학을 다닐 즈음인 1960년대 중반 들어 고조된 흑인민권운동의 시발점은 자아정체성의 회복이다. 흑인들은 선조들이 백인들의 노예로 아프리카에서 끌려올 때 송두리째 뽑혀버린 영혼의 뿌리 찾기에 나선다. 그들은 자아정체성을 종교적 바탕에서 찾고자 한다.

따라서 그들은 백인주인들이 노예들에게 제멋대로 붙인 이름,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식 세례명부터 내던진다. 자신들의 영혼을 압류하고 노예로 부려온 저주의 상징으로 여긴 것이다. 일제하 창씨개명이 한국인의 기백과 뿌리를 말살하자는 계책이었음을 감안할 때 쉽게 이해가 되는 일이다.

이윽고 그들은 조상들이 본디 지녔던 아프리카 토속명칭이나 이슬람식 이름으로 바꾼다. 세계적인 프로복싱 챔피언 캐시어스 클레이도 무슬림이 되면서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슬람 이름으로 바꾼다. ‘맬컴 리틀’이란 미국 이슬람 흑인민권운동가 역시 하지 말릭 엘 샤바즈라는 이슬람식 개명을 한다. 맬컴 엑스(Malcolm X)로 더 널리 알려진 그는 백인에 빼앗긴 조상의 이름을 알 수 없음을 상징하여 X를 쓴다. ‘양키는 푸른 눈의 악마’라 지칭한 그는 “백인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흑인에게는 ‘처절한 악몽’이었다”며 몸서리를 친다. 그는 모든 악몽의 원인은 기독교라 주장한다.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다. 백인이 해석한 바이블은 백인이 아닌 수억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최대의 이념적 무기로 사용되었다. 백인들은 총칼로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항상 바이블을 휘두르며, 이를 근거로 현지인들을 ‘이교도’ 또는 ‘미개인’이라 경멸하고 핍박해왔다. 먼저 잔혹한 무장집단이 총칼을 휘두르며 유혈침략하고, 그 뒤에 선교를 빙자한 집단들이 따라 들어와 체계적인 약탈과 착취를 자행했다.”

그의 유년시절, 침례교회의 목사이던 그의 부친은 극렬한 백인우월폭력조직인 KKK에 끌려가 기차 철로 위에 눕혀져 두 동강이 난 시체로 바뀐다. 그리고 그 극악한 살인에 충격을 받은 모친은 정신이상자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백인기독교도의 만행은 그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 당대 흑인들에겐 거의 일상사였다. 다만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철저히 기독교적 악령에 길들여져 왔을 뿐이다. 맬컴 엑스는 이를 개탄하며 이른바 ‘기독교적 기적’에 대해 말한다.

“기독교가 미국에서 이룩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백인 기독교도의 악랄한 손아귀에 잡혀든 2200만 흑인들이 항상 비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백인들의 야만적 잔혹행위와 착취에 맞서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기적이다!”

그는 늘 직설적이며 논거 또한 명확하다. 또 그는 흑인의 민권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물리적 저항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가식적이며 위선적인 미합중국식 통합보다는 차라리 악명높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분리주의(apartheid)가 정직하다고 말한다. 마침내 그는 기독교적 편견을 초월한 흑인의 독자적 정치·경제·문화 공동체를 꿈꾼다. 이내 그 실천단계로 들어서던 1965년 2월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흑인’들의 집중총격으로 살해 당한다.

그때가 민권운동권의 행동파 학생이던 앨리스 워커가 대학을 졸업한 해다. 맬컴 엑스와 대조적으로, 온건노선을 주도한 인물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다. 불교철학과 간디의 영향을 받은 그는 비폭력무저항운동을 지향한다. 앨리스 워커는 명문 사라 로렌스대학에 다니던 중 킹 목사가 이끌던 흑인유권자등록캠페인 등 합법투쟁에 합류한다. 여기서 그녀는 붓다의 가르침과 처음 옷깃을 스친다.

성휴 스님

生활영어로 읽는 불교



A kid may know it, but not even a 100 year-old can do it.

코흘리개도 다 아는 걸 나이가 백 살이 되도록 못하니 탈이지요.

One day the famous philosopher asked an old Buddhist master, “What do you think is the very essence of the Buddha’s teaching?” The master answered, “So simple! Refrain from all unwholesome deeds and perform all wholesome deeds.” And the philosopher chuckled, “Ha ha! Even a snotty-nosed kid knows that.” The master smiled, “A kid may know it, but not even a 100 year-old can do it. As you see, easier known than done.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노스님에게 물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본질이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노스님이 대답했다. “그야 아주 간단하죠. 그릇된 짓은 하지 말고 바른 짓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학자가 킬킬댔다. “크크, 그거야 코흘리개 꼬마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노스님이 빙긋 웃었다. “코흘리개도 다 아는 걸 나이가 백 살이 되도록 못하니 탈이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알기보다는 행하기가 더 어렵다는 걸.”

번안:성휴 스님, 그림:이태수

明代 불경집 원형복원 완료

제작연대가 600여 년 전인 명대(明代)의 희귀 불경집이 2006년 9월부터 2년간의 철저한 원형 복원작업을 마치고 최근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문화재관리전문가와 기술진들은 중국 최고국보 중 하나인 이 불경집의 복원 및 보존에 최신 과학적 처리방식을 적용함으로서 향후 500년 이상 최상의 보존상태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텔레비전은 7월 11일 보도를 통해 주중 미국대사관이 동 복원기금으로 5만 달러를 협찬했음을 따로 전했다.

출처: 中國中央電視臺

제367주기 광해군 추모제 · 기념학술대회

개혁군주 광해군의 원찰 봉인사와 한국불교

▶ 개최일 : 2008년 8월 2일(음 7월 2일) 토요일
▶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봉인사

일 정

■ 제1부 : 제 367주기 광해군 추모제
· 사회 :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대)
· 장소 : 자광전 앞마당
· 시간 : 10시 00분~ 11시 30분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봉독
▷인 사 : 적경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봉인사 주지)
▷치 사 : 월운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
▷헌 사 : 이평래교수 (한국선문화학회회장, 충남대 명예교수)
▷예 참
▷육법공양 : 천선혜
▷다 례 : 헌다 및 헌화
▷진혼무 · 선무 : 이영빈 외 3
▷추모의노래 : 봉인사 합창단, 현승엽

■ 제 2부 : 기념 학술대회
❖ 오전 발표
· 장소 : 자광전 · 시간 : 11시 30분 ~ 13시 00분 · 좌장 : 혜원스님(동국대)
▷제1주제 발표 : 광해군의 불교관과 봉인사의 창건 / 김경집교수(진각대)
· 토론 : 한상길교수(동국대)
▷제2주제 발표 : 봉인사의 한국불교에서의 위치 / 고영섭교수(동국대)
· 토론 : 차차석교수(동방대학원대)
❖ 점심공양(13시 – 14시 00분)
❖ 오후 발표
· 장소 : 자광전 · 시간 : 14시 – 16시 30분 · 좌장 : 임병권교수(상명대)
▷제3주제 발표 : 광해군대 불교와 成陵의 願刹 봉인사 / 황인규교수(동국대)
· 토론 : 윤기엽교수(동국대)
▷제4주제 발표 : 한국역사에서의 광해군의 위치 / 이덕진교수(창원전문대)
· 토론 : 정영식교수(동국대)
▷제5주제 발표 : 봉인사의 고승 부휴선사의 사상과 그의 법통관 / 김방룡교수(충남대) · 토론 : 송묵 스님(봉선사)
❖ 사홍서원 및 폐회

■ 행사 참가 문의 : 봉인사 종무소 해인심 사무국장(☎ 031-574-5585), 이덕진 교수 (☎ 017-243-5838)
※ 추모제 및 학술대회에 참가하실 분은 사전에 이덕진교수에게 연락을 주시면 차량 편의를 보아드립니다.

불교대학 및 기초참선 수강생 모집안내

◆ 제 27기 선하불교대학

초심자는 물론 불교를 신행생활로 하고 있는 일반불자들 까지도 불교교리는 방대하고 심오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강좌를 통하여 불교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용어, 교리, 사찰예절, 기도 및 참선수행 등 불교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됩니다.

● 법사 : 혜거 큰스님
● 대상 : 불교에 처음 입문한 초심자 및 일반불자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2시
● 회비 : 14주에 6만원 (점심공양 제공)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제 13기 기초참선 과정

참선을 처음 접하거나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반입니다. 앉는 법부터 단계적인 지도로, 강의 · 좌선실수 · 묵언 · 지관겸수 · 생활선 · 간화선 연습을 통하여 누구나 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법사 : 혜거 큰스님, 지도법사
● 기간 : 8월 25일부터 14주
● 시간 : 매주 월요일 저녁 08시 – 10시
● 회비 : 20만원 (14주)
● 신청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1매

◆ 문의 및 안내 :
서울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삼우빌딩 405호 ☎ 02)445-8484 / 팩스 02)445-8043

금강선원 선하불교대학

最古 나한상 공개

동국대 박물관서 8월 14일까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한상이 처음 공개됐다.

동국대 박물관(관장 정우택)은 '남양주 흥국사 십육 나한상 특별공개전'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박물관 제 2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흥국사 십육 나한상은 45~47cm 크기로 목조 채색됐으며, 16존자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

동국대 박물관 관계자는 "동국대 박물관이 2007년 흥국사 불교미술품 조사 과정에서 흥국사 나한상이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송광사 나한상, 귀신사 나한상 등에 비해 훨씬 사실적이고 조형이 뛰어나다고 판단했다. 흥국사 나한상의 1650년과 1892년 중수기록으로 볼 때 최소 1600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흥국사 나한상 이전에는 1624년 제작된 순천 송광사 16나한상(보물 제1549호)이 가장 오래된 나한상으로 알려져왔다. 관람시간은 월~토요일 10~16시. (02)2260-3462 조동섭기자


동국대 박물관이 전시중인 16나한 중 제 6존자상.

창립20주년 기념 교수불자대회

평창 월정사서 8월 18~20일

'불교와 세계종교와의 대화'를 주제로 교수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 이하 교불련)는 8월 18~20일 평창 월정사에서 '2008 교수불자대회'를 연다.

교불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제학술대회와 신행활동 등이 함께 펼쳐진다. 18일 기조강연에는 교불련 초대회장을 역임한 고준환 교수(경기대)와 성낙승 총장(금강대)이 각각 '미래세계에서 불교의 역할'과 '한국 현대불교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강연한다. 산사음악회와 교불련 20년사를 평가하는 법석도 마련된다.

19일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에이몬 아담스 교수(런던대)가 '불교와 기독교와의 대화'를, 최일범 교수(성균관대)가 '불교와 유교와의 대화'를, 파나즈 모한 교수(시드니대)가 '불교와 힌두교와의 대화'를, 김홍철 교수(원광대)가 '불교와 신종교와의 대화'를, 강병조 교수(경북대)가 '한국불교, 종교개혁 필요한가'를 주제로 불교와 세계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평래 교수(충남대)의 '요가 수행의 이론과 방법'에 관한 신행 특강도 마련됐다.

20일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에는 참가 교수불자들이 각자의 분야와 불교에 대한 담론을 펼친다. ▲제1분과 '정치경제 문제와 불교' ▲제2분과 인간심리와 불교 ▲제3분과 문화예술과 불교 ▲제4분과 과학과 불교 ▲제5분과 교육,사회복지 문제와 불교 ▲제6분과 불교와 사회윤리 ▲제7분과 불교경전과 교학연구로 나뉘어, 이인자 교수(경기대), 우희종 교수(서울대), 권탄준 교수(금강대), 김범수 교수(인하대), 신성현 교수(동국대) 등이 진행한다.

참가는 교불련 회원 및 가족, 대학 강사, 연구기관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 한해 7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02)720-6618 ,gby1988@hanmail.net

조동섭 기자

티베트불교 연구 불 붙었다

양승규 박사 등 학진 창의주제 연구 선정

2008년 티베트 유혈 사태 발생으로 티베트에 전세계 시선이 집중됐다. 하지만 국내 티베트불교 연구는 허일범, 주민황 등 불교학자에 의해 간간이 다뤄졌을 뿐 중국내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티베트인 위상처럼 미진했다. 교계 한 연구자는 "국내 티베트불교 연구 현실은 선행 연구 부족과 전공자 부재 때문"이라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신진학자 4인이 본격적인 티베트 연구에 나서 관심을 끈다.

국내에서 처음 본격적인 티베트불교 연구를 시작한 주역은 양승규 박사(동국대), 차상엽 박사(금강대), 김성수 박사(연세대), 최동순 박사(동국대)다. 양 박사와 차 박사는 티베트불교 사상 전공자로, 김성수 박사는 티베트불교사 전공자로, 최동순 박사는 명상 전공자로 연구에 참여한다. 이들은 '티베트의 불교철학과 실천체계 연구'를 주제로 7월 7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공모한 '인문사회분야기초연구 창의주제연구'에 선정돼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년 동안 티베트불교의 학술적 정립을 시도한다.

양승규 박사는 "베이징과 티베트 라싸를 연결하는 칭짱철도 개통과 함께 티베트를 찾는 관광객 수 만큼 티베트를 이해하려는 움직임도 커졌다"면서, "단순한 안내와 정보차원을 넘은 티베트 문화에 대한 학술자료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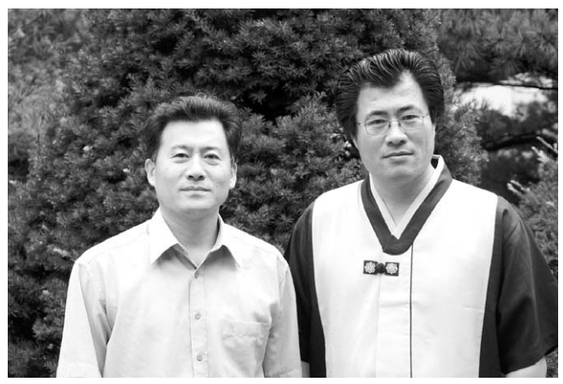
티베트불교 연구는 기반연구와 실천체계연구로 나뉘어 진행한다. 1차년도에 진행할 기반연구에서는 티베트불교 성립과 교학적 배경, 티베트불교 4대 종파의 교의체계, 티베트불교의 문화와 예술, 달라이 라마의 삶과 철학을 중심으로 인도와 티베트 간 문화적 요인을 연구한다.

양 박사는 "이슬람 침입 등으로 인도 학승들이 티베트로 이동하면서 티베트에서는 중관 논리체계와 밀교 수행차제를 통한 현밀(顯密)이 조화를 이뤘다"며, "티베트 4대 종파인 닝마파, 싸꺄파, 까규파, 겔룩파에 대한 교리적 특징을 정리할 것"이라 설명했다.

2차년도 실천체계연구에서는 티베트불교 명상법 절차와 배경, 람림 수행체계, <입보리행론>의 대승불교 실천론, <티베트 사자의 서>에 나타난 티베트인의 생사관 연구를 통해 대승보살의 육바라밀 실천이 티베트 이타주의 문화로 발전한 과정을 규명할 예정이다.

양승규 박사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티베트불교 기반의 수행공동체가 급증하고 있다. 대학의 불교연구자들도 티베트불교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 박사는 "서구의 티베트불교 연구 열풍은 티베트불교가 인종, 폭력, 환경 문제 등 현실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며, "서구인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티베트불교 연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본격적인 티베트불교 연구에 나선 양승규 박사(우측)과 최동순 박사.

"일본인 의식 근간은 조선성리학"

김승일 연구교수, 법화학천태학 학술강연회서

일본의 독도 시비로 한 · 일 양국의 역사적 관계에 관한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때 조선성리학 이념이 일본 막부 정책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김승일 연구교수(국민대)는 7월 19일 동국대에서 열린 법화학천태학회(회장 리영자) 학술발표회에서 '조선성리학이 일본 불교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김 연구교수는 "조선성리학의 사변논리가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서 질서유지책으로 사용됐다. 도쿠가와 막부는 이를 위해 불교를 조직화해 체계적 지배를 실현했고, 형식화된 불교는 선종 사회논리 속에 생활불교화 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일 연구교수는 "일본 선종 승려들은 조선성리학 통치이념화 및 사회의식 구조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일본인의 정체성 확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연구교수는 '정직'과 '실용'을 근본으로 한 자본윤리의식을 일본인 의식의 근간으로 설명했다. 김승일 연구교수는 사뮤엘 웰링턴의 '일본문명'을 인용하며 "'정직'과 '실용'을 근간으로 일본이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조선성리학 때문이었다"고 역설했다.

조동섭 기자

금동미륵보살반가상 유럽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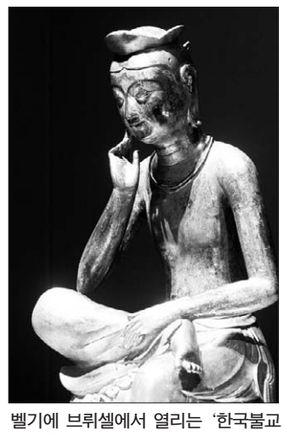
벨기에 브뤼셀서 10월 9일부터

한국미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국보 제78호와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이 2008년 10월 유럽 나들이 간다.

정부는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이 신청한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 119건 206점의 국외반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을 비롯해 신라 금동관음보살입상, 백제 산수문전, 조선 <묘법연화경> 등은 10월 9일부터 2009년 1월 1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국불교미술 특별전'에 전시된다.

한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의 해외 나들이는 1960년대부터 한국 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번 브뤼셀 전시가 일곱 번째 나들이다. 조동섭 기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국불교미술특별전'에 열리는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한국 선문화학회 봉인사서 학술대회

불심 깊은 성군으로 알려진 광해군을 불교적으로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광해군의 원찰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에서 열린다.

한국선문화학회(회장 이평래)는 8월 2일 오전 10시 남양주 봉인사에서 '개혁군주 광해군의 원찰 봉인사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광해군 367주기 추모제와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광해군의 불교관과 봉인사의 창건'(김경집 진각대 교수), '봉인사의 한국불교에서의 위치'(고영섭 동국대 교수), '광해군대 불교와 성능의 원찰 봉인사'(황인규 동국대 교수), '한국역사에서의 광해군의 위치'(이덕진 창원전문대 교수), '봉인사의 고승 부휴 선사의 사상과 그의 법통관'(김방룡 충남대 교수)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031)574-5585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학회 7월 31일 하계워크숍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은 7월 31일 오후 2시부터 '불교와 사회참여'를 주제로 2008여름학술워크숍을 개최한다.

박광서 교수(서강대)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황인규 교수(동국대)가 '역사 속에서 불교와 사회참여'를, 류승무 교수(중앙승가대)가 '현실 속에서 불교와 사회참여'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불교의 역사적 이해' 조성택 교수 특강

'불교란 무엇인가' '붓다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조성택 교수(고려대)가 해답을 제시한다.

조성택 교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마련한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 강좌' 시리즈에 초청돼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불교의 역사적 이해'를 주제로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강연한다.

강연은 ▲7월 26일 역사적 붓다 ▲8월 2일 붓다 ▲8월 9일 무불(無佛)시대의 '붓다들' ▲8월 16일 경쟁하는 '붓다들' : 미륵과 아미타불 ▲8월 23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02)739-1223 조동섭 기자

힘든병마 때문에

여러가지 건강방법을 행하여 보았지만 만족하시지 못하고 시달리는 분은
푸른샘에서 선대의 비법을 토대로 오랜 수행적 경험과 체험으로 연구한
"해빙내춘(茶)"을 드시면서 푸른샘 운동법과 푸른샘 호흡법을 행하여 보세요.
참 좋은 자연력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에 마음의 평화는 부드러운 차를 마시면 火를 다스리기 쉬워지고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대로부터 仙人들이 마신다는 야생 산야초인 버섯, 상엽 상심 인삼 국화 복분자 두충 둥글레 구기자 하수오 등은 포박자라는 책에 보면 수행하시는 선인들이 즐겨 드신다고 합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산야초들을 모아 수행에 좋은 茶를 만들었습니다.
해빙내춘(차)는 마음의 평화와 수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차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모든 것이 더불어 편안해집니다.

◆구입문의 : 017-433-6523
◆소비자상담실 : 042)484-5538
◆취 급 : 약국, 찻집, 건강센타, 자영업 등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www.hypnos114.com
전생·빙의

인간 잠재의식 직접 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 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잠재의식속에 숨겨진 심리적 근원을 밝혀
인간을 변화시키는 최면의 위력"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부부솔루션등 출연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ICHT)
심리상담 전문가,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생활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의 실제, 최면요법 등

빙의치유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영가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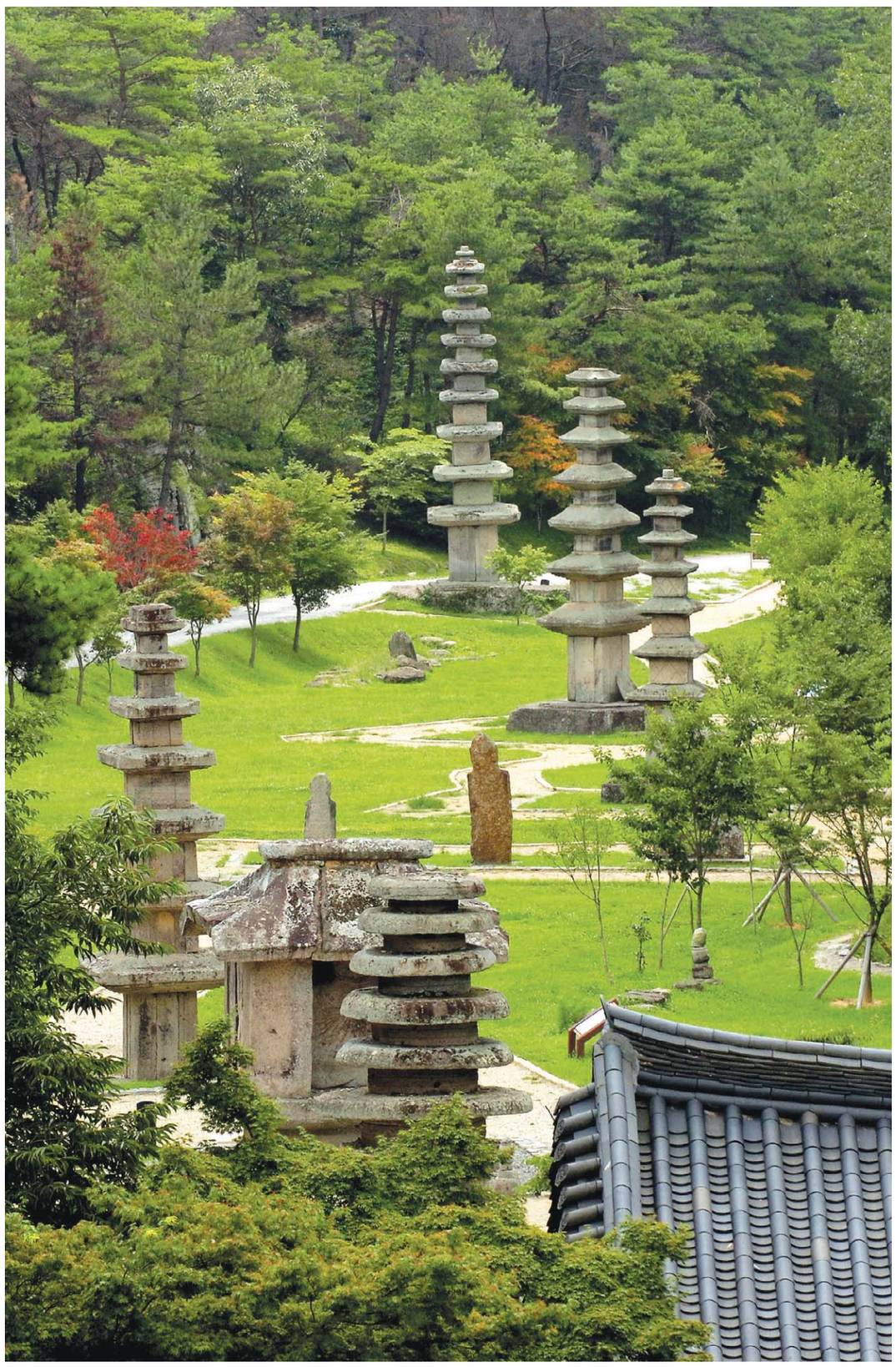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테이프 보내 드립니다. 테이프 발송비 10,000원
현재 접수중

미국최면전문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한국최면과학원 대표전화 : 1544~2741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서울 02)582-0737 강남 선릉역3번출구 선릉타워9층
대전 042)222-0737 대사동 서대전역7번출구 청운빌딩2층

사찰풍경

염원의 불사(佛事) 화순 운주사

합장하는 곳이 대웅전이고, 극락전이네



와불(臥佛)은 언제쯤 일어날까.
새벽닭이 울던 그 날로 마음 끝이 달려간다.

하루 낮밤 만에 천불천탑(千佛千搭)이 오셨다는 염원의 도량 운주사.
일주문에서부터 도량 곳곳이 불상이다.
합장하는 곳이 대웅전이고 극락전이고 설법전이다.
울퉁불퉁해진 석불의 얼굴은 중생의 얼굴을 닮아가고,
간절한 기억으로 서있는 석탑의 그림자에는 짙푸른 이끼가 끼었다.

대웅전 곁에 널린 빨간 고추 위로 여름 볕이 쏟아지고
스님이 널어놓은 이불 빨래 위로는 따가운 남풍이 지나간다.
산꼭대기에서 매미가 뜨겁게 운다.
와불이 있는 곳이다.

와불은 여전히 누워있다.
천불천탑을 세우던 그 옛날.
새벽닭이 울어 일어설 수 없었던 마지막 불상.
부처의 모습으로 왔으나 중생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와불.
중생의 모습을 보는 날. 정토(淨土)의 날은 밝아올 것이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세상을 다 태울 것 같았던 태양이 무상(無常) 앞에 식어가는 저녁.
비바람에 깎인 석불의 그림자가 오늘도 일주문을 나선다.
시방(十方)의 시간은 식어가는 태양을 따라가고 일주문을 나선 부처의 그림자는 다가올 미래를 따라간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국제 육조정맥선원
여름수련회



국제 육조정맥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두 번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로 이루어지는 법융선사 심명 법문을 전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안종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육조정맥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회로 인해 8월의 서울, 포천, 광주, 부산 법문 쉽니다.

- 일 시 : 2008년 8월 13일(수) ~ 8월 17일(일)
- 회 비 : 80,000원 (농협 100039-51-043731 예금주 : 최주희)
  입금하시고 010-8670-1445로 성명 / 입금자명 / 연락처 알려주세요.
- 문 의 처 : 010-8670-1445 / 02-3494-0122 / 011-785-0122
-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약도 등 관련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수련회 당일 광릉내 707번 종점에 오셔서 031-531-8805로 전화주세요.

“지역 감정? 그런 거 몰라요”

제6회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개최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영 · 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이 7월 18~19일 부산에서 열렸다. 영 · 호남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해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6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

(사)맑고향기롭게(회장 박수관)와 부산문화방송이 주최하고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신라대학교가 특별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영남지역 부산고교 120명, 호남지역 여수고교 120명을 비롯 총 240명의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수관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어울림 한마당은 서로의 풍습과 살아있는 문화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은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도 “매년 아름다운 청소년 교류의 장이 열려 기쁘다”며 “어른들이 잘못 만든 지역감정의 고리를 우리 청소년들이 끊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여수고교 대표 문상원 학생과 부산고교 대표 김희은 학생이 단상 위로 올라와 서로를 환영하는 인사말과 정겨운 포옹을 나눴다.

19일에는 부산의 명소인 광안대교와 누리마루, 아쿠아리움 등을 견학한 후 오전 11시 30분 해산했다.

박지원 기자

“불교문화 이해와 체험”

제11기 삼광문화연수원 개강


삼광문화연수원에서 진행한 다도 수업.

매년 초 · 중 · 교사들을 위한 불교문화 체험의 장이 되어온 삼광문화연수원(원장 영제)이 2008년 여름방학을 맞아 문을 연다. 삼광문화연수원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연수원 승인을 취득해 과정 이수 시, 연수학점 2학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총 10기 수료생 790명을 배출했다.

올해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총 30시간의 일정으로 부산 금강불교대학에서 열린다.

‘한국 생활문화의 이해와 체험’을 주제로 전통 교육, 문화, 사회, 건강 등을 불교를 통해 심도 있게 접근한다.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룬 ▲불교문화 개론 ▲불교와 과학 ▲현대 사회의 종교론 ▲전통의 향기, 다도 ▲사찰 건축 · 조형물 · 구조물 등 전통문화재의 이해 ▲명상의 이론과 실기 ▲한국 민족사의 바른 이해 ▲생활 속 비교 종교론과 이념 ▲전통문화재 현지답사(경주 남산 일원) ▲영제 스님 특강(삼광사 주지) 등 총 10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현직교사들을 위한 강좌인 만큼 교수진 또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초빙한다. 동국불교대학 구자상 교수,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학교 대학원 고대인도 역사문화고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위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권기현 교수, 부산여자대학교 아동복지 보육과 교수인 한국 다도협회 정영숙 이사, 동의대학교 철학윤리문화학과 박문현 교수, 일본 동경대 윤종갑 교수, 경남 공무원 연수원 김성홍 교수 등 총 11명의 강사진에게 해당 분야의 깊이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삼광문화연수원장 영제 스님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불교 문화화”라며 “초 · 중 · 고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덕목”이라고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수비는 5만원으로 5일간 중식비, 교재비, 현장학습비, 다도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신청은 삼광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80명만 수강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2003년 졸업한 1 · 2기 졸업생은 재신청할 수 있다. (051)808-0713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국토를 찾아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자비심으로 ‘생명 사랑’ 꽃 피워요

“12살 지현이는 친구들과 뛰어놀길 좋아하는 천진난만한 5학년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화재로 얼굴, 목, 팔, 손, 등, 다리에 화상 흉터가 생겼고, 몸 뿐 아니라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현이의 부모님도 가난한 형편으로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수술 받지 못하던 신지현(12) 환우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6월 17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6회 난치성,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 음악회’의 수익금 912만원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를 통해 지원받게 된 것.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운동과 의료복지 운동 등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비영리단체다.

이들은 뇌사 시 장기 · 골수 · 각막기증, 사후 조직기증 등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 치료비의 재정적 지원사업, 혈소판 공여, 헌혈증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2006년 7월 21일부터 생명나눔 운동을 알리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100원 희망 불씨콘서트’를 시작으로 ‘탁발순례대장정’ ‘일일찻집’ ‘난치병 소아암 돕기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기기증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 등록 총 1175명, 후원회원 270명이 아름다운 나눔을 약속했고, 13차례에 걸친 조혈모세포 캠페인을 통해 백혈병 혈액암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도 했다. 현재까지 총 19명의 난치병 환우에게 5358만4000원을 지원했다.

부산지역본부장인 원범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사상은 일체중생을 내 몸 같이 생각하는 동체대비심”이라며 “부산 시민 모두가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하는 참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손으로는 박수 소리가 나지 않는다”며 “생명나눔 회원들과 불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 고통 없는 부산, 훈훈하고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부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의 구호는 바로 ‘나눔은 습관이며 베풂은 수행입니다’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가꾸는 이들이 있기에 불국토 부산의 내일은 더욱 아름답다. (051)853-0429 박지원 기자



장기기증 캠페인 난치병 환우에게 희망

대승불교 조계종 수계 및 건당법회

7월 21일 밀양 석산사서 열려



한국대승불교 조계종은 종정 봉진 스님(가운데)을 법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대승불교 조계종(총무원장 화봉)은 7월 21일 제2회 수계법회 및 건당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이 위치한 밀양 석산사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한국대승불교 조계종 종정 봉진 스님, 총무원장 화봉 스님, 원로원장 관능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진행됐다. 수계스님 및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가해 여법한 법회를 진행했다.

종정 봉진 스님은 “한국대승불교 조계종이 창종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종도들이 모여 종단이 커진 만큼 어느 종단보다도 부처님의 법을 법답게 행하고 부처님의 법을 이치에 맞게 행하는 참다운 수행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법문을 했다.

수계의식이 끝난 후에는 입실 건당법회가 이어졌다.

경남남부지사 청운 스님

신임 신도회장 취임법회

범어사, 7월 21일 부산 롯데호텔서 열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 신도회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7월 21일 오후 6시 30분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사부대중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윤희(64) 신도회장의 취임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자인 스님, 부산광역시 설동근 교육감, 상공회의소 신정택 소장,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신임 신도회장 이윤희씨는 경북 군위읍 출신으로 한국 BBS 부산광역시연맹 회장과 중앙연맹 부총재, (주)수한, (주)태근정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윤희 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삼보외호와 부산지역발전 및 불교신행단체의 화합과 불자의 인격함양을 위해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가지 신도회운영 실천덕목으로 ▲삼보외호와 범어사 가람수호 ▲신도회 및 부산지역 신행단체들 간의 화합과 친목 ▲차원 높은 불자 육성 ▲불교문화 발전과 미풍양속 선양 등을 다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신임 신도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도회기를 증정했다.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다 놓아버리고 다 비워 버리고 버릴 것도 없는 맑고 여여한 그 마음이 누구나 간직한 마음의 고향이요 부처님 마음이네”라며 이윤희 신도회장의 취임을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구룡사, 8월11일 부터 어린이 한문학교 개강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주지 신공)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한문학교를 연다. 8월 11일~9월 1일 매주 월 · 화요일 각 2시간씩 총 3주간 진행된다. 이번 한문학교에서는 주자의 <소학> 중 어린이에게 교훈적인 부분을 발췌 정리한 <사자소학>을 주교재로 한자와 윤리도덕에 관해 배우게 된다. 더불어 문화체험, 생활예절과 발우공양, 참선, 다도 등도 함께 이뤄진다.

주지 신공 스님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우리 어린이들이 한문학교를 찾는다면 한문과 예절교육을 통해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쑥쑥 자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를 바로 이해하는 지혜로운 어린이들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055)855-6359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 · 구독 문의 (051)632-0064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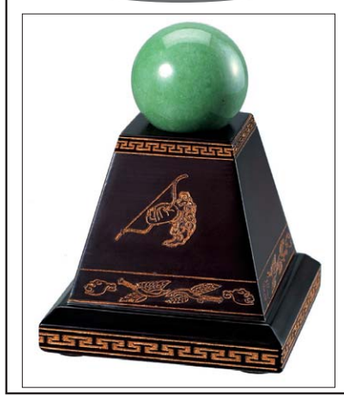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고창 선운사 하안거 포살법회

남곡 스님 25주기 추모제 함께 열려

조계종 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7월 20일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예경삼보에 이어 포살법사인 철산 스님(내소사 선원장)이 "대중이 모여 화합함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스님들이 "포살계를 설하여 포살을 하기 위함"이라고 답하며 포살법회가 시작됐다.

이날 포살법회는 조계종이 발행한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법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독송하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 교화의 원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포살법회 후에는 남곡 스님 25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법만 스님은 "남곡 스님 25주기를 맞아 본사로서의 위상과 벽파 문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 이번 포살법회를 통해 스님들의 수행상을 점검해 날마다 좋은 날(日新又日新)이 되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년 불심 하나된 자리

제11차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 열려



7월 22~25일 전남 화순일대에서 열린 제11회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

'푸른 마음 밝은 꿈을 위하여'를 주제로 전남 화순에 청년 불자들이 모였다.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남 화순일대에서 열린 제11회 파라미타 전국 연합캠프에는 청소년회원 1500여명과 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화순리조트 아쿠아나 체험활동, 천불천탑의 운주사 문화유산탐방, 산삼체험, 누에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과 전통놀이체험이 펼쳐졌다.

22일 진행된 입제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을 비롯해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전완준 군수(화순군) 등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네팔 및 태국 화가 그림과 조각전 개최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가 있는 네팔 화가 3인과 태국 예술가의 전시회가 빛고을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롯데백화점 롯데화랑에서 7월 25일부터 개막한 전시회는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현장)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아시아의 벗들, 네팔, 태국 화가들의 그림과 조각전'을 주제로 시작한 전시회는 네팔 화가 등이 2개월여 동안 광주지역에서 체류하면서 느낀 광주와 남도의 풍광들을 화폭에 담았다.

전시회는 8월 1일까지 계속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4년 '백제불교' 환생

탐방 익산미륵사지 복원현장

공정 80% 진척…자료분석·복원 연구 활발


해체보수공사 중인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동양 최대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해체보수공사가 2014년 완공을 앞두고 80% 공정을 마쳤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해체보수정비공사 사업은 2014년까지 진행된다.

익산 미륵사지석탑은 백제 제30대 무왕(600~641)이 미륵사 창건 때 세운 9층탑이다. 탑이 주목받기 시작한 1910년 석탑 남·북쪽이 무너진 6층으로 남아있었다. 1915년 일본인 손에 콘크리트로 보수된 미륵사지석탑은 노후화돼 보기 흉하고, 향후 석탑의 붕괴가 우려되어 1999년 국가문화재위원회가 해체보수정비를 결정했다.

전라북도는 2000년까지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를 위한 준비부터 석탑해체보수정비를 위한 가설덧집 공사 등 공정을 완료하고, 2001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대행사업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해체보수정비를 진행 중이다.

당초 미륵사지석탑 해체보수정비사업은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동양 최대 석탑이며 국보인 점을 감안한 신중한 해체 여론과 백제 창건 당시 건축기술 등 학술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2014년까지 연장됐다.

올해 상반기중 해체된 석탑 부재는 518개로 석탑보수정비 해체 전체 공정 80%가 완료됐다. 현재는 석탑 1층의 십자(+)통로 천정돌 윗면과 석탑 주변 남서쪽 석축은 모두 해체됐고, 북서쪽 석축은 일부가 남아있다.

현재는 서울대·카이스트 등 컨소시엄에 의뢰한 석탑보수정비에 활용할 미륵사지석탑 구조안전성 평가연구 학술용역을 완료한 상태다. 1~2월에 해체되었던 1층 옥개석(지붕돌)을 향후 복원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보수정비 현장 마당에 해체 전 모습으로 임시 조립해 부재의 재조립상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석탑보수정비 사업에 전북도내 관련 전문가 및 백제아사달의 후예인 익산지역 석공들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석탑해체 과정에서 출토된 자료들과 미륵사지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자료들을 성분분석 하는 등 비교연구도 실시예정이다.

한편 미륵사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익산시 금마·삼기면 일대 민가에 소재한 94점의 석재를 조사하여 향후 회수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륵사지석탑 해체 현장 관람은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올여름 익산미륵사지 복원현장을 찾아 백제의 숨결을 느껴봄도 바람직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bud1080@naver.com

기업과 복지시설의 아름다운 만남

고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 등 세방가천재단과 협약

어려운 경제사정이 재원부족과 후원금의 감소로 이어진 고창 지역복지시설에 한줄기 서광이 비쳤다.

7월 23일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센터(관장 무공)는 2층 대강당에서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내장사 대원 스님, 이강수 고창군수, 세방그룹 이상웅 부회장 등과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세방가천재단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복지관 이용편의 증진을 돕는 복운버스 구입비 4000만원,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800여권 도서 증정식 등이다.

세방그룹 이상웅 부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세방그룹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복지관과 고창군 어르신에게도 도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운사 의료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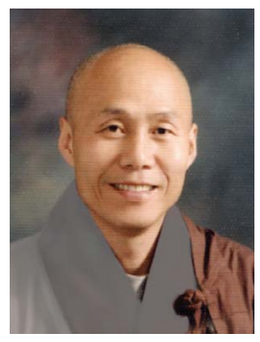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료진과 교직원, 학생들은 7월 24일 고창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의료봉사단은 한의사 4명과 국악과 학생, 영정 촬영팀으로 구성됐다. 고창사회복지관(관장 무공)과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를 찾은 의료봉사단은 지역 어르신 등에게 기초진단 후 침, 부항, 약 조제 등 진료봉사를 했다. 선운사 만세루에서는 동국대 국악과 학생들의 공연이 열려 지역 어르신들을 위문했고, 영정 사진촬영팀은 어르신들의 영정촬영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군산 동국사 종걸 스님

교육·보시로 포교활성화



독도에 일본 야욕이 끊이지 않는때 일본 강점기 잔재 청산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불심은 차별이 없다'고 전국 유일의 일본식 사찰로 남은 동국사에서 남다른 포교와 불사에 힘쓰는 종걸 스님을 만났다.

종걸 스님은 2005년 동국사 주지 취임 후 신도조직부터 정비했다. 거사들 신행모임인 감로회, 상조회 역할을 하는 지장회, 합창단, 군산교도소 불자모임인 불심회를 새로 조직한 스님은, <동국의 길>이라는 자체 신도교육교재를 편찬해 년 2회 이상 신도교육을 실시했다.

동국사 신도회는 동국대, 중앙승가대 교수 등 외부 유명 강사를 초빙해 질 높은 신도 교육 실시로 유명하다.

신도회 자체 노력도 부단했다. 신도회 임원들은 임원수련회를 개최해 신도임원 각자가 동기부여를 통한 신심 고취와 조직 활성화에 앞장섰다.

쌀·의복 등 생필품을 전했다.

종걸 스님의 보시는 이뿐 아니다. 스님은 2003년 한쪽 신장을 아무 연고도 없는 기독교 장로에게 기증해 새 삶을 열어 주었다. 이 보시행을 계기로 신장이식자 부인 역시 다른 사람에게 신장 기증을 결정해 지금도 릴레이식 장기기증 운동이 줄잇고 있다. 스님은 이 밖에도 골수, 간, 시신까지 기증하겠다는 서약도 했다. 현재까지 100여회이상 헌혈 했다.

"중생과 더불어 사는것 또한 수행"

종걸 스님과 하나된 신도회는 매년 부처님오신날 한마당 축제를 열고 한문학당, 퀼트강좌 등을 개설해 지역주민들과도 호흡하는 생활불교를 실천 중이다.

스님은 자광노인대학에도 정기적으로 출강해 법문하고, 월2회 군산교도소 재활관법회를 이끌며 장애인 재소자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종걸 스님의 포교활동은 전국 교도소중 유일하게 불자모임이 없던 군산 교도소에 '교정인 불자모임' 창설로 알 수 있다.

동국사와 종걸 스님의 보시행도 주목할만 하다. 동국사에서는 지역의 불우이웃에게 정기적으로 쌀 등을 지원한다. 성지순례도 특이해서 삼사순례에는 반드시 불교복지시설을 한군데 방문해 2009년이면 동국사가 창건 100주년을 맞는다. 종걸 스님은 창건 100주년을 기념해 현재 진행중인 원형복원 불사를 마무리하고 군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선방과 불교문화유산 전시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건 100주년 개산대제에는 일본 불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한·일 불교교류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가 군산시 등과 연계해 동국사를 돌아보는 관광벨트 계획을 확정해 일본 사람들의 동국사 방문이 늘어날 전망이다.

"생활불교의 실천으로 동국사를 군산 포교의 1번지로 만들겠다"는 종걸 스님의 목소리에는 다부진 각오가 배어 있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참회·희망 담은 음성공양 올려요”

청원 석문사 청주교도소서 찬불가 대회…12팀 참가 실력 발휘

7월 22일 청주교도소에 찬불가가 울려 퍼졌다.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주최한 ‘청주교도소 수용자 찬불가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찬불가 대회에는 총 12팀이 참가했다. 12팀 모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연등’ 등 부처님의 공덕을 다룬 노래를 부르며 실력을 겨뤘다.

대회에 앞서 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스님은 법어를 통해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며 “여러분들도 자신이 처한 삶을 비관만 하지 말고 이곳에 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고, 찬불가를 배우게 된 것 등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설명

여느 노래 대회처럼 춤과 환호는 없지만 무대에 올라 노래 부르는 수용자들은 부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담고 노래 부르기에 집중했다. 객석에 앉아 무대를 지켜보는 재소자들도 뜨거운 박수로 응원했다. 재소자들이 각 취업장(교도소 내 일터) 별로 팀을 구성해 출전한 찬불가 대회는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성적은 중요하지 않았다. 노래로써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찬불가 대회는 커다란 의미를 주었다. 웃음과 박수 속에 ‘실력발휘’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부상으로 받은 라면에 담긴 지역 스님들의 자비에 감사했다. 불자가수 오영민, 최석종, 임창희를 초청 선보인 멋진 무대도 특별한 선물이었다.

찬불가 대회에서는 법진 스님(효예종 총무원장), 혜광 스님(자비실천운동본부), 현문 스님(광명선원 주지), 혜철 스님(현대불교 충청지사장), 법신 스님(대암사 주지) 등이 심사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혜전 스님은 “찬불가를 부르는 수용자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대회의 열기에 너무 기뻤다”며 “힘이 닿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청주교도소에 찬불가 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내 손길 필요하다면 어디든…”

2년째 찬불가 경연대회 개최한 혜전 스님



‘청주교도소 수용자 찬불가 경연대회’를 2년째 주최한 혜전 스님은 ‘교도소 교화’ 사업뿐만 아니라 ‘미혼모 지원 센터’,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한 ‘효(孝) 잔치’ ‘떡국 봉사’ ‘농촌 봉사’ ‘결손가정 · 독거노인 돕기’ 등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스님은 출가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지인의 소개로 대전 소년원에서 교화 사업을 하게 됐다. 이후 줄곧 교도소를 드나들며 교화사업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스님은 2004년부터 미혼모 지원 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토굴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지낼 때 어떤 아가씨가 아이를 키워 달라고 왔었는데 지내는 환경이 마땅치 않아 아이를 받아주지 못했다”는 스님은 “그 당시 돌려보낸 미혼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다 우연하게라도 ‘미혼모 지원 센터’를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센터로 등록해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스님은 앞으로 청원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혜전 스님은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 몸이 소멸되지 않는 한 모두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 논산 지장정사

“봉사는 ‘끝’이 없어요”

캄보디아, 씨엠립 스라스랑초등학교 급식소, 새끼 돼지, 국수, 경로잔치, 노인 요양 시설, 장학금, 급식비….

논산 지장정사에서 통하는 ‘화두’ 같은 단어들이다. 지장정사는 최근 캄보디아 지원 사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007년 12월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에 있는 스라스랑 초등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했다. 급식소 건물을 짓는 비용만 약 5000만 원이 들었다.

지장정사 주지 덕산 스님은 “우연한 기회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곳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그 당시 더욱 놀랐던 것은 550여 학생 중 120여명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초교 급식소 설립·책상 지원

국수 나눔운동·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도

그 후 원력을 세운 덕산 스님은 스라스랑 초등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매 분기 1000여 만 원을 지원해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있다. 스님은 “현재 유가 상승에 따른 식자재비 상승 때문에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른 초등학교에 무료 급식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급식소 설치를 위해 7월 30일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장정사는 캄보디아의 오지 학교에 책 · 걸상을 제공해 주고,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학교 보수공사까지 도맡아 한다. 게다가 어린이들 뿐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역민들을 위해 급식소 직원 채용, 극빈가정 백미 지원, 새끼돼지 분양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와 캄보디아가 연계한 ‘농업 공동경작’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장정사는 캄보디아 봉사를 진행하며 교민들의 자원 봉사 참여를 독려하고, 카페를 운영해 국내외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등 중간자 역할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장정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봉사를 다녀간 사람만 해도 200여 명.

지장정사의 봉사는 캄보디아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04년부터 목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 ‘국수 나눔 운동’을 열고 있다. 국수 봉사는 ▲월요일-부여시 ▲화요일-계룡시 ▲수요일-논산시 ▲금요일-공주시 ▲토요일-대전역 ▲일요일-대전 유천동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포항이나 인천 등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도 한다.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계신 어르신들에게 매일 150개의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지장정사의 보살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장정사는 국수 봉사를 쉬는 목요일마다 지역의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빨래를 비롯한 청소, 보수 등 봉사를 쉬지 않고 행하고 있다.

또 매년 결손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 장학금의 경우 15군데 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찬치와 노인 요양원, 부모의 이혼으로 시골 할머니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봉사 템플스테이 등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손효선 기자

법주사 후불탱화 문화재 지정예고



충청북도는 7월 18일 법주사(주지 노현) 대웅보전후불도(大雄寶殿後佛圖·**사진**)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 했다.

법주사 대웅보전 후불도는 5폭 탱화로 1917년 제작된 ‘아미타불도’와 1897년 그려진 ‘아미타불도’, ‘사천왕도’(각각 2폭)로 구성돼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조선후기 도내 일원에서 화사유파를 형성한 금호당(錦湖堂) 유파의 작품양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효선 기자

대전시 종무팀 신설

종교계 시정참여 門

대전시(시장 박성효)가 시청 내 종무팀을 신설해 종교계의 시정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 대전시는 7월 7일 시청 문화예술과 내에 종교업무를 담당하는 종무팀을 신설, 지역 내 종교지도자 면담과 전통사찰 보존, 종교계 문화 행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종교계와 유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교계는 앞으로 종교법인 설립, 교회 · 사찰 · 성당 등의 건축행위 인 · 허가, 문화예술 행사 등에 대한 업무 처리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전충남종교인평화회의 의장 진공 스님은 “사회적으로 종교편향 논란이 있는 만큼 종교계의 시정 참여 과정에서 종교간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불교 폄하·왜곡보도 막는다”

충북불교언론호법위 구성…위원장에 노현 스님

충청북도불교총연합회(회장 노현)가 올바른 불법 홍포를 위한 ‘충북불교언론호법위원회’(이하 언론호법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21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노현 스님(법주사 주지)을 위원장으로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이 사무총장을 맡았다. 언론호법위원으로는 각연 스님(용화사 주지) 도천 스님(미타사 주지) 설곡 스님(수도원 주지) 현진 스님(관음사 주지) 혜광 스님(금수사 주지) 혜성 스님(자재암 주지) 화산 스님(명장사 주지) 등이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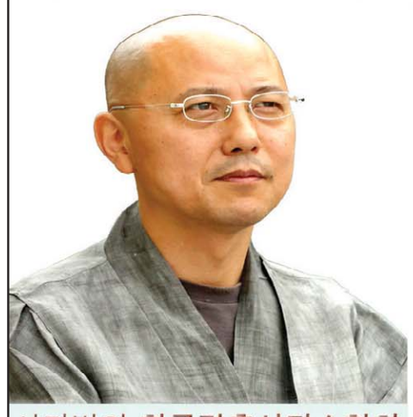
언론호법위원회는 방송과 언론이 부처님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각종 불교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교의 폄하 · 편파 · 왜곡 보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불교 포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불교를 폄하 · 편파 · 왜곡하는 보도가 나올 경우 상시 모임을 갖고 대처하도록 결의했다.

회장을 맡은 노현 스님은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활동 중 불교 폄하 내용이 보도될 경우 해당 지역의 교구 본사 또는 불교총연합회에 연락해 조취를 취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사) 한국결혼상담소협회에서 최첨단 맞선 프로그램 출시!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
고문 혜철 대성사 주지스님

스님출연 ◆ TV프로그램
KBS 아침마당 / VJ특공대 / 무한지대Q
MBC 화제집중 /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 6mm 세상탐험 / 손석희의 시선집중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생방송 투데이
YTN 전국 네트워크
불교TV 아름다운 사람들
불교방송 BBS 초대석
충북방송 충북, 충청인

국내, 국제 결혼정보업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WedManager 2008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프로그램의 기능
계약관리
회원관리
희망정보관리
회원매칭관리
성혼자관리
불량회원관리
주소록관리
매니저관리
홈페이지정보관리
전국결혼상담소
연결기능 등!

News !!!
매일 100개 이상의 공유 프로필이 전국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단 한개만 입력해두셔도 맞선 요청 전화가 걸려 옵니다!!!

주문 및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뉴페이스결혼소프트웨어

영화 '녹차전쟁(Tea Fight · 鬪茶)'

영상에 투영된 다선일미의 향운



강 사 : 예밍 왕(Yeming WANG · 감독)
주 최 : 사단법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회
일 시 : 2008년 7월 22일
장 소 : 부천 프리머스 시네마 소풍 9관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부천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천문화재단, 일본국제교류기금.

손님이 오면 으레 엽차 한 잔을 내놓듯 차는 우리 일상에 보편화된 문화다. 차를 논하는 사람치고 문학과 예술에 조예가 깊지 않은 이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차는 창작의 원천을 제공한다. 차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그 간극을 부드럽게 융합시키는 효능을 지녔다. 불교의 선사들도 차를 통해 화두를 들었고 구도 행각을 펼쳤다. 그러한 범상치 않은 차 한 잔을 예술로 승화시킨 영화가 있어 주목된다. 차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중국、대만、일본 동북아 3국을 배경으로 제작한 예밍 왕 감독의 '녹차전쟁'이다.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각국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차 문화의 맛과 기술을 겨룬다. 원제 '투차(鬪茶)'는 중국 복건성에서 발생한 녹차의 맛과 향기를 겨루는 시합을 일컫는 말이다. 영화 속 다인들은 다도에 임하는데 있어 절제된 예의와 작법을 갖춰 선보인다. 선과 악이라는 이중 구도를 중심으로 궁극의 평화를 향해 가족애와 연인 간의 사랑이 갈등하고 화해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지극히 깨어있는 '화경청적(和敬淸寂)'을 신세대 감각의 영상미로 표현한 수작이다. 애니메이션과 특수효과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방대한 사건과 인물들을 느슨하지 않게 조합했다. 녹차를 가지고 벌이는 시합의 순간은 역동적으로 완성됐다. 사랑 · 환상 · 모험을 주제로 제1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상영된 '녹차전쟁'을 통해 행복을 부르는 환상의 차에 감춰진 비밀이 공개된다.

자흑금차·웅흑금자 후손 선조 악연으로 인연 못 이뤄
"진정한 화해의 차 그리고 치유의 차 맛보십시오"

중국 송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이르기를, 마시면 혈기가 왕성해지고 폭력적인 기운이 생기는 '웅흑금차(雄黑金茶)'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평온한 기분이 드는 '자흑금차(雌黑金茶)'가 있었습니다. 오랜 전설의 두 명차는 두 파벌로 나뉘어 최고를 가리는 피의 대결을 펼쳤죠. 분노한 웅흑금차파는 자흑금차파의 차밭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그 때 전쟁에 가담한 것을 뒤늦게 후회한 이가 있었고 힘겹게 지켜낸 한 그루의 묘목만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 때 두 파의 싸움을 지켜보던 한 아이가 웅흑금차와 자흑금차를 하나로 합해 마시더니 바로 용이 되어 승천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일본 교토의 유서 깊은 '야기(八木)찻집'에는 선조부터 전해 내려오는 자흑금차 나무 한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 차의 달인이었던 '야기'는 환상의 '흑금차' 재배에 몰두하는 사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고 '흑금차의 저주'를 받았다 여기며 의욕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차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딸 '미키코'는 저주를 풀기 위해 대만 녹차학교로 향하죠. 그러나 대만에는 이미 60년 전에 차 암시장계를 장악한 웅흑금차의 후손이 '미키코'의 자흑금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차는 과연 완성될 수 있을까요?

일본 무로마치 시대(室町 時代: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에도 '투차'와 관련한 설화가 전해집니다. 마신 물의 산지를 알아맞히는 '투수(鬪水)'에서 한 단계 발전해 여러 종류의 차를 나누어 마신 후 그 품종과 산지를 맞추는 놀이입니다. 교토 · 나라 등 각지로 차 재배지가 확대되면서 귀족에서 서민까지 골고루 즐기는 차 놀이문화가 되었죠.

최고의 차는 어떻게 가려낼까요. 첫 번째는 거품의 지속력입니다. 그 다음은 향의 은은함에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맛도 중요합니다. 최종으로 다도의 기량과 완성도 또한 경합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일본은 신사에서 다도회를 자주 개최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루녹차를 거품 내 완성하는 말차가 일본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말차의 기원은 중국 송나라입니다. 중국에 머물던 일본 스님이 백장 선사의 백장청규안의 규범을 배워 일본으로 돌아가 다도를 전수한 것이 일본 말차의 시초입니다. 중국에서 말차법이 사라진 것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이 다법(茶法)을 개혁하면서부터입니다. 당(唐) · 송(宋) · 원(元)을 거쳐 전해 내려오던 차제조법이 서민생계에 유해할 뿐 아니라 사대부들의 사치를 조장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엽차(葉茶)를 마시는데 용이한 소호(小壺)의 사용이 점차 흥성해 오늘 날 중국 차 문화에 이른 것입니다.

차의 품질은 색 · 향 · 맛 · 기술입니다. 차를 왜 마실까요? 오직 인간만이 차를 마십니다. 지금 여기 15년 된 우롱차가 있습니다. 오래 숙성시킬수록 향과 맛이 탁월하지요. 반드시 처음에는 향을 음미하십시오. 그리고 홍차와 비슷한 맛을 지닌 꿀 향이 나는 차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입안을 감싸는 느낌으로 영국인들이 동양의 샴페인으로 부르는 차, 바로 '동방미인'입니다. 차에는 여성에게 느껴지는 매력과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미키코'의 어버지 '야기'도 그러한 차의 매력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인을 잃었습니다.

영화에는 자흑금차를 찾는 여인 '루후아'가 나옵니다. 그녀는 자흑금차의 후손으로 웅흑금차의 후손과 대만 녹차학교에서 만나 사랑하게 되지만 이 둘의 인연은 선조들이 지은 악연의 업(業)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사랑은 증오와 분노의 장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웅흑금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폭력성을 지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유통되는 차가 웅흑금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흑금차가 지향하는 세상도 옳지 못합니다. 마치 마약에 취한 듯 흐릿할 테니까요. 이 둘은 적당히 어우러져야만 하며 인류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 역시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한 잔의 차에 있습니다. 각각이 지닌 성장의 아픔과 사랑의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의 기억이 지닌 아픔들이 녹아 한 잔의 차로 완성됩니다. '녹차 전쟁'에서 나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다도의 진수는 바로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구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실은 속세를 벗어난 별세계입니다. 차선을 휘젓는 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광대무변의 천지가 다실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차 그리고 치유의 차를 맛보십시오. 자기 자신과 싸울 때는 이기고 지는 승패가 없습니다. 결국 흑금차의 저주는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차란 '무엇을 마시는가'보다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영화 '녹차전쟁'은 어린 시절부터 차를 즐겨오던 경험에 비추어 완성됐습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벌어지는 매우 사소한 다툼의 근원은 무엇일까 고민해왔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 고민했습니다. 그 해답은 차 안에 공존했습니다. 평화의 길은 차 안에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관객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시고 극장 밖을 나가 시원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갈등하는 모든 것들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동양불교조계종 창종취지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금번 저희가 고귀하고 걸림없이 살다가신 원효선사의 덕행을 기리고 우리 후학들의 이정표로 삼고저 뜻있는 분들의 고견을 받들어 동양불교조계종이란 이름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을 뛰어넘고 진여와 생멸을 회통시키신 원효선사의 남기신 뜻은 후학들에게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는 화쟁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전통과 그 유산이 오늘날 정체성이 흐려지고 교계내의 자종타 우월주의의 경향으로 부처님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유가 왜곡되어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동양불교조계종에서는 출세간을 아우르는 화회(和會)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창종(創宗)의 뜻을 내외에 알리는 바입니다. 관심있는 스님들의 동참을 바라옵니다.

❀ 창종예정일 佛記 2552年 10月 중
❀ 사무처 : (055)333-7678
(010-5521-7677)

佛記 2552年 6月 20日

창종준비위원 覺性외 10人 합장



불상,석탑,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절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호)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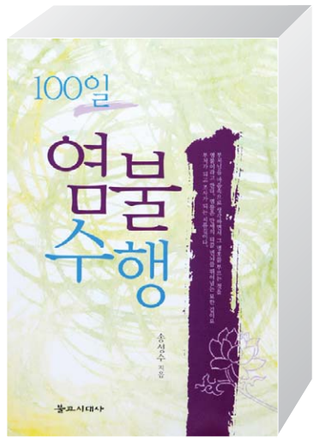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불서읽기 캠페인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염불 정진 100일이면 '참 맛' 본다

만세의 티끌 번뇌 뛰어넘는 미묘의 길이 염불

현실적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염불을 시작하는이 위해 만들어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그 명호를 부름이 염불이다. 염불은 만세의 티끌 번뇌를 뛰어넘는 묘한 길이요.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지름길이다.'

<100일 염불수행>은 '백 개의 글제(百題)'로 백일 염불 정진을 완성시키는 수행 안내서다. 염불과 사례를 순차적으로 간략히 정리해 이해하기 쉽고 신심을 북돋아 준다. 일일 일제씩 되풀이해 음미하다보면 염불수행이 저절로 몸에 동화되고 지식을 넘어 건전한 정신으로 변화되는 길을 모색한다. 불교에서 '염불'하면 알아야 할 핵심을 총 망라한 기초 지식서로 손색이 없다.

참선과 염불을 시작으로 잡념을 제거한 대 원력은 극락왕생을 서원한다. 저자는 대행(大行) 화상이 전하는 염불 공덕 열 가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부처님 가피를 입는다 ·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행하기 쉽다 · 공덕이 가장 많다 · 자타가 지극히 기뻐한다 · 부처님을 빨리 친견할 수 있다 · 반드시 불퇴전의 지위를 얻는다 ·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 다시는 부처님과 헤어지지 않는다 · 수명이 길어진다 · 성인과 더불어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100일 염불수행

송성수 지음|불교시대사 펴냄 | 1만5000원

<100일 염불수행>의 저자 송성수씨는 조계종 역경위원으로 30여 년 간 역경사업에 종사해 온 학자이다. <대지도론><유가사지론> 등 다수의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다. 스스로를 부서진 수레(破車不行 老人不修)에 비유해 현실적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수행자 중에는 정토교에 대해 잘 아는 이도 있겠지만 나와 같이 잘 모르고 무관심했다가 처음 염불을 시작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며 "경전이나 논에서의 말씀과 정토를 찬탄한 스님들의 말씀, 정토 수행인들의 왕생 영험담을 다시 보고 들음으로써 성불을 기원한다"고 저술 동기를 밝힌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불교학 전공자 위한 연구서



불교사상사

양휘이난 지음 | 원필성 옮김

정우서적 펴냄 | 1만5000원

"나는 약 100년 동안 불교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불교학의 몰락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교가 지식인들에게 미신으로 보여 더 이상 중시되지 않는 것도 불교학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 양휘이난(前 대만대학교 철학과 교수)은 인도불교에서 중국불교에 이르는 사상적 흐름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아우른다. 중국문화대학과 대만대학교 철학과에서 수년간 개론강의를 통해 축적한 핵심내용을 간추린 불교학 전공자를 위한 사상 연구서다.

<불교사상사>는 당시 인도의 사상계와 중국의 종파불교를 배경으로 평면적 개론 설명과 횡적인 역사 설명을 교차하는 서술구조로 전개된다. 사전적 의미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면서 수행과 교학의 조화를 모색한다. 곳곳에 배어있는 저자의 안타까움 이상의 연민은 부처님의 신격화와 불교의 신비화, 제왕과 귀족세력에 의지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는 역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불교를 표면화한다.

불교가 인도에서 쇠퇴해 중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은 불교사의 중요한 획이다. 북방 불교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 정착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인도불교의 중국화는 보편성과 자기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사상사의 흐름은 근본불교의 실용주의와 분열 · 부파 분화와 대승불교 문헌의 집대성으로 세밀하게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에 전래된 불교가 당시 중국 지성계의 반응과 어울려 종파를 형성하는 등 시간의 차제를 문헌에 근거해 서술한다.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한 본래 뜻을 탐구하고자 하는 저자는 주관적인 견해를 경계하며 개념의 다양성을 넘나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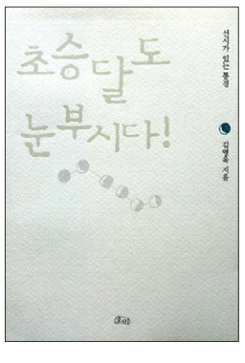
가연숙 기자

수행자의 면모 소설로

초승달도 눈부시다! 김영옥 지음 | 호미 펴냄 | 1만원

선시(禪詩)와 선화(禪話)가 만나 마음을 울린다.

<초승달도 눈부시다!>는 정진 중인 아홉 수행자를 진솔하게 심지 깊은 붓끝으로 써내려간 선(禪)수행의 향기를 머금은 소설이다. 바람 끝 한 점 들이지 않은 채 고요한 산중에서 만월을 향해 벼리고 든 초승달의 칼날을 눈부시게 담았다.



<초승달도 눈부시다!>는 저마다 처한 곳에서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수행자의 면모를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조사들의 경지를 가늠하는 선시와 어울려 실상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지은이의 문학적 감성으로 치밀한 감흥을 전한다.

가연숙 기자

인생의 '진짜 가치'는?

선계에 가고 싶다1·2 문화영 지음|수선재 펴냄 | 1만2000원

인생의 성공은 본성과 마주하는 것이다.

저자는 비로소 나를 만났을 때의 감흥을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되지 않는다. 그저 울고 또 울었다"고 고백한다. <선계에 가고 싶다>는 인생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풀어주는 '인생 지침서'이다.



내 안의 세계인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한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보장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저자가 우연히 시작한 '호흡과 명상'은 사회적 명성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의 숭고한 가치를 일러준다.

가연숙 기자

'불경' 어렵지 않아요

처음 만나는 불경 이야기 김장호 지음|심포지움 펴냄 | 9800원

팔만 사천의 무수한 불경에서 아름다운 별무리를 볼 수 있다면?

<처음 만나는 불경 이야기>는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는 길라잡이 서적이다. 설화를 바탕으로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한 교양과 상식으로 불경의 진수만을 엄선했다.



저자는 '아지랑이는 멀리서 보면 실재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없구나. 인간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일어났다 잠재워지듯 결국 실체란 없구나' 읊조린다. 무더운 여름 날 길 위의 아지랑이에서 피어나는 물거품과 같은 무상의 진리를 본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3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4	신심	혜인	클리어마인드
5	원력	혜인	클리어마인드
6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7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8	진언 다라니 수행 입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9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10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모 불교문화원 범음범패·불화·단청 신입생 집

제방의 사암에서 수행정진과 전법도생에 여념이 없으신 출가 수행승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의 법체청안 하옵기를 축수기원 합니다.
금번 본 불교문화원에서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 의식과 48호인 불화, 단청 부문의 강좌를 개설하여 뜻있는 스님들과 재가 불자여러분들을 모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범음범패과≫ 1년과정 (4학기제)
- 초급반 : 사물, 도량석, 조석예불및 종성, 각종불공
- 중급반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공 통
소 리 : 종성, 거불, 복청게, 천수태징타법, 도량게, 헌좌게, 가영, 향수나열
바 라 : 요잡, 천수바라, 사다라니, 화의재바라
나비춤 : 도량게, 다게

- 개강일시 :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매주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수업)
- 수 업 료 : 입학금 10만원, 매학기(3개월) 30만원
- 특 전 : 매년 1~2차례 봉원사 영산재 보유자 초청특강, 장학생 수업료 면제, 수료후 각종 행사 지원알선
- 강 사 : 준범스님(봉원사 옥천범음대 출신)

≪불화,단청과≫
- 초 급 반 : 불교기초이론, 시왕초 등선긋기, 뎃생실기, 문양그리기, 채색법
- 중 급 반 : 시왕, 여래, 보살, 사천왕 그리기 완성
- 고 급 반 : 각종 소품 및 탱화제작
- 연 구 반 : 단청문양, 불상개금, 달마도연구
- 개강일시 : 연중 수시모집
- 수 업 료 : 입학금 5만원, 매월 5만원
- 특 전 : 신심돈독한 성적우수자는 전문가로 양성.
- 강 사 : 영범스님(30년 경력의 불화작가)
- 다음카페 : '불화교실' 운영

한국불교태고종대구교구 종무원 부설 불교문화원
문의처 053)622-3702 / H·P 011-814-0648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고무신코 만 행 화
2008년 9월 5일 ~8일까지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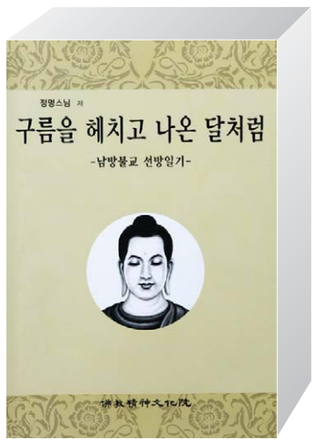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열반에 이르는 빠른 길이 보이십니까?

파아옥 명상센터 13개월의 수행일기
수행관련 용어와 정보 해설 따로 정리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정명 스님 지음 | 불교정신문화원 펴냄 | 1만2000원



#일어나라 잠을 깨라(4월 9일 맑음)

어제 야간 명상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자리에 앉아 망상만 피우다가 잠이 들었다. 오늘은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목욕까지 하고 자리에 앉았으나 혼침에 빠졌다. 5시 경에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가 아침 공양을 알리는 목탁소리에 깼다. 부끄러운 마음과 죄의식이 함께 밀려온다.

#개미(4월 30일 오전 7시 10분 27도)

오늘 아침 꾸띠에서 공양을 하던 중에 개미가 먹이를 입에 물고 냄비 위의 모서리를 다라 끝없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수저를 놓고 가만히 바라보니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눈 반대쪽으로 왔던 길을 계속해서 돌고 돈다. 이것이 윤회구나.(중략) 손만 놓으면 땅이고 먹이만 놓으면 길인데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과 같다. 움켜쥔 손을 놓아라. 주먹을 펴라. 파아옥 명상센터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며 메시지지 싶다. 사두! 사두! 사두!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다시 경영학에 관심을 두고 인사조직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엘리트. 대기업에서 인사팀장과 연수팀장으로 '사회물'을 먹던 그가 돌연 출가를 했다. 그리고 미얀마의 파아옥 명상센터로 들어갔다. 출가 후 '정명 스님'으로 살면서 나태해지는 마음에 겹쳐지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떨쳐 버리기 위해 찾은 길이었다.

상좌부 불교 전통을 가장 잘 잇고 있으며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파아옥 명상센터. 명상 홀 뒤편에 실제 해골을 내놓은 곳으로도 이름이 나 있는 파아옥 명상센터에서의 '마음 알아차리기' '마음 챙기기' 수행일기는 단순한 일기에 머물지 않는다. 스님의 수행체험 고백에 미얀마의 수행 환경, 남방불교의 이념과 수행전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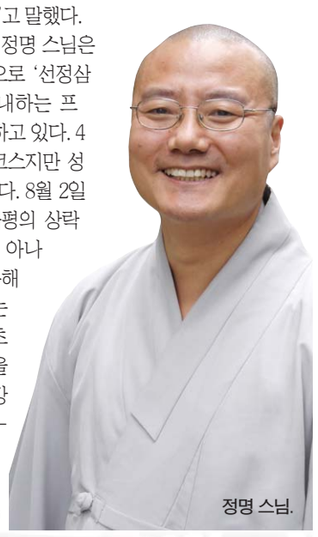
몸의 궁극적 실재인 루빠(色 물질)와 마음의 궁극적 실재인 나마(정신, 마음과 마음부수)를 알아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다. 그러나 정명 스님은 서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는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갔다. 대중들과 함께 포살을 하고 스승에게 점검을 받고 혼자 꾸띠(개인 수행 오두막)에서 정진하는 동안의 기록은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에 명상과 위빠사나 수행 관련 책이 소개되기 시작한 역사는 10년을 넘지 않는다. 그 가운데 <청정도론>을 기조로 하는 수행 매뉴얼은 그다지 소개되지 않았다. 정명 스님이 수행한 파아옥 명상센터는 모든 수행의 근거를 아비담마(논장)와 빨리어 경전에 두고 있다. 따라서 정명 스님의 수행체험은 남방불교 수행의 핵심에 닿아 있고 그만큼 체험의 기록은 생생하다.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챙기는 명상법, 즉 아나파나 사띠의 궁극도 열반이다. 번뇌로부터의 벗어남이라는 목적은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 정명 스님은 "도덕적인 삶, 계율에 충실한 삶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도덕적인 삶은 즐거운 마음을 가능하게 해 주고 즐겁고 기쁜 마음은 마음을 쉬게 해주며 마음이 쉬면 행복감이 충만해진다. 충만한 행복감이 선정의 힘이 된다. 스님은 "선정을 얻을 수 있다면 마음의 집중력이 커져서 몸과 마음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로 인한 통찰적인 지혜를 얻어서 참다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요약한다.

여래선 조사선 간화선으로 전해져 온 북방불교에서의 수행 전통과 남방불교의 수행법에 대한 오해 내지는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열반의 증득이라는 궁극은 같지만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수행방법의 이질감은 크다. 한국불교에서는 간화선 수행자들이 위빠사나 수행에 대해 '낮은 단계의 수행'이라고 단언하는 경우까지 있는 상황이다.

정명 스님은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라는 구별이 있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남과 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수행의 궁극을 바로 알면 방법의 차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명 스님.

책을 낸 이후 정명 스님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선정삼매 여행'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박5일의 단기 코스지만 성취도는 매우 높다. 8월 2일부터 경기도 가평의 상락향 수도원에서 아나파나 사띠를 통해 색계선정에 드는 수행을 하고 초기불교 가르침을 강의한다. 금강선원 (02)969-4981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파아옥 명상센터 수행자들의 명상 모습.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2>

다생의 업장 소멸시키는 공덕 찾자

시절과 인연 맞춰 쓰임새 발휘하는 실과 끈에 비유
용천, 사막에서 솟구치는 샘물과 같이 귀하게 표현

경(經)이란, 범어(梵語)로는 수다라(修多羅=Sutra)니, 번역(飜譯)하면 경(經), 선(線), 용천(湧泉) 등이 된다. 그 中에서 경이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천[絹]의 씨줄, 또는 초목, 혈관, 사물의 줄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경전(經典)이 그와 같이 요긴하시다는 것이다.

그토록 깊고도 묘(妙)한 진리(眞理)의 말씀이 어느 한 시기(時期)나 지역(地域)이나 계층(階層)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연 있는 중생들의 근기(根機)에 꼭 맞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꼭 맞는 시절과 인연 맞춰 쓰임새 발휘하라' 등의 명령을 간직[貫穿]하고 있으면서, 소화중생(所化衆生)인 행인(行人)들로 하여금 자기의 명령을 잘 지키면 분명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주의[攝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경의 기능을 관천(貫穿)과 섭지(攝持), 두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시에 극명하게 표현하기로는 경보다는 선이 더 우월한 것 같으나 불교수입 이전부터 중국에서 성현들의 말씀을 경이라 했던 인습(因習)에 따라 경이라 했다.

다음, 용천(湧泉)이란, 글자 그대로 솟다는 뜻의 계(契)를 추가(追加)하여 계경(契經)이라고도 한다.

다음 선(線)이란, 실[絲] 또는 끈을 말하는데 끈이란 주로 어떤 물건을 흐트러지지 않게 묶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손실(損失) 없이 뽑아 쓰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일정(一定)한 기능을 간직하고 있다가 시절(時節)과 인연(因緣)이 맞으면, 똑 떨어지게 그 역할을 해 낸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고인(古人)들은 이러한 법칙(法則)을 설명할 때에, 관천소응설의(貫穿所應說義)라 했으니, 일정량(一定量)의 진리를 흘어지지 않게 잘 꿰어서 간직했다는 뜻이요, 섭지소화중생(攝持所化衆生)이라 하였으니, 그 진리에 알맞는 중생이 흘어지지 않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하였다.

비근한 예로, 거리의 신호등을 들어 설명한다면 역시 일정량의 소응설의(所應說義)인 '멈추라' '진행하라' '회전구치는 샘물인데 날씨가 덥고 물이 귀한 남방에서, 물 그것도 끝없는 사막길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다면 그 기쁨이 어떻겠는가. 더구나 퍼내고 또 퍼내도 마르지 않는 용천이라면 얼마나 반갑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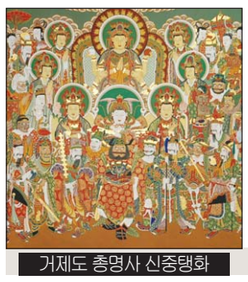
경전이 그와 같이 소중하고 고맙다는 이야기이어서 나도 어렴풋이 가끔 소중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토록 찡하게 고맙다고 생각해 본 기억은 80평생 한 번도 없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경전이 우리에게 고맙다는 이유는 우리의 다생(多生)업장(業障)을 단박에 소멸(消滅)시켜 주시기 때문인데, 경전의 공덕이 우리에게서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경전의 말씀대로 달라져 주어야 하는데 거기서 찾지 않고 딴 데서 찾으려니, 기다귀조진미소(幾多歸鳥盡迷巢), 즉 제 집을 못 찾는 나그네 얼마이던가.

〈계속〉

봉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미국현지영어연수안내
미국 현지에서 영어연수를 희망하시는 불제자께서는 미국 전문 영어연수 학원인 "Spider smart"(미국전역 9개학원개설)의 Sugar Land, Texas 소재 "Learning Center" 학원장으로 있는 불자 김영주(미국 MIT,MBA석사)에게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현지 영어연수에 유익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락 처
◆ TEL : 1-281-491-8896, 1-281-253-2798
H.P : 1-832-264-1045
E-mail : Spidersmartyk@yahoo.com
참고사항
위 학원에서 배포한 Teaching Success Cat, Spidersmart year round program, How to teach at Spidersmart, 등 자료를 원하시는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019-367-4307, 019-322-4308

관세음보살 순금(22K) 목걸이 메달
대자대비의 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등록 출연 중)
자비구세 정신의 핵심으로, 천 가지 지혜 눈으로 중생계를 살피고 천 가지 구원의 손길을 펴서 고해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의 유일한 진신 관세음보살님... 그 위신력과 가호를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성취, 신수대길, 재수대통, 복덕구족, 만사형통, 승진, 합격, 안전, 성취발원, 삼재팔난 관재구설 병고액난 일시소멸




확대[앞]


확대[뒤]


순금재수부적

※ 메달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질 : 순금 22K, 케이스 : 케노픽(항공기 유리소재) / 크기 : 가로 2cm × 세로 3cm
· 메달을 구입하시는 모든 불자님들께 '순금재수부적'을 드립니다.
사찰 불사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스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10-7208-3777. 010-2869-577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100번지 각원사 혜일 합장
농협 231080-52-220201 이규상

번뇌 소멸…마음 평온

오늘의 禪語

㉙ 날마다 좋은 날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란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항상 즐거운 날'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날마다 좋은 날'이 얼마나 될까? 날마다는 고사하고 이따금씩 좋은 날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다고 징징 짜는 날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을까?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라는 말은 선어록의 백미 <벽암록>에 등장하는 화두로 중국의 선승 운문(雲門, 864-949) 선사의 말씀입니다. 선어(禪語)도 언어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설사 해석한다고 해도 그것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우선 한문에서 똑같은 글자가 겹치면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일일(日日)'은 '날마다'이고 '호일(好日)'은 '좋은 날' '길일(吉日)' 또는 '생일(生日)'을 가리키고 '시(是)'는 '바로 ○○이다'라는 뜻입니다. 생일날은 왠지 기분이 좋고 잘 먹는 날이므로 '날마다 생일'이라고 해도 되고 '날마다 즐거운 날'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선에서 말하는 '날마다 좋은 날'이란 사실 생일도 길일도 운수가 좋은 날도 아닙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란 바로 번뇌 망상과 이별한 날, 근심 걱정 등 번민이 없는 날, 또는 마음이 평온하고 활기찬 날을 가리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려면 근심과 걱정 등 번뇌가 없어야 합니다. 번뇌가 있으면 그날은 괴로운 날입니다. 이런 날이 겹치면 '날마다 좋은 날'은 간데없고 '우울한 날'이 연속됩니다. 만사가 싫어지고 삶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좋은 날을 맞이하자면 마음이 평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일 즐거움이라는 것이 무언가 운수나 재수 등 일진(日辰)에 좌우되고, 주식 값이 올라야 하고, 옆에 함께 놀아 줄 친구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타자에 의지한 즐거움입니다. 주체적인 행복, 주체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날마다 좋은 날과 관련된 선문답입니다.

선원에서 보름날은 정기설법을 하는 날입니다. 보름날 운문 선사는 대중들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대들에게 15일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5일 이후의 일에 대하여 한 마디씩 해 보라."

그러고는 정작 대중들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 하고는 조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15일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지만 15일 이후의 일에 대하여 한 마디씩 말해 보라'는 이 단락은 말하자면 문제를 제기하는 제시어(지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은 답어입니다. 말하자면 운문 선사는 스스로 문제를 제시한 다음 답까지 한 것입니다. 혼자 차(車)와 포(包)를 다 친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한 대로 근심이나 걱정 등 번뇌 망상이 없는 마음 상태, 무집착, 공(空)의 상태, 깨달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5일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지만 15일 이후의 일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해 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근심·걱정 등 번뇌 없는 깨달음 상태
무차별·부분별, 중도·공 입장이어야

이 선문답을 푸는 키포인트는 바로 15일 이전과 15일 이후에 있습니다. 옛 중국의 선원에서 조실스님의 법어는 한 달에 여섯 번(1 · 5 · 10 · 15 · 20 · 25일) 있었습니다. 운문 선사가 이 법어를 한 날은 마침 보름(15일) 날이었습니다. 15일은 한 달의 딱 절반입니다. 한 달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둘로 나누는 것은 이분법입니다. 그것은 차별이고 분별심이며 집착이고 중생심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무차별 · 무분별이어야 하고, 중도 · 공(空)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로 나눈다면 중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덧붙인다면 15일 이전은 과거입니다. 과거사를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15일 이후 즉 미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향후의 삶, 비록 이것은 수행자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행자로서 향후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한 마디씩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나날을 보내자면 먼저 번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번뇌에 휘둘리지 않자면 감정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자면 모든 것을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둘로 나누면 어느 한쪽에 경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문 선사가 말한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란 사실 제자들에게 내 민 함정, 트릭입니다. 그냥 '일일시호일'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15일 이전과 이후를 나눈 것은 사실 차별심이라는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드는 자는 아직 애송이입니다. 걸려들지 않고 답하는 자는 고수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밝고 밝게 보니 한 물건도 없습니다"

㉙ 묘총 비구니

철 들면서부터 '생은 어디서 오나' 의심
대혜 선사 인가받고 입실제자된 비구니

간화선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한 송나라 때의 대혜종고(1088~1163) 선사의 법을 이은 제자는 육왕준박, 개선도겸, 설봉온문 등 무려 110인을 넘는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는 재가자와 비구니 스님들이 적지 않았다. <인천보감>에는 대혜 선사의 걸출한 비구니 제자인 묘총(妙總) 스님에 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제종 대혜파인 자수사(資困寺) 묘총 선사는 소씨(蘇氏)이며 원우(元祐: 1086~1093)년 간에 승상을 지낸 고위관료의 손녀다. 열다섯 살 때 선(禪)이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으나, 철이 들면서 '생(生)은 어디서 오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유독 의심을 냈다. 그 생각만 하다가 홀연히 느낀 바 있었으나 스스로 별것 아니라 여기고, 사람이면 다 그런 줄 알고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부모의 명을 받들어 서서(西徐)의 허수원(許困源)에게 시집갔는데, 얼마 안 돼서 세상살이가 매우 싫어졌다. 계를 지키고 몸가짐을 깨끗이 함으로써 자족했으며, 세속에서 벗어나 노닐고자 하였다. 뜻을 세워 옛 사람을 흠모하다가 마침내 천엄사의 원(圓) 선사를 찾아뵈니, 원 선사가 물었다.

"규중의 숙녀가 어떻게 대장부의 일에 끼겠는가?"

"불법에서 남녀 등의 모습을 나눕니까?"

원 선사가 다시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 '마음이 부처'라고 하였는데,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오래 전부터 스님의 이름을 들어왔는데, 겨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덕산 스님의 문하에 들어간다면 몽둥이를 맞겠구나."

"스님께서 만일 그러한 법령을 시행한다면 인천(人天)의 공양을 헛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에 묘총이 손으로 향로 탁자를 한번 때리니, 원선사가 "향로 탁자가 있으니 마음대로 치라만, 없었으면 어찌하였겠나?" 하고 물었다.

묘총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원 선사가 부르면서 말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이러는가?"

"밝고 밝게 보니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영가(永嘉玄覺) 스님의 말이다."

"남의 말을 빌어서 내 기분을 나타낸들 무엇이 안 될 것이 있습니까?"

"진짜 사자새끼로구나."

묘총은 강절(江浙) 지방의 큰스님들을 거의 다 찾아뵈었지만, 오직 묘희(妙喜: 대혜 선사의 아호) 선사를 만나뵙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때 마침 묘희 선사가 풍제천(馮濟川)과 함께 배를 몰고 가화성에 도착하니, 묘총이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이튿날 묘총의 남편 허수원이 묘희 선사에게 설법을 청하니, 선사가 대중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이 가운데는 어떤 경계를 본 사람이 있다. 이 산승은 사람을 간파할 때 마치 관문을 맡아보는 관리와 같아서 누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세금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알아차린다."

그리고는 법좌에서 내려오자 묘총이 마침내 법호를 지어달라고 하여 묘희 선사는 '무착(無著)'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다음 해에 묘총은 경산총림(徑山叢林)에서 하안거를 보냈는데, 하루 저녁은 좌선을 하다가 홀연히 깨닫고 게송을 지었다.

"갑자기 본래면목에 부딪히니/ 온갖 재주가 얼음녹듯, 기와장 무너지듯 했네/ 달마는 하필 서쪽에서 와가지고/ 2조의 헛된 삼배를 받았는가/ 여기에 이걸까 저걸까 물어본다면/ 좀도둑 한떼거리가 대패했다 하리라."

묘희 선사가 이 게송을 보고 "그대는 이미 산 조사의 뜻을 깨달았으니 단칼에 두쪽내듯 당장에 알아버렸다"며 인가하고, 묘총을 입실(入室) 제자로 받아들였다.

묘총 선사는 '생(生)은 어디서 오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하는 큰 의심이 저절로 화두가 되어 생사의 일대사를 해결하고 자유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 **제18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행자 모집**=평창 월정사가 제18기 단기출가학교 행자 모집에 나섰다. 신청은 8월 20일 마감으로 단기출가학교는 9월 17일 시작해 10월 16일 끝난다. 한국 불교사에서 처음으로 삭발염의를 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행자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 동참해보는 것을 어떨까.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a.org/buddhism/06/year_train.html)에서 신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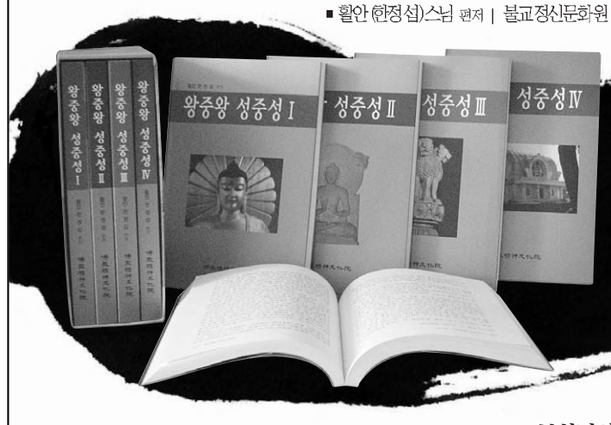
●**육지장사 단식수련회와 매너스피치캠프**=남양주 육지장사가 '성인을 위한 명상 단식수련회'와 '제2회 영리더를 위한 매너 · 스피치캠프 어린이수련회'를 개최한다. 단식수련회는 7월 24~27일, 31일~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동참금은 10만원. 발성 · 발음 · 스피치 · 리더십 · 상황별 매너 · 예절교육이 병행되는 어린이수련회는 7월 27~29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동참금은 3만원. (031)871-0101

●**조계사 방생법회 및 철야100일기도**=서울 조계사가 8월 16일 '불기2552년 하안거회향 영가천도 조류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연천 원심원사에서 봉행될 조류방생법회는 한국조류보호협회와 함께 진행된다. 동참금은 2만5000원. 한편 7월 19일 입재한 제5차 철야100일기도 천수다리니독송 법회는 10월 26일까지 매일 저녁 8시~익일 새벽 4시 철야기도로 이어진다. (02)732-2187

●**여래사 수능입시 백일기도**=일산 여래사가 '수능 입시 100일 기도'를 8월 5일 입재한다. 11월 12일 회향까지 100일간 수능 입시를 보는 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진행된다. (031)905-7766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부처님은 왕 가운데 왕이시고, 성현 가운데 성현이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

■ 활안 스님
'왕중왕 성중성'
王中王 聖中聖
'세계는 한 꽃이요, 만민은 동체(同體)라는 일념(一念)'으로 부처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긴 대장경을 50년간 탐독해온 활안스님 정진의 결실로, 부처님의 일생을 經과 律로써 모든 것을 풀어낸 역작....
■ 활안 (한정섭)스님 편저 | 불교정신문화원 | 전 4권 4만 8천원


불교 교리발전의 근거가 된 부처님의 말씀과 일대기를 체계 있게 총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불교의 이치를 밝게 볼 수 있습니다. 바른길을 걸으신 부처님의 행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정신문화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사)한국불교금강선원
구입문의 : 02)969-2410
부처님의 일생에 관련된 사진 자료, 여러 경전의 말씀, 승단의 계율 등 부처님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도서출판 수선재 WWW.SOOSUNJAE.ORG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수선재 엮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수선재 엮음 / 356쪽 / 값 12,000원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내 가족 잘 보살피는 것도 보살행이에요”



선지식을 찾아서 정무

정무 스님(안성 석남사 회주·조계종 원로 의원)

1958년 전북대 수의학과 졸업. 은적사에서 전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1963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스님 문하에서 대교과 수료. 그 후 제방 선원을 돌면서 수행정진. 수원 용주사, 신륵사 주지, 영월암 주지역임. 2007년 조계종 포교 대상 수상. 지금은 안성 석남사에 주석.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감사할 일만 생겨”

“잘 살아서 잘 죽어야…베푸는 삶이 최고”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지는 습관 들여야”

상촌마을 마둔저수지를 돌아 서운산 계곡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도 절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 조바심을 치며 좀더 올라가자, 이런 마음을 진즉에 알고 있었다는 듯 주홍색 나리꽃이 호랑나비 앞세우고 버선발로 마중 나와 있다. 나리꽃은 객의 마음만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단출한 산사를 화려한 빛으로 보듬고 있다.

신라 문무왕 때 창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석남사는 천년이 넘은 고찰이다. 정무스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찰의 모양새가 추레했지만 지금은 금광루, 대웅전, 영산전, 요사채를 갖추고 있어 소박하지만 사격이 느껴진다.

정무 스님은 팔십이라는 연세가 무색할 만큼 허리는 꼿꼿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으며,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지 여쭈었더니 “비법은 무슨 비법, 그냥 소식하고 규칙적인 생활 하고 항상 밝은 생각으로 사는 거지.”라고 답하신다.

정무 스님은 전강 스님이 돌아가실 때 까지 약 20여 년간 모셨다. “요즈음 자신에게 그렇게 철저한 선지식은 없다”면서 아쉬워하였다. 전강스님 문하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수좌를 대표할 만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인가받겠다고 전강스님을 쫓아다니는 이가 있었어. 그런데 전강스님은 이 사람 ‘상’을 없애려고 더운 여름날 점심공양하고서는 꼭 1시간씩 밭에서 일하게 했고, 시간에 1분이라도 늦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지. 한 사람 때문에 대중들이 공부 참 힘들게 했지. 그 사람 결국 인가를 못받았어.”

열반하신 경봉 스님도 전강 스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하루는 전강 스님께서 마당에 원을 하나 그려놓고 경봉 스님에게 “원 안에 들어가도 두드려 맞고 안 들어가도 맞는다. 어떻게 하겠는가?”하고 물었다. 그러자 경봉 스님은 고무신을 벗어서 원을 싹싹 지워버렸다. 전강 스님은 그때는 “어림도 없다.”면서 인가를 해 주지 않았지만, 후일에는 경봉스님의 공부가 무르익었음을 알고 인가를 해주었다.

“전강스님은 회향을 참으로 잘 하셨는데 열반에 드시는 그날도 점심 자시고 나서 넌지시 ‘오늘 가 봐야겠다.’고 일러놓고서는 저녁에 열반에 드셨어. 죽음에 초연하신 것이지.”

정무 스님은 “참선뿐만 아니라 철학, 신선도는 잘 죽기 위한 공부”라면서 죽음에 관해 말씀해 주셨다. 우리에게는 팔식이 있는데,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을 5식이라 한다. 생각으로 아는 것을 6식이라 하며, 7식인 말라식은 무의식의 세계이다. 그리고 8식은 알라야식 즉 불생불멸의 잠재의식인데 바로 부처님의 세계이다.

“부처님께서 육년간 지극정성으로 고행을 하다 보니 머리에 새가 집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이미 오식, 육식, 칠식을 투과해버렸어요. 그 후 유미죽을 먹고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팔식의 경지까지 간 겁니다. 불생불멸인 알라야식을 획득한 것이지. 부처님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생사를 완전히 해탈하신 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생사를 소화했고 미국인 스코트니어링은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처럼 되면야 좋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잘 살아서 잘 죽어야 해요.”

행복하게 살려면 평소 행복해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무 스님의 철학이다.

“사람들은 행복한 짓을 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해 지고 싶어 하고 복을 바라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여. 그런데 행복과 불행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사고(四苦)로 알고 있지만, 대승에서는 고통이 아닙니다. 사고는 무명(無明)에서 오는 것이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면 생(生)은 고통이 아닙니다. 곱게 물든 단풍잎은 꽃보다 더 예쁘다고 좋아들 하잖아요.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게 늙어야 합니다. 잘못 늙으니까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또 병은 평소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건강할 때 과식, 과욕, 게으름 등을 키워서 병날 일을 하더라는 것이지. 죽음이 왜 괴로운가? 잘못 살았으니 죽음이 두렵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다들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죽으면 별 거 있는가? 보살이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아, 이제 편안하게 쉬겠습니다.’ 하고 죽음에 대해 달관해야 되요.”

스님은 자연주의자이자 작가였던 미국의 스코트니어링처럼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고 한다.

스코트니어링은 죽음은 ‘광대한 경험의 영역’이라 생각했기에 죽음 앞에서 회한에 젖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어떤 의사도 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유언을 하였다.

요즈음 신문이나 방송에서 노후 준비 자금으로 십억이 필요하다고 떠드는데 돈만으로 노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다. 노후준비를 한다고 현실생활을 망각하는데 무료요양원에 가보면 노인들이 “돈도 건강도 문제가 아니다. 외로워서 죽겠다”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단다.



“노인의 세 가지 고통을 돈고(돈 없는 고통), 병고(病苦), 독고(獨苦)라고 하잖아요. 다른 것은 제쳐두고 독고는 평소에 베풀지 않아서 생긴 고통입니다. 주변 사람도 돌아보면서 살아야지. 근본자리에서 보면 남을 돕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보살행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요즈음은 큰 보살행이란다. 연로한 부모를 무료요양원에 갖다버리는 시대이니 부모를 잘 모시는 것도 보살행이요, 우리나라 주부 알코올 중독자가 55만명이나 되는 세상이다 보니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도 보살행이 되는 것이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식 소용없다는 말과 돈이 효도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미운 짓을 하면 더 나쁜 짓을 안 하니 감사하다 여기고 공부를 못하면 건강하게 잘 살아주니 감사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르면 감사할 일만 생깁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행복은 행복을 부르는 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정무 스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 맞는 법문을 들려주기에 스님과 마주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진리에 맞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게 된다. 스님은

어찌 그리 재가신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부처님처럼 낱낱이 잘 알고 현실에 합당한 치료법을 제시하느냐고 여쭈었더니 “내가 그래서 가끔은 오해를 받아.”라는 말씀과 함께 환하게 웃으신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자신이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음을 스님은 일깨워 주셨다. 자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모든 것들–매미소리, 물소리, 나리꽃, 나비– 도 자신이 취사선택한 것임을 알았으니, 마음속에 고운 것 맑은 것만 들여놓아야 겠다.

문윤정(수필가 본지논설위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48 우무 채무침

우무는 바다에서 나는 우뭇가사리 해초를 삶아 그 물을 쟁반에 담아 굳힌 바다의 묵이다. 여름 별미와 다이어트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듯 싶다.

우무음식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발달해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다. 섬유질 덩어리인 우무는 100g에 89kcal의 열량을 내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식사 전 조금만 먹어도 음식분해와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도움을 준다. 실컷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찌고 장청소를 말끔히 해주기 때문에 대변양도 늘리는 효과를 본다.

다이어트·체내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

무더운 여름 콩국에 띄워 먹으면 별미

우뭇가사리는 홍조식물문(紅藻植物門) 우뭇가사리과 우뭇가사리속에 속하는 다년생 바닷말이다. 실처럼 생긴 헛뿌리로 바위 위에 달라붙어 자란다. 몸은 납작하고 가늘며 4~5차례 깃털처럼 분기한다. 가지는 어긋나거나 마주난다. 자라는 환경에 따라 몸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난다. 물이 잘 흐르고 파도 치는 바위 위에 군락을 이루며 자란다. 겨울철 포자가 발아해 서서히 자라다가 봄~초여름 동안 성장 속도가 빠르다. 한국에는 11종이 자라며 우무를 가공해 말린 것은 한천으로 불린다. 우무는 엉키는 힘이 있어 양갱 등 과자 재료로도 쓰인다.

무더운 여름철 사랑받는 우무를 콩국에 띄워 후루룩 마시면 한 여름 무더위가 싹 가신다. 우무가사리를 깨끗이 큰 냄비에 담고 물을 적당하게 부은 후 중불에 맞추면 넘치지 않고 우무를 익힐 수 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더 약하게 한다. 익히다 소쿠리에 받쳐 식히면 묵처럼 굳는다. 칼로 적당히 잘라 물에 담그고, 먹을 때 어레미에 꾹 눌러주면 우무 면발이 얻어진다. 우무를 칼로 채썰어 오이채와 함께 밥에 비벼먹어도 별미다. 산촌 (02)735-0312



우무채 무침

재료 : 우무, 청 · 홍고추, 깨소금, 참기름, 간장, 오이.

만드는 법

① 우무는 곱게 채치거나 우무모를 어레미에 걸러 내린다.
② 청 · 홍고추는 반으로 갈라 고추씨를 빼고 곱게 채친다.
③ 오이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대강 벗기고 납작하게 자른 후 다시 가늘게 자른다.
④ 우무와 청 · 홍고추, 깨소금을 넣고 간장으로 대강 버무려 간을 맞춘다.
⑤ 참기름을 한 두 방울 넣고 그릇에 담는다.



금강선원 초중 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❷

뽕나무 자리에 풍성한 땅의 기운이…

금강선원 터는 합천 이씨 문중터로 수천 평 뽕밭과 잠실이었다. 뒷산 이름부터 유잠산이니 예부터 이곳은 양잠으로 유명했던 듯하다. 그 아래 자리 잡은 절터는 좌우 500m 거리에 작은 마을이 도랑을 감싸듯 위치해 있고, 바로 맞은편에 유잠호가 푸른 거울처럼 비치고 있다. 유잠산 정기가 복주머니 형국을 갖춘 지세를 따라 도랑으로 몰려드는 모양새다. 그래서일까? 금강선원의 토질은 더운 지기가 나오는 부토다.

처음 이곳에 수행할 토굴을 만들려 했을 때 뽕잎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여름에 뽕나무 숲에 모기가 들끓는다는 이유로 뽕나무를 캐내기도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당시에는 많은 뽕나무가 골칫거리였음은 분명했다.

그렇게 캐낸 뽕나무 자리에서 붉은 토질의 황토가 나타났다. 나무를 캐낸 자리에서 하얀 김이 날 정도로 땅 기운이 풍성해 일하던 주위 사람들도 놀랄 정도였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기운에 처음으로 땅의 기운을 느꼈다. 뽕나무를 꼽고 난 자리에 고구마를 심으며 나는 고구마 스님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합천은 고구마로 유명하다. 토질이 고구마심기에 그만이다. 뽕나무를 캐고 남은 자리에 고구마를 심었다. 좋은 땅을 버려둘 수도 없고,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이 거하게 무엇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구마는 키우기 쉽고 황토의 토질에 맞춤인 식물이었다.

더구나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 10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는 결제 기간 아닌가? 해제 기간 중 따로 무엇인가 하기에는 고구마만한 것이 없었다. 5월에 심고 10월에 수확하는 고구마는 하안거 전 심어 동안거 전 캐면 되기 때문이다.



수확한 고구마는 부처님께 올리고, 신도와 도반 스님들에게 나눠줬다. "고구마 스님, 고구마 주세요." 절을 찾은 아이가 고구마를 달라고 조른다.

넓은 땅에 심은 고구마가 너무 많아 고민이 생겼다. 결제 전 처리해야만 동안거 수행정진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해마다 도반이나 몇 분 신도님들에게 힘들게 부탁해 고구마 판로를 해결하다가 한 번은 안국선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었다. 연락이 없어 잊고 있었는데 극락암 선원에서 정진 중 안국선원 불광행 부회장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다. "스님 다음부터 고구마는 저희가 다 사겠습니다. 선원장스님께서 수행하시는 스님 공부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고구마를 저희 안국선원에서 모두 해결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암과 인연이 있던 불광행 부회장의 연락으로 남은 고구마를 모두 해마다 안국선원에서 가져가 주니 항상 고마운 마음이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가을이면 고구마 처리로 고민했을 것이다. (055)931-9590 <계속>



health 치아 건강 칼럼 column

소중한 이 치과 안은영 원장

36 신경치료

어금니는 신경치료 후 보철수복 치료 필수

몇 달 전부터 차가운 물을 마실 때나 양치질할 때 위쪽 어금니가 시렸던 K씨는 치과 가는 것을 미루다, 점심 식사 후 먹은 아이스크림이 불편했던 치아부위에 닿은 후로 계속 통증이 지속돼 치과를 찾았다. 치과에서 그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검사한 후에 충치가 많이 진행돼 신경치료 후 씌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충치의 치과용어는 치아우식증이다. 치아우식증은 치아 일부분이 입안에 상주하는 세균과 치아에 부착된 음식물과 반응해 산을 형성해 치아를 부식시켜 치아가 썩는 것이다. 치아는 법랑질, 상아질, 신경으로 구성돼 있다. 치아우식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도 다양하다.

법랑질은 치아 구조 중 가장 단단하다. 치아가 썩기 시작한 초기에는 작은 구멍이 생긴 후 법랑질 밑의 상아질에서는 급속히 확산된다. 치아우식증이 계속 진행돼 신경에 근접할 때 통증이 느껴진다.

치아는 썩은 정도에 따라 충치 부위만 제거 후 아말감이나 금으로 채워 넣으면 되지만, 충치가 신경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

신경치료란 치아의 썩은 부위를 제거하고 치아뿌리 끝까지의 신경관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건강하지 않은 신경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신경관을 청소하고 소독해 확장한 후 모양을 다듬는다. 그리고 깨끗이 소독된 신경관을 약제로 채우고 봉합한다.

신경조직의 염증 정도에 따라 치료 횟수가 결정되며, 염증이 심하면 신경치료 완료 후에도 한참을 관찰해 염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신경치료가 끝난 치아는 치아조직이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어금니의 경우는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신경치료를 받은 어금니는 필수적으로 보철수복 치료를 해야한다. 앞니 및 작은 어금니는 충치 및 신경조직 제거 후 잔존한 치아 상태에 따라 보철수복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저작력 등 외력에 의해 치아가 파절돼 최악의 경우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02)776-2882



충치가 심하여 치아의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다.



감염된 신경을 치료 후 약재로 채워넣은 모습.

[법보시 PR]

대중법문

거룩한 인연으로 정각을 이루어라.

〈열반경〉

제행(諸行)은 무상하다. 이것이 바로 생멸(生滅)의 법일지니 고로 생멸을 없애면 곧 적멸(寂滅)이 낙(樂)이 된다.

열반경 성행품(涅槃經聖行品)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수록 되어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지난 세상 살산(雪山)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의 일이다.

그때 재석천은 그 수행자를 보고 있다가 과연 그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지 시험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에게 다가갔다. 도저히 그가 무상(無上)의 깨달음을 얻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 엄한 계율은 잘 지키고 있지만 심지(深智)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재석천은 곧 나찰(나찰; 악귀의 통명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의 모습으로 변하여 수행자 앞에 와서 큰소리로 말했다.

"모든 행은 무상이다.이것은 생멸의 법이다".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뭘 듯이 기뻤다. 그것은 길 잃은 자가 길을 찾은 것 같고, 아픈 사람이 좋은 약과 의사를 만난것 같았던 것이다. 수행자는 이러한 말을 누가 했을까 하고 사방을 살펴 보았지만 이러한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만 있을 뿐이었다.

수행자는 나찰이 그만한 말을 했을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곧 나찰이 이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행자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나찰을 향해 물어보았다. " 과거, 현재, 미래의 정도(正道)의 반게(半偈)를 읊은 것은 당신입니까?"

수행자의 불음에 나찰이 곧 대답했다.

"나는 그런 것은 모르오. 단지 먹지 못한지가 며칠이 되기 때문에 헛소리가 나와 말했는지 모르오, 여기저기 먹을 것을 구했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찌껄였는지 모르오."

수행자는 나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찰에게 말했다.

"나머지 반계를 가르쳐 주시면 제자가 되겠습니다."

" 아니오, 나는 먹을 것을 원하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먹습니까.?"

"놀라지마시오. 내가 먹는 것은 사람의 고기와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따뜻한 피요."

"그러면 뒤의 계를 마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들은 다음 이 몸을 당신에게 공양하겠습니다. 어느때인가 내게도 명을 마칠때가 있어 이육신은 짐승들에게 뜯어 먹히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계를 듣고 무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겨우 몇마디의 말을 위해서 정말 그 몸을 내게 주겠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무지(無智)합니다.보잘것 없는 흙으로 만든 기와와 칠보로 만든 것을 맞바꾸는 것처럼 나도 썩어 없어지는 몸을 버려 불퇴전(不退轉)의 금강신(金剛身)을 얻고자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증인들이 있습니다.대범천왕(大梵天王), 제석천(帝釋天), 사천왕(四天王)은 반드시 증인으로 서 주실 것입니다. 또, 육바라밀을 수행한 보살들도 증인으로 서 주실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몇마디의 말을 위해 이 몸과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나찰은 나머지 게를 설해 주었다.

"생멸까지도 멸해 없어지는 적멸(寂滅)이 낙(樂)이 된다."

[生滅滅已 寂滅爲樂]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수행자는 이말을 듣고 원을 이루었으므로 크게 기뻐해 마지 않으면서 여러곳에 있는 나무, 돌, 벽, 길에 이 게를 써놓고 옷을 벗은 뒤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그러자 나무의 신이 수행자에게 물었다.

"이 게를 듣는 것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수행자는 나무의 신의 물음에 기쁨이 넘친 얼굴로 대답했다.

"이 게야 말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정도입니다. 나는 이 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뿐이지 결코 명문, 이양을 위해서가 아니며, 전륜성왕, 대범천왕, 법천왕, 사대천왕, 제석천, 인천,이 누리는 즐거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할 뿐입니다."

수행자는 이말을 나무신에게 말한 뒤 곧 나무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러자,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나찰은 제석천의 모습으로 돌아와 수행자의 몸을 받아 땅에 내려 놓으며 말했다.

"거룩하시옵니다. 참으로 보살입니다.크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이 무명의 어둠을 진실의 등불로 비치는 분입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의심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반드시 무상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나를 구해 주십시오." 제석천은 수행자에게 이 말을 남기고 곧 사라진 것인데 이것이 열반경성행품의 개요이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제행(諸行)이란 무상한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신 것인데, 이것은 무지한 인간 전부를 가르치고자 하신 부처님의 큰 뜻인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여 흘러가는 까닭에 잠시 동안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태어나고 죽는 일, 곧 생멸이 반복되는 미혹의 세계에서 이 생멸, 미혹의 세계를 뛰어 넘어 진실한 깨달음인 적멸,의 참다운 기쁨을 얻어 참 삶을 누리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미륵암 청운 011-870-0021]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도자기 물고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자유(1) 접시'.

영운 스님 두 번째 개인전 '나는 나비예요'

8월 13~19일 경인미술관서 개최

전통 도자 연구에 매진해 온 영운 스님이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두 번째 전시회를 연다. 스님의 어린 시절 추억이 아로새겨진 통영의 바다향기를 가득 싣고 올망졸망한 물고기를 도반삼아 동심과 만날 채비로 한창이다. 고즈넉한 곳에 자리한 미술관, 나비가 되어 날아온 스님의 작품들은 무슨 얘기를 들려줄까?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일렁이는 침묵, 그 속에서 나를 찾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도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스님은 작은 공방을 토굴삼아 도자기와 마주했다. 그 후로 선방보다 흙이 좋아 도자기만 구우며 산다. 운명일까. 이른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미치도록 물고기만 만든 적도 있다. 그렇게 완성된 물고기 8000마리를 이번 전시에서 설치미술로 만난다.

완벽하게 완성된 도자기란 처음부터 없다는 것이 스님의 고집이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안 드는 것도 없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과거에 대화 나눴던 그릇을 만지면 스님만 알아보는 흔적이 있어 당시의 슬픔과 기쁨을 읽어낸다. 세월이 흘러도 그 순간의 기억들은 흙 속에 알알이 남는다. 그런 이유로 스님은 작업에 임하며 화를 내지 않는다. 투명한 거울처럼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물레 위에 돌고 돈다. 스님은 도자기 공부를 하면서 점차 유연해지고 자유로운 나를 느낀단다.


'일렁이는 침묵 속에서 나를 찾는다'.

#자연이 만법이다

흙은 자연의 숭고한 응축이다. 다보여래의 성품을 지닌 흙이 스님의 손끝으로 전해져 정념(正念)하게 한다. 그렇게 완성된 도기들은 스님의 화두가 맺은 하나하나의 쉼표다. "절제된 정신을 오롯이 담겠노라"며 신중을 기한다. 완성된 기물은 어김없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지금 이 순간 장군 죽비가 된다.

스님은 세상에 호기심이 많을 나이에 출가해 10여년 여러 선방에서 안거를 나며 정진하다가 '문득 다가온 인연'을 따라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년 세월을 흙 속에 다시 묻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평안으로 자연스레 몰입됐다. 그 안에서 삼매의 환희를 만끽했다.

은사 자민 스님은 "수행이란 것이 한 가지 화두만 들어도 모자란 일생일 것인데 힘든 예술의 길을 기어이 가려 하느냐. 연약한 네가 그 고뇌의 길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셨다. 자민 스님이 어머니와 같다면 아버지는 통도사 축서암의 수안 스님이다. 전시 소식을 전하자 "비구니 영운이 도자기전을 한대요. 눈 맑은 분들 오시어 구경하세요.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은 가져도 된답니다. 좋은 인연이니까요"라는 '격려사'를 선뜻 써 주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생명, 늘 자유를 꿈꾸었다!'.

영운(嶺雲) 스님은

- 1969년 통영 출생
- 1986년 입산 출가
- 1988년 단일계단에서 자민 스님을 은사로 사미니 수계
- 1993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 수계
- 1994년 약수암 · 견성암 · 보덕사 · 승가사 · 내원사 · 대성암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
- 2001년 전통도자 입문
- 2006년 경인미술관에서 첫 번째 전시회
- 2008년 경인미술관에서 두 번째 전시회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8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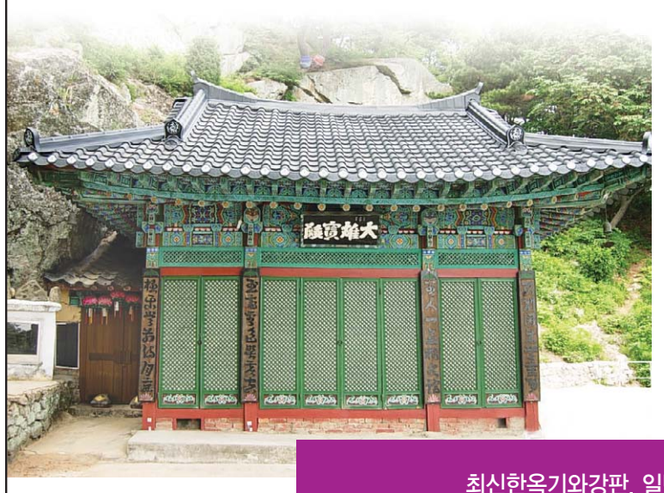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8년 8월 27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8월 28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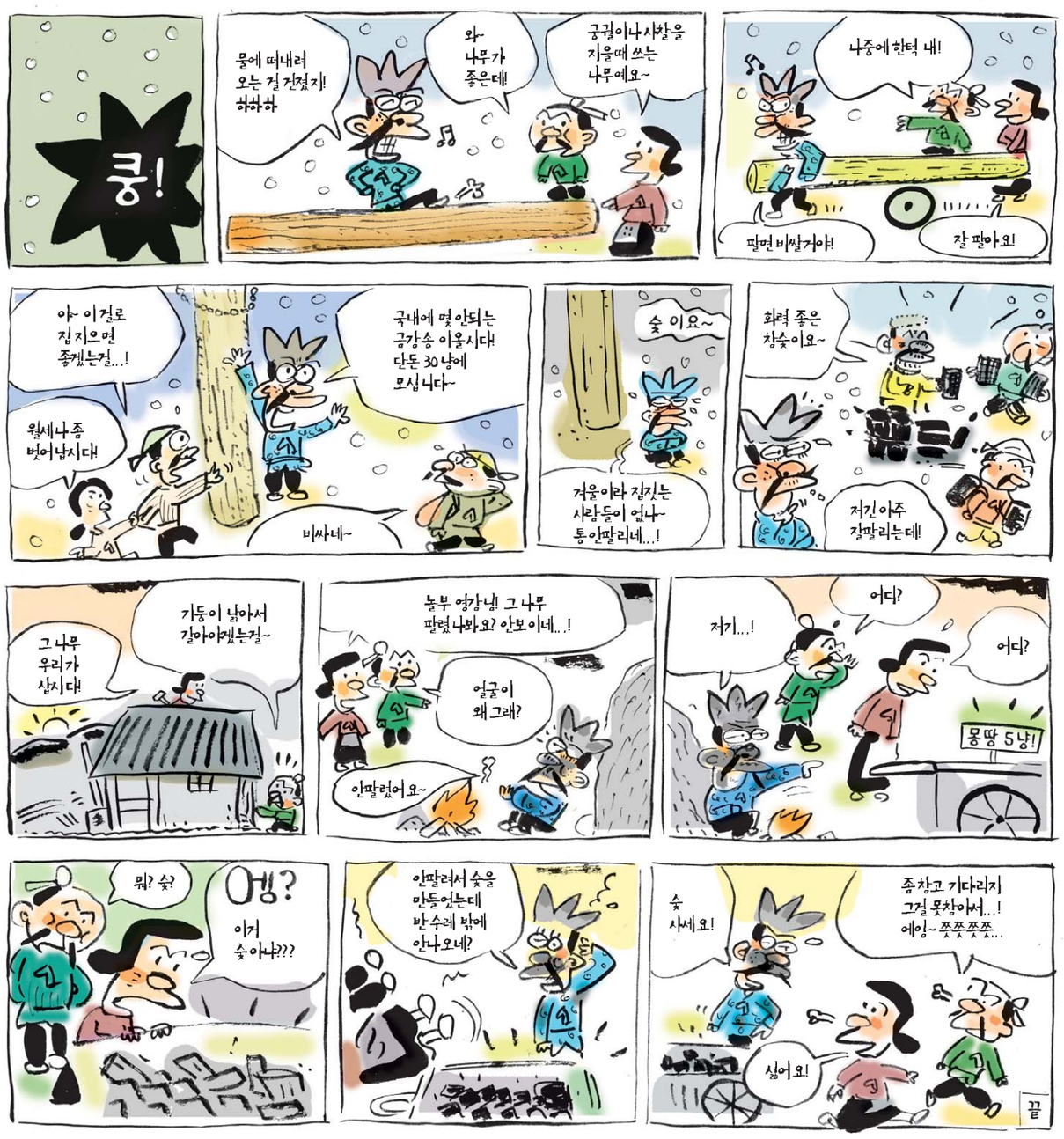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울퉁불퉁 보살 불퉁거사 <9>

구성 : 김흥인



물에 젖은 나무로 숯을 만든 사람 [백유경(百喩經)]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다에서 침향목을 건져내 시장에 팔려고 내놨다. 비싼 값에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자, 그는 고민에 빠졌다. 옆에서 숯이 잘 팔리는 것을 본 그는 "숯을 만들어 팔면 잘 팔리겠다"는 생각에 숯을 만들어 팔았다. 숯이 된 침향목은 값어치가 떨어져 헐값에 팔렸다.
세상 어리석은 이도 그와 같다. 부지런히 정진해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만, 성불하기 어렵다해서 '빨리 생사를 끊고 아라한이 되는 것이 낫겠다' 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괴로움에 관해 말씀하셨다

설고불래(說苦佛來)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설고불래(說苦佛來)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고통에 관해 설하는 장면이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법구경〉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삽화를 살펴보면 기원정사에서 4명의 스님들이 고(苦)에 대한 토론을 벌일 때, 부처님이 지나가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몸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설법하는 모습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스님들이 서로에게 "세상에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 때 한 스님이 말하기를 "음욕이야"라고 말하자, 다른 한 스님이 "아니야, 성나고 노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한 스님은 "놀라고 무서운 마음이 제일 괴로운 일이야" 라고 해 이렇게 토론이 그치지 않았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고통의 뜻을 궁극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 이 세상 고통이란 몸이 존재하는 고통을 넘어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노여워하고 성내고 색욕이 일어나고 화를 입는 것을 원망하는 모두가 몸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몸이란 것은 모든 고통의 근본이며, 근심과 재화의 근원이다. 마음을 고단하게 하고, 극도로 염려하게 하며 생사의 윤회가 쉬지 않는 것 등은 모두 몸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예전에 한 비구가 입산해 수행 중이었다. 당시 비둘기 · 까마귀 · 뱀 · 사슴이 그의 좌우에 붙어살며 의지하고 있었다. 낮에는 먹이를 찾아다니다 날이 저물면 돌아와 그곳에서 잠잤다. 어느 날 밤이었다. 짐승들이 서로에게 묻기를, '세간의 괴로움이 무엇인가?' 집비둘기가 말했다. '색욕이 치성하면 생각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몸을 위태하게 하며 목숨이 멸하게 되니, 색욕이 제일 괴로움이야.' 그러자 까마귀가 말하였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몸을 여위고 눈이 어두워져서 정신과 인식작용이 편안하지 못하다. 몸을 그물 속에 던지는 꼴이 돼 몸도 잃고 목숨도 잃게 되니, 배고픔이 제일 괴로움이야.' 뱀도 한마디 거들었다. '분노와 노여움이 한번 일어나면, 친소를 가리지 않게 돼, 능히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다시 자살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는 사슴이 말했다. '나는 항상 사냥꾼과 여러 늑대 · 호랑이들이 두렵다. 어렴풋이 그들의 소리가 들리면 구덩이나 언덕으로 달아난다. 놀라고 무서운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 이에 스님들은 감격하여 찬탄하며 "천하의 큰 고통은 몸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삽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간곡한 말씀을 깊이 새겨 세상의 괴로움의 원인이 우리 몸을 통해 만들어짐을 깨달아 모든 고통의 원인인 몸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을 통한 행복을 얻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선승의 눈(萬行)

바랑하나 둘러메고 길 떠나든 날
無心衣 갈아입고 좋아했었네

옷깃에 별을 달고 달을 달아서
밤길 홀로선 걸음도 시원해라

한걸음 부처나고 두 걸음 부처나네
오호라! 한세월 억만겁을 돌아서

한걸음 두 걸음 억만부처 만나리
1994년 지리산을 떠나며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禪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주)에이치비엠씨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 문화재 등록 / 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학인수시모집 : 범음,범패, 바라,나비춤
●사찰행사 : 49재,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분
전화 주십시오
02)584-8844
011-354-8484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2)939-3327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보살선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초혼 · 재혼 · 국내 · 국제
대졸 초 · 재혼,신원확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국제,필리핀,베트남,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자격취득안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역학 · 건강 · 비법전수
한글만 알면 한달이내 역학비법통달
난치병 근본치유 · 예방, 심신무병 건강비법 전수
052)264-8183
011-855-8180
신불정사 무구 합장

역학비밀 출장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사주학 · 매화역수 강좌
개인지도, 책임지도
평생운,연운,월운,일운,건강운, 빙의까지 정확히 적중시키는 수리학의 비법을 전수합니다.
(1개월 완성)
02)747-9136
011-307-2975

도심속의 통영사
(희망을 열어가는 젊은 부처들)
산사 음악회, 대중행사 전문
포교도량 (무료봉사)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8번 출구앞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고속터미널옆
선화법사 합장
02)3426-1357
010-8726-1357

가족처럼 함께 할 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서울 우이동
02)990-1725

스님이 되고자 합니다
(절학관 30년운영)
법사 10년
명리학의 대가
(부산,울산,양산근교 희망)
011-9344-204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지역
(월보시금 100만원)
052)227-0827
052)275-0829

평생도반. 물좋고 경치좋은 산사에서 남은 여생 마음편히 살아가실 비구니스님,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약간)
018-406-30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경주지역
054)748-35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5대)
보시금 상담후 결정
010-3188-5103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용인소재 사찰
011-270-2675
031)335-2576

출가하실 행자스님 모십니다
평생 부처님 공부하며 불자로서 사실분
50~60세(남,여)
051)721-0449
011-579-6444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1-840-4355

행자모집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소재암자
031)774-476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속초
010-9866-7930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시
055)375-0142

친환경 한지 영가옷
순수 한지로 만들어서 그을음이나 냄새가 전혀나지 않아 도심지 사찰에서 사용하기 좋으며 특히 백중에 많은 옷을 사용할때 더욱더 좋습니다. 우리 한지는 질겨서 잘 찢어지지 않으며 환경과 공해를 생각하시는 스님께서 많이 사용하는 영가옷 입니다.
●치수는 일반영가옷과 동일합니다. ●주문즉시 택배로 발송합니다.
●국내산 최고급 양초(밀초, 돈타레, 원백)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품질에 문제발생시 100% 환불 약속)
▷계좌번호 : 우체국 700013-01-002808 (예금주 : 관음사)
전화 054)972-9933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메모하세요)

기도스님 (비구,비구니스님)
※출퇴근 가능한 스님
1.새벽예불없슴
2.종단관계없슴
3.진실이통할분
스님되시렵니까?
진취적사고와 도심포교 역학에관심 역학배울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 (www.bwjisan.com)
02)971-4958, 971-1544

수중촛대
2008년 9.5 ~ 9.8 한국불교 박람회 출품 예정

특징
1.물속에서 양초가 타므로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2.촛불이 50시간~56시간 타므로 초 절약 됩니다.
3.촛농과 그름이 없고 공기정화 및 가습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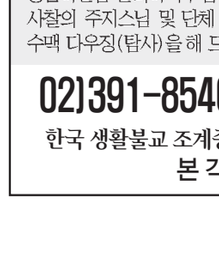
만행화 011-9000-5715 / 02)733-5715

고급 만다라 액자 특별 분양 안내
분양가 5만원 (가로×세로 48cm×두께 5cm)
▷만다라의 특징 - 대표적인 불교의 상징이며 우주공간의 축소된 그림이다. 각 가정에 1점씩 걸어두면 뒤숭숭한 꿈자리가 없어지고 수맥이 차단되며 점포에 걸어두면 영업이 활성화 된다. 만능 부적과 같다.
●조성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새절 봉선사
전화 031)633-5587 / 공급원 016-261-2068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 TVbuddha.co.kr

역학공부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월요일) 18:30 개강
•관상 · 풍수 : 매주 수요일 18:30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巒"막힐 을, 답답할 을, 성낼 을, 걱정할 을, 원망할 을.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 스님,법사님의 포교 방편최고 ◇
■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빙의(퇴마치유,귀신을 잡아 보여줌
2.환상을 보게 하고, 온,냉의 기를 발생
3.기를 쏘아 부활으로 사혈
4.맨손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임
신통기공사 중국정부 추인 자
■ 웰빙 최고의 건강비법
1.스트레스 해소,각종 질병이 치유된다
2.기억력 상생,화생 성적 증진
3.성격이 바뀌고 비만이 치유
※ 일반 기본전수 3개월,속성전수 2개월
법회 100명이상 동참시 시범을 보여드림
사단법인 : 대한선행불교 조계종 총무원 * 사찰 입종 환영
부설: 삼삼구 불기공 총연합본부(5호선 명일역 3번출구 인근)
전화 02)426-4774, 011-9092-0533 / 팩스 02)426-5585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 202호

징계(체탈) 멸빈자

소속사찰	성 명	법 명
대 구 무 상 사	배창식	원 주(원주생식)
예 산 팔 봉 암	심재천	청 마(지성)
부 산 상무정사	권상무	상 무
봉 화 운 부 암	김복자	묘 연
울 진 일 출 사	서영우	해 능
남양주 대원정사	김대순	월 산
남양주 대원정사	윤미옥	무 명

상기인은 한국불교조계종 종헌종법 제146조에 의거 체탈(멸빈) 되었음을 알림
한국불교조계종 호법부장 권한대행 운봉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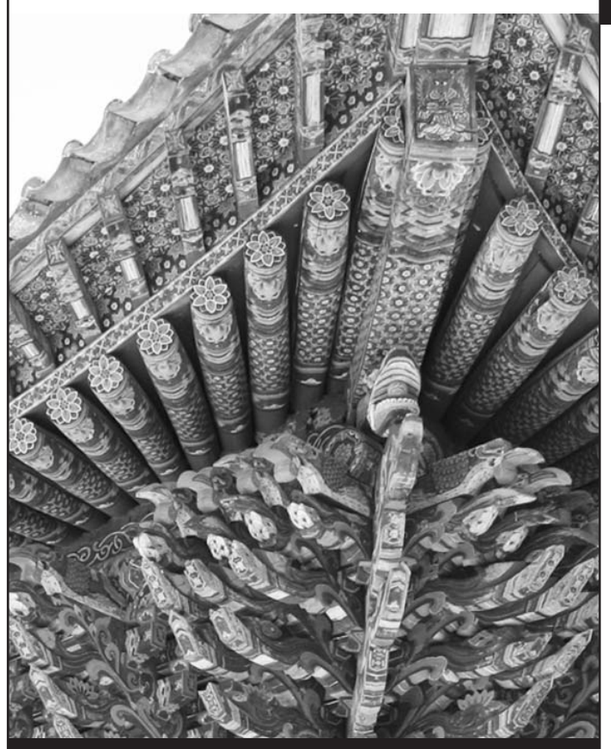
본각사 일두스님의 수맥파 상담
"지금 당신에 침실은 안전합니까"
수맥파를 알면 가정이 편안 합니다.
만병의 원인 수맥파
법당에 들어서면 무서움 오싹한기분 냉기가 돌고 신도가 줄어들고 의욕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적이고 매사 되는일이 없고 다툼이생기고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고 짜증만내고 남편은 귀가가 늦고 부부싸움이 잦고 법당,사업장,주택 사무실,기타영업장에도 사업이 부진하고 원인모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병에 시달리고 악몽,가위눌림 깊은잠 못자고 생체리듬파괴 각종 암,중풍,관절염,심장질환,학습장애,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모든 건강문제!
식욕부진,만성 소화불량, 신경통, 고혈압, 뚜렷한 병명없이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는 분.
만약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자거나 근무한다면 당신은 이미 병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큽니다. 수맥탐사 1급 자격증 소지한 일두승이 탐사를 도와 드리고 수맥을 중화 시키거나 차단하고 미세한 수맥은 자리이동을 시켜서 수맥파에서 해방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귀 사찰이나 단체에서 원하시면 생활수맥 강의를 경기도 서울지역은 출장 강의를 해 드립니다.
2-3시간 교육으로 수맥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시켜드리고 잠자리 이동을 가능하게 교육시켜 드립니다.
수맥을 중화 차단하고 난 후 약 5-7일간 경험해보신 후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점 문의하여주십시요.
사찰의 주지스님 및 단체 개인분들께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로 수맥 다우징(탐사)을 해 드립니다.
02)391-8540 /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 조계종 (사단법인)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무료 공개 강좌
제6기 인장과 성명학 강좌
2008년 8월 5일(화) 오전 11시
한국 구궁성명학회 회장 직강
■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이 적은 분
■ 철학관을 개업하실 분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 분
■ 스님 또는 출가를 원하시는 분
정규교육 5개월 과정으로 고수입을 올릴수있는 방법교육
수료와 동시에!! 성명감정사 자격증 수여
좋은이름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95-2 2층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청구성심병원옆 주차장완비)
02)383-8860 / 017-711-2248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기도도량(의령)
● 대지 1000평
● 건물 목조법당 30평+
10평+15평(3동)
요사 30평(공양간) 주차장 200평
● 산좋고 물좋고(계곡접)
전망좋은 기도도량 최고
● 양도가 : 2억8천만원

● 위치 : 양산(마당 넓은 절)
● 부지 5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40평+20평 산신각 5평(목조)
● 5층탑 뒷산 아름다운 절
버스진입 가능, 주차장 완비
양명현 탁트인 전망
● 가격8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상담 서비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 법당 : 15평
● 요사 : 60평
● 부지 : 3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경북
● 법당 및 요사 : 70평
● 부지 : 22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법당 : 28평
● 요사 : 38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두시지하철 2분거리
불교 도량 최적지
● 법당 25평, 요사25평,
대지 600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9798-1091
011-574-3303

암 자 안 내

● 위치 : 구미시 근교
칠곡군 양목면
● 임법당,연꽃 연못
금수강산 텃밭
● 총 320평
● 임대보증금 300만원
1년 350만원
● 양도도 가능.1억 3천만원
017-813-91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개진면
● 대지 120평
● 법당 15평 삼존불, 요사채
● 50년된 사찰로 국도변
5분거리 교통편리
● 가액 : 6천만원
010-2630-0192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 평수 : 35평 3층건물중2층
법당,방2,부엌,거실(총4칸)
단청시설되어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후 절충가능
011-847-5150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http://blog.naver.com/mine4you
010-6304-599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9725-3196
011-9108-55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5분거리
● 대지 120평. 1층 요사채,
2층 슬라브 법당 24평
● 절도 기와집, 요사채 1동,
산신각 1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8천 5백만원
010-6288-9777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음성시내 중심가
● 건물 : 방 3개, 30평
● 대지 100여평, 실사용 150평
● 임법당 - 법사, 역학
비구니스님, 만신보살님 환영
● 가액 : 9천7백만원(융자 4천)
● 정원에 각종 유실수 많음
010-8828-3002

사 찰 안 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3천만원
011-9928-0005
061)544-048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010-3112-3513

사찰(급)분할, 인수할분

● 위치 : 경북 고령군 국도변
대구에서 30여분거리
● 대지 약 600평, 건평 약 80평
법당 25평
● 삼존불 방7개,대형주차장 완비
● 노인요양시설신청,
추모사리불안치도 준비중
● 계약후 불사 협찬으로 장기
분할지불도가능한 좋은 조건임
● 양도가 : 융자 9700만원 포함
(찬조1억 양도인)2억6천만원
총액 4억 6천만원
053)471-3123
017-501-2315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공업로터리 주변
6차선 도로 건물
울산공원,등산로 입구
● 2층 건물 전체 25평
● 방, 부엌, 종무실, 법당
화장실 완비
● 전세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00만원
018-528-1234 정도암 주지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화곡사거리
까치산역 3분거리부근.
대로변 2층
강서구 화곡 8동 897-1
● 평수 : 2층 13평. 주거편리
(법당1, 주방 겸 거실 1)
● 보증금 2,000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150만원,
● 포교원, 역학원에 적합,
기타 업종 가능
010-4436-3575

절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 총평수 1706평
● 주변 산세가 수려하고
지세가 아주 좋아
명당절터자리임
● 가액은 2억
(답사후 절충가능)
011-9324-4732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재역 대로변
버스 정류장 옆 건물
● 대기실과 상담실 분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5백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성업중 사찰건립 관계로
급 양도
011-498-506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4445-517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덕천동 1층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450만원(절충가능)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6222-262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중구부락 210번지 금병암
● 평수 : 대지 총69평(일반주택)
● 법당 15평,삼성각2평,방4
● 가액:1억3천만원
055)744-6188
010-4871-27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감악산(柑岳山)내
● 풍광 수려 대작불사 대가람 최적지
● 임야 4380평 유실수-감,밤,주목,다수
관리지역"종교부지"허가 500평-현재대작불사중
● 법당 25평(증축예정)-다글라스 목재
화엄성중전 10평 법당완축(알마시카목재)
지장전 15평,관음전 15평,요사 25평
(3채증축예정)
● 토목공사 완비 지주석-자연석 완비
● 요사 15평조립식(방4) 창고개조-5평(방사2)
전원주택 1동-건평 15평(방사2)대지100평
8평 조립식(방사2,창고1)
● 원력 높은 스님 분께는 절충가능합니다
장난전화 사절
● 가액 : 3억9천만원
010-5547-1518(총무실장)
010-4001-3415(사무장)

공덕재단법인체 인수할 사람을 찾습니다

● 장소 : 밀양
● 집, 토지 : 대지 55평,건평 26평
● 주소 : 밀양시 가곡동
709-124번지
● 단층주택,심야전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 금액 : 1억 5천 잔고증명 2억
● 인수가격 : 1억 5천
011-559-939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 대지 110평 건평36평
임법당,비구니스님이나
무속인 환영
● 기도도량
●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정원조경잘되어있음
● 가액:1억1천3백만원
(융자 3300만원 포함)
조정가능
016-478-76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북부 2개의 신도시 부근
노송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부지 630평(실사용 1000평이상)
법당 20평 요사채2동(100평,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시청에서 차로 5분거리,
전철 개통 예정
포교수행의 최적지
● 가액 : 시세절반 상담후 절충가
주변 주택가 평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선)
010-5290-3709

사찰(급) 안내

● 위치 : 안동 암산 유원지
테마 마을
● 대지 200여평 법당 28평
● 큰방3개, 비품 일절 양도
● 삼존불, 소불(240불)
각단탱화
● 관광단지조성계획지로
주변경관이 수려함
● 삼성각,지장보살(6m),
텃밭(80평) 시내 10분거리
주변땅으로 잔디조성
● 가액 : 1억 7천만원
054)858-9628~9
019-377-8967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동 소재
최고의 위치 시설(시장통)
● 평수 : 대지 109㎡(33평)
● 그린생활 3층 건물
● 총건평 200㎡+62㎡=262㎡
1층 : 상가 2층 법당, 사무실
3층 : 요사채
● 가액 : 2억 6천만원
018-562-1577

사 찰 양 도

● 위치 : 강원도 지정면 문막
나들목에서 10분거리
개발지역, 옛날 한옥 두채(2동)
● 부처님, 삼존불 모셔져있음
용왕, 산신 구비
● 평수 2만평, 분할가능, 진입도로 연결
● 스님 요사채 1동
공양간 20평, 대형방 약20평
대중처소 1동(방9개)
● 가액 14억원(절충가능)
(분할매매가능)
010-7101-0858
033)732-7919

포교당 터(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 60평(3년)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경관이 사찰로 운영함이
좋을 듯 싶고 포교당으로도 적합함
● 심야전기시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현 시가액에 맞지않은
3억2천만원에 인연맞는 분께
양도하려함
011-803-744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근처
(석촌역, 송파역 2~3분 거리)
● 4층 건물중 2층, 평수 약70평
(법당 25평, 방4, 공양간)
● 삼존불, 후불탱화, 각단탱화
에어컨 3대, 연등 600등
실내 화장실, 샤워장
● 보증금 5천만원, 월20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주지스님 건강관계로 급 안내함
010-7101-0858

사 찰 중 개

● 위치 : 서울, 종로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암자
급히 양도하실분이나
구입하실분
전화주세요.
만족을 드립니다.
성불하세요.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5백만원
017-232-3389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대지 176평, 밭 790평
● 건물 시골 촌집 폐가
전기수도 차량진입 할 수있음
● 산세 좋고 경관수려
● 가액 : 1억 2천
011-594-1526

사찰(터)안내

● 위치: 양산시 하북면 백복리
● 평수 : 700평
● 통도사 내원사에서 10분거리
● 가액 : 평당 50만원(절충가능)
011-558-6130
055)867-1610

포교당 안내

● 위치 : 마산시 산호동 산호시장앞
● 평수 30평, 2층 단독
● 삼존불, 신중탱화,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4001-8476
055)232-7151
055)243-375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두시지하철 2분거리
불교 도량 최적지
● 법당 25평, 요사25평,
대지 600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9798-1091
011-574-330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화곡사거리
까치산역 3분거리부근.
대로변 2층
강서구 화곡 8동 897-1
● 평수 : 2층 13평. 주거편리
(법당1, 주방 겸 거실 1)
● 보증금 2,000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150만원,
● 포교원, 역학원에 적합,
기타 업종 가능
010-4436-3575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재역 대로변
버스 정류장 옆 건물
● 대기실과 상담실 분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5백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성업중 사찰건립 관계로
급 양도
011-498-506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4445-517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덕천동 1층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450만원(절충가능)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6222-262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중구부락 210번지 금병암
● 평수 : 대지 총69평(일반주택)
● 법당 15평,삼성각2평,방4
● 가액:1억3천만원
055)744-6188
010-4871-27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감악산(柑岳山)내
● 풍광 수려 대작불사 대가람 최적지
● 임야 4380평 유실수-감,밤,주목,다수
관리지역"종교부지"허가 500평-현재대작불사중
● 법당 25평(증축예정)-다글라스 목재
화엄성중전 10평 법당완축(알마시카목재)
지장전 15평,관음전 15평,요사 25평
(3채증축예정)
● 토목공사 완비 지주석-자연석 완비
● 요사 15평조립식(방4) 창고개조-5평(방사2)
전원주택 1동-건평 15평(방사2)대지100평
8평 조립식(방사2,창고1)
● 원력 높은 스님 분께는 절충가능합니다
장난전화 사절
● 가액 : 3억9천만원
010-5547-1518(총무실장)
010-4001-3415(사무장)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개진면
● 대지 120평
● 법당 15평 삼존불, 요사채
● 50년된 사찰로 국도변
5분거리 교통편리
● 가액 : 6천만원
010-2630-0192

사찰(급)분할, 인수할분

● 위치 : 경북 고령군 국도변
대구에서 30여분거리
● 대지 약 600평, 건평 약 80평
법당 25평
● 삼존불 방7개,대형주차장 완비
● 노인요양시설신청,
추모사리불안치도 준비중
● 계약후 불사 협찬으로 장기
분할지불도가능한 좋은 조건임
● 양도가 : 융자 9700만원 포함
(찬조1억 양도인)2억6천만원
총액 4억 6천만원
053)471-3123
017-501-23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감악산(柑岳山)내
● 풍광 수려 대작불사 대가람 최적지
● 임야 4380평 유실수-감,밤,주목,다수
관리지역"종교부지"허가 500평-현재대작불사중
● 법당 25평(증축예정)-다글라스 목재
화엄성중전 10평 법당완축(알마시카목재)
지장전 15평,관음전 15평,요사 25평
(3채증축예정)
● 토목공사 완비 지주석-자연석 완비
● 요사 15평조립식(방4) 창고개조-5평(방사2)
전원주택 1동-건평 15평(방사2)대지100평
8평 조립식(방사2,창고1)
● 원력 높은 스님 분께는 절충가능합니다
장난전화 사절
● 가액 : 3억9천만원
010-5547-1518(총무실장)
010-4001-3415(사무장)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6>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⑩

염불하는 마음이 지관이다

三坐者 若於坐時 應作是念 我今爲何等事欲坐 若爲諸煩惱 及不善無記事等 卽不應坐 爲善利益事 則應坐 云何坐中修止 若於坐時 則當了知因於坐故 則有一切煩惱善惡等法 而無一法可得 則妄念不生 是名修止 云何坐中修觀 應作是念 由心所念壘脚安身 因此則有一切善惡等法 故名爲坐 反觀坐心 不見相貌 當知坐者 及坐中一切法 畢竟空寂 是名修觀

세 번째로 앉아서 하는 지관수행에 대해 말해보자.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앉으려 하는가."

앉을 때엔 반드시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모든 번뇌와 불선업과 무기의 일 등 때문이라면 앉지 말아야만 되고, 선업으로 이익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앉아야만 한다.

앉아있는 가운데서 지 수행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앉을 때엔 앉는 것으로 인해 일체 번뇌, 선악 등의 법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안다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지 수행이라고 말한다.

앉아있는 가운데서 관 수행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반드시 내 마음을 따라서 두 다리를 포개고 앉아 있으면 몸이 편안하기 때문에 일체 선악 등 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 때 앉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여 그 어떤 모습도 보지 않아야만 한다. 알아야할 것은 앉은 사람과 앉아있는데서 일어나는 일체법이 끝내 공적하다는 점이다. 이를 관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각을 따라서 다리를 포개고 앉아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도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앉은 가운데서 한 구절의 아미타불 명호를 염불하여 주관과 객관이 쌍으로 분명히 떠오른다면 이것이 바로 지관을 닦는 것이 된다.

지관이라는 두 법은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이라는 것은 염불하는 마음이며, 염불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관이다.

마음은 무시이래로 혼침하지도 않고, 산란하지도 않으며, 가라앉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는다.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한 마음이 바로 지 수행이고, 혼침하지 않기 때문에 역력분명한 마음이 관 수행이다.

따라서 한 평생 한 구절 아미타명호를 염불할 수 있다면 자기 마음의 지관이 자연스럽게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四臥者 於臥時應作是念 我今爲何等事欲臥 若爲不善放逸等事 則不應臥 若爲調和四大故臥 則應如師子王臥 云何臥中修止 若於

아미타불명호 쌍으로 분명히 떠오르면
자기 마음의 지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寢息 則當了知因於臥故 則有一切善惡等法 而無一法可得 則妄念不起 是名修止 云何臥中修觀 應作是念 由於勞乏 卽便昏闇 放縱六情 因此則有一切煩惱善惡等法 卽當反觀臥心 不見相貌 當知臥者 及臥中一切法 畢竟空寂 是名修觀

행 주 좌 와 등 네 위의 가운데서 모두 지관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일체의 시간, 일체의 처소에서 지관공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하지만 눕는 법은 본래 선이 아닌데 누워있음을 통해서 어떻게 지관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워있음으로 인해서 색신을 조화하고 정신의 부족함을 보양해야만 한다.

범부 중생은 업보에서 불러들인 몸뚱이기 때문에 잠을 전혀 자지 않으면 정신을 손상하게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수행하고 도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누워야만 한다.

누우려고 할 때엔 이와 같이 사유해야만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누우려고 하는가."

불선업, 방일함 등의 일 때문에 눕는다면 눕지 말아야만 한다. 선하지 못하고 방일한 것은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말한다. 하지만 교리를 연구하고 불법을 크게 전파하려 하는 일 등 지관을 수습하려 하기 때문이라면 반드시 누워야만 한다.

내 몸은 외부세계의 지 수 화 풍 등이 모여서 사대를 이루고 있다.

첫 번째로 지대는 견고하고 서로가 장애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는 안 이 비 설 신 등을 말한다. 지대는 물을 빌리지 않으면 서로가 화합하지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해 경전에서는 "모발 손톱 이빨 피부 근육 뼈 등이 모두 지대로 되돌아간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수대는 윤택하고 젖는 성질인데, 이는 눈물 콧물 진액 등을 말한다. 수대는 지대를 빌리지 않으면 바로 흘러서 산만하게 흩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경전에서는 "눈물 콧물 고름 피 진액 침 담 정기 대변 소변 등이 모두 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였다.

세 번째로 화대는 건조하고 뜨거운 것이 그 성질이다. 즉 우리 몸 가운데 따뜻한 기운을 화대라고 말한다. 화대는 풍대를 빌리지 않으면 더욱 커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전에서는 "따듯한 기운은 불로 되돌아간다" 라고 하였다.

네 번째로 풍대는 움직이는 것이 그 성질이다. 입식과 출식, 우리의 몸과 수족의 동작 등이 모든 것이 풍대에 해당된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두 풍대를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경전에서 말한 "움직이는 것은 모두 바람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한 것에 해당된다.

여기까지가 내적으로 내 몸 가운데 임시적으로 화합해있는 지수화풍 사대이다. 여러분이 알아야할 것은 사대는 독사와 같다는 점이다.

가령 사대 가운데 하나의 대(大)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즉시 백 한 가지 병이 생긴다. 따라서 반드시 사대를 알맞게 조화 해야만 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사대를 조화하기 위해 누울 경우엔 사자 왕처럼 누워야만 한다. 사자가 눕는 것은 혼침 때문이 아니다. 성성적적하고 적적한 가운데 성성해서 일반 사람들처럼 방종하면서 깊이 잠에 들려고 눕지 않기 때문이다.

누워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지관을 닦을 수 있겠는가.

잠을 자며 휴식할 경우 눕는 것 때문에 계정 혜 등의 선법과 살 도 음 등의 악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미세하게 추구하고 관찰한다면 끝내 그 실체가 없다.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것은 눕는 가운데서 생멸과 미오와 거래를 끝내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다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이를 두고 지를 닦는 것이라고 한다.

누워서 관을 닦을 경우엔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생각해야만 한다.

범부들은 피로함 때문에 마음이 혼침하고 모든 감정이 방종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체 선과 불선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때에 바로 돌이켜 "이 한 생각 눕는 마음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이를 관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삼분(三分)의 의미

유식학에서는 우주전변론 측면에서 인능변(因能變)과 과능변(果能變)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능변은 장식(藏識)내에 간직되어 있는 업인(業因)이 능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이고, 과능변은 업인이 인연을 만나 과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업력에 의하여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곧 결과가 되는 것이며 이를 과능변이라고 합니다.

이 중 과능변 가운데서 식자체(識自體), 즉 자증분(自證分)에서 흡사 대상경계를 인식하는 활동이 있는 듯이 나타나는 작용을 견분이라고 하고, 이 견분이 인식대상으로 집취(執取)하는 경계를 상분색(相分色)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안식에서 예를 든다면 대상색경을 명료하게 식별하는 인식작용이 견분이고, 인식대상인 색경이 바로 상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견상이분이 의타기성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나려면 반드시 의지하는 자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근거없이 견상이분이라는 심식활동이 상대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식에는 견상이분이 의지하는 자체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식자체를 견상이분에 대비에서 자체분(自體分) 또는 자증분(自證分)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식이 대상경계와 부딪치면, 즉 육근이 육진과 마주하는 순간 그 사이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난 식이 대상경계를 선험적으로 분별없이 대상자체 모습[自相]을 그대로 인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자증분은 식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며 견분과 상분은 이 자증분위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또 자증분은 항상 견분과 상분의 활동을 지켜보는 동시에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삼종분별(三種分別) 가운데 자상분별(自相分別)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대상에 대한 선험적인 자상분별이 일어나면 동시적으로 후천적인 경험에 의한 분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견분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 인식활동이 동시에 상응하면서 인식하는 그 대상경계를 상분이라고 합니다.

이를 오온법 가운데서 예를 들면 식온은 자증분이며, 수온 상온 행온은 견분의 활동이며, 색온은 인식대상인 상분경입니다. 이 같은 작용은 동시적인 찰나일념에서 선후의 시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張如舟

금산사 여름 템플스테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금산사 수련법회는 참선수행과 염불수행을 병행함으로써 수행의 큰 움직임과 세밀함, 빠름과 완만함을 함께 갖추고, 한국 불교의 오랜 전통수행 속에서 자기 삶의 존재적 가치관을 발견하고 수련법회 후의 일상적 수행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절 수행을 통하여 참회를 배우고, 염불수행과 탑돌이 수행으로 발원을 세우며, 참선수행을 통하여 지혜와 자비를 얻게 됩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에 열심히 수행하여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008 금산사 여름템플스테이 참가자 모집대상
♠ 제 3차 : 2008년 8월 1일 ~ 3일 (2박3일), 초등3학년이상(30명),5만원,금산사 여름캠프(초등)
♠ 제 4차 : 2008년 8월 8일 ~ 10일 (2박3일), 중학생(30명),6만원,금산사 여름캠프(중등)
♠ 제 5차 : 2008년 8월 15일 ~ 21일 (6박7일), 20세이상 누구나(50명),20만원, 수행-禪나를깨치다
♠ 제 6차 : 2008년 8월 23일 ~ 26일 (3박4일), 20세이상 누구나(50명),12만원, 수행-禪나를깨치다
♠ 제 7차 : 2008년 8월 27일 ~ 31일 (4박5일), 20세이상 누구나(50명),15만원, 수행-禪나를깨치다

시간표 보기

접 수 방 법 : http://sansa.geumsansa.org 홈페이지 참여신청란입니다.
접 수 문 의 : 010-6589-0108 / 063)548-4440~2 / Fax 063)548-1390 / geumsansa@hanmail.net
주 소 : 576-962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템플스테이 담당자 : 일체향
입금계좌번호 : 농협 525133-51-001751(예금주:금산사)
개인분비물 : 수건,칫솔,운동화,흰고무신 - 어른(어린이샌달,수영복) 우산,여벌옷
금산사준비 : 치약,비누,샴푸,여벌수건,비상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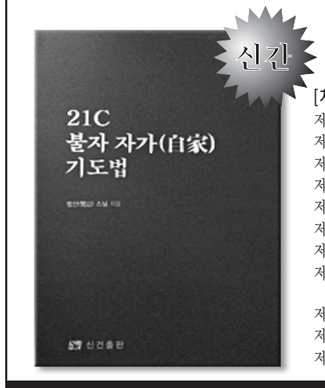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입 종 안 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종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정교한 호법논리로 당 초기 '불도지쟁' 논파

<15> 당대의 불도논쟁과 이사정 거사

고구려 침공 실패로 불교를 중심으로 '삼교정립'을 이룩한 수조(隋朝)는 단명했다. 수 문제 총신이었던 이연(李淵)이 당조(唐朝)를 세웠다. 당대에 들어 남북조 이래 중국사상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불교는 다시 유 · 도 양교의 치열한 도전에 직면했다. 더욱이 황가(皇家)의 성이 노자(老子; 李老聃)와 같다는 인식에서 당 황실은 도교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 도교의 인물들이 주요관직에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먼서 도교에서 불교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당 건립 초기인 고조(高祖) 무덕(武德) 4년(621) 당시 태사령(太史令)으로 있던 도사 부혁(傅奕)은 위진(魏晋) 이래 반불교적 인물들을 모아 <고식전(高識傳)>을 편집해 도교에서 불교를 공격했던 내용정리를 통해 불교는 사람들을 철저히 기만할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그는 이를 근거로 고조에게 몇 차례에 걸쳐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고, 부역을 회피하며, 부모를 모시지 않으며, 갖가지 악행을 전적으로 행하는 불교를 폐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이로부터 당 건국 초기에 '불도지쟁(佛道之爭)'이 전개됐고 태종(太宗) · 고종(高宗)의 삼대에 이르러서도 끝나지 않는 기나긴 논쟁으로 이어졌다.

부혁의 상소는 바로 불교계의 반박을 받았다. 법림(法琳) 스님의 <파사론(破邪論)>, 이사정 거사의 <내덕론(內德論)>, <정사론(正邪論)> 등이 대표적이다. 이사정 거사는 당시 동궁학사(東宮學士)의 관직을 이용해 태자 이건성(李建成) 등을 움직여 법림 스님의 <파사론>이 고조에게 상주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국 '폐불' 사태는 면했다. 당 초기 발생한 불도지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당대(唐代) 거사불교 시작을 알리는 이사정 거사와 그의 저술 <내덕론>을 소개한다.

이사정 거사 전기는 팽제청의 <거사전> 권13에 실려져 있지만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거사는 어려서 유학(儒學)과 도교에 전념했지만, 후에 어떤 인연으로 불교 전적을 읽고 점차로 불교에 흥미를 갖게 됐다. 거사가 불교에 심취한 원인은 정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지만, 불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문의하다 법림 스님(572~640)을 찾아 스승으로 모셨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법림 스님은 어려서 출가해 불교뿐 아니라 제자백가(諸子百家)에 모두 통달했다. 도교에 입문해 도사로서 노장 현리(玄理)를 탐구했다가 다시 불문에 귀의해 '불도지쟁' 선봉을 맡아 <파사론> 이외에 <변정론(辯正論)> 등 수많은 논서를 찬술했다. 역경(譯經)의 필수(筆受)를 맡는 등 독특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거사가 도교에 심취하다 법림 스님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거사도 역시 사상적인 여러 편력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불교의 진제(眞諦)를 만나 안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거사의 현존 저술인 <내덕론>(<광홍명집(廣弘明集)> 권15에 수록)에서 충분히 엿보인다.

거사의 <내덕론>은 역대 중국불교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호법(護法) 논서(論書)라는 평가를 받았다. <내덕론>은 <변혹(辨惑)> <통명(通命)> <공유(空有)>의 세편으로 구성됐다. 이를 <불법금탕편(佛法金湯編)> 권8에서는 "<변혹편>에서는 삿된 것과 올바른 것을 잘 밝혔고, <통명편>에서는 화와 복이 서로 인연해 발생함을 잘 분별했다. <공유편>에서는 단(斷) · 상(常)에 집착하는 견해를 잘 논파한다"고 평가한다. 물론 거사의 호법에 대한 입장은 <변혹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부혁이 수차례 올린 '폐불' 상소에서 '이하론(夷夏論)'을 근거로 해 '오랑캐[夷] 가르침으로는 결코 중국인[夏] 습속을 교화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하론'은 불교가 전래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된 논리의 하나였고, 남북조시기 발생한 '불도지쟁'을 통해 이미 논파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대에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이씨 황조 후광으로 논점을 '민족정통성'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거사는 역시 남북조 이래 나타난 논리로서 논파했다. 흥미로운 것은 거사의 논리에 "중국인들은 무엇 때문에 서역 명마를 구하고, 남해의 명주(明珠)를 구하며, 아프리카의 상아, 페르시아의 약재 등을 구하는가. 만약 목숨이 위태로운 병에 있어 약재가 중국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재치가 엿보였다. 이것은 불교의 '묘한 도[妙道]'가 아니면 '삶과 죽음[生死]'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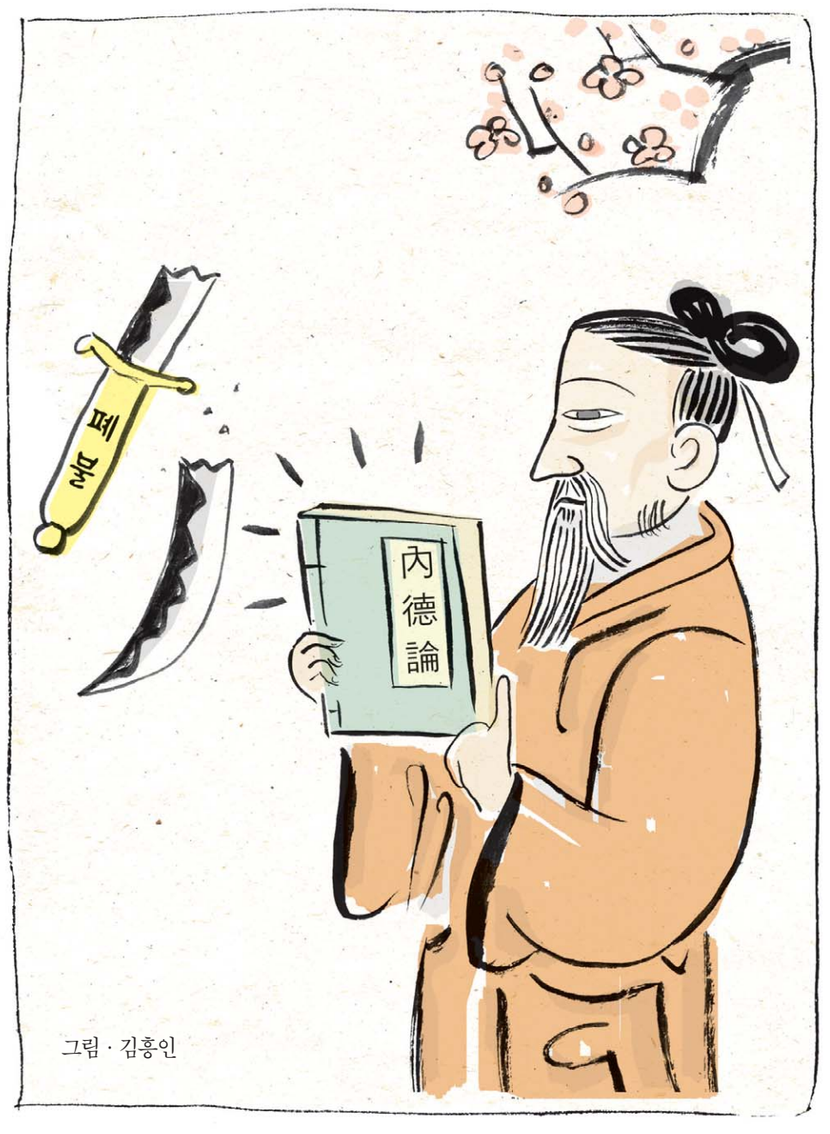


그림 · 김흥인

도교 인사 관직 대거참여로 폐불 상소 줄이어
이사정 거사 '내덕론' 발간 '이하론' 등 반박

또한 부혁의 상소 가운데 불교 폐해를 지적한 것은 바로 역대의 왕조를 예로 들어 "삼왕(三王; 하 · 은 · 주의 우왕 · 탕왕 · 문왕)시기 불교가 없을 때는 태평성대였지만, 승려가 있어 정치가 가혹해졌다"는 논리이다. 이 논리 역시 결코 새로울 것이 없는 것으로, 거사는 역시 역사적 실례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특히 거사는 "왕조의 성쇠는 국정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 있고, 통치가 잘되는가의 문제는 관리들의 품성에 달려 있다"라는 비교적 거시적 관점도 보였다. 더욱이 거사는 불교가 흥성했던 수대(隋代) 왕조 역시 안정적이었고 민생도 화목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위반(고구려침공)해 멸망했음을 지적해 불교를 폐함은 왕조의 멸망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다.

거사의 <변혹편>에는 또한 중국인들의 가치표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나타난다. 그것은 중국인들의 '진리'에 대한 표준을 흔히 <시경> <서경> 등의 육경(六經)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는 부혁이 제시한 "불교의 가르침은 육경 가운데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결코 숭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대한 반론이다. 거사는 '천문현상의 신비함과 산천지리의 변화, 침술과 의약의 방술 등은 모두 육경에서 언급하지 않았음'을 들면서 육경은 다만 정치 · 사회윤리의 원칙만을 다룰 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무궁(無窮)'한 '한정된 가르침[局敎]'임을 지적했다. 거사는 사물의 변화를 인식함에 결코 육경에 얽매이지 말 것을 강조했다. 거사의 이러한 관점은 중국 전통적인 가치의 인식체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평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거사는 동굴이나 움집에서 살고, 날것을 먹으며, 매듭으로 표현하던 것에서 주택에서 생활하고, 불에 익혀먹고, 문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이 문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함을 언급했다. 따라서 육경이 설령 불교보다 오래됐다고 해서 결코 뛰어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거사의 견해는 분명히 이전의 '불도지쟁'에서 나타난 논리보다 뛰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사의 <내덕론>에는 역시 불 · 유 · 도 삼교가 공존해야 한다는 '삼교정립론'이 보인다. 거사는 "불도에는 자비희사의 지킴이 있고, 물아(物我)를 가지런히 해 친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을 평등하게 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안락하게 한다. … 불교에는 신하에게 충성하도록 권하고, 자식에게 효행하도록 권하고, 나라에 있어서는 잘 다스리도록 권하며, 가정에는 화목을 권한다"고 설해 불교에도 유 · 도 양교의 가르침이 있음을 밝혔다. 거사는 "성인(聖人)의 가르침은 길은 달라도 같은 귀결점을 갖고 있다. 군자(君子)의 도는 서로 길이 다를 수 있어도 뜻은 합치한다"고 설했다. 이런 입장은 전체적인 중국불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불교 본연의 포용성과 외래종교로서 중국에 전래되면서 '중국화' 과정을 거의 완성했음을 의미했다. 당연히 불교에서 '삼교정립', 혹은 '삼교일치' 등 주장은 불교를 중심으로 유 · 도 양교와의 공존 혹은 흡수를 전제한 것이다.

<내덕론>의 간략한 내용에서 거사의 논리가 이전의 호법논리보다 정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남북조시기에 벌어진 불도지쟁 탓도 있지만, 거사의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기인했다. 특히 <공유편>에는 '진속원융(眞俗圓融)' 견해까지 보여 거사의 깊이가 엿보인다. 거사는 법수(法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전인 <법문명의집(法門名義集)>(<대정장> 54책 수록)도 찬술했다. 아쉬운 것은 <내덕론>과 함께 찬술했다는 <정사론>은 현존하지 않는다.

당 초기 부혁의 상소로부터 나타난 불도지쟁은 실제적으로 '폐불'까지 전개될 뻔한 위기상황이었다. 이때 법림 스님과 이사정 거사의 호법이 없었다면 화려한 꽃으로 피어난 당대의 중국불교는 실제와 달랐을 것이다. 물론 스님과 거사의 노력으로 불도지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변역(變易)은 그 초기화가 전체적인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극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운 송 업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 육 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 사 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초 졸	회 사 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 사 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학	회 사 원	인 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학	농 업	경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졸	회 사 원	서 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졸	자 영 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졸	회 사 원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졸	회 사 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졸	교 육 직	서 울
장천석	1965년생	175	고졸	회 사 원	서 울
안상기	1965년생	185	고졸	공 무 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졸	회 사 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 사 원	경 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졸	회 사 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졸	회 사 원	서 울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자기 내면세계에 주인공 안테나를 탁! 세워 놓으세요

서로 한마음이 돼서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밝고 신심이 돈독한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뉴욕, 산호세, 시카고, L.A. 등지를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 마음공부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미국 분들도 많거니와 한국 분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불법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가 쇠퇴하던 시절에 기복으로 편집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복으로 따르고 그렇게 믿고 가게 되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적 특징을 살려서 지금 현시점에 맞고 우리가 가는 길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러하니 우리가 마음을 계발해서 내 몸이나 내 가정, 사회나 국가, 세계적으로 모든 걸 조화롭고 화목하게 돌릴 수 있는 원심력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르다면 나중에 질문도 하시고 또 나를 탓해도 좋습니다. 그럼 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것이 그렇지마는, 지금 살림하는 현시점에서 보면 우리 몸이 혹성이 될 수도 있고 그 혹성 속에 별성이 수십억 마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근원이 됨으로써 거기에서 수없는 생명이 창조가 되고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도 참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됐어도 정법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인간으로 어렵게 나왔는데 부처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간대서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있어서 우주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주도 있다는 걸 아는 그 시점으로부터 벌어진 겁니다. 즉, 바로 자기 마음에 우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한생각에 수억 마리의 분신을 만들 수도 있고 분신을 없앨 수도 있고, 악을 만들 수도 있고 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스런 무한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그걸 알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주인공의 안테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본래자성불 자체의 안테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생각 낼 수 있는 법신, 그리고 움죽거리는 화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위일체로서 회전하면서 자기가 바로 안내인처럼 또 선장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 각자가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자기 몸뚱이가 아닙니다. 웬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뚱이 속의 간세포만 하더라도 수십억 마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뚱이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집입니까? 그것이 내 몸이라고요? 이게 나라고요? 어떻게 나만 됩니까? 수십억 마리가 같이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절하게 '우리가 당신을 선장으로 뽑아 놓았으니 당신 마음 한번 잘 먹어서 우리들을 잘 이끌고 가신다면 우리도 성불하고 우리도 각(覺)을 이룰 수 있고 우리도 이 미생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 각자 자기의 선장한테 기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장이 코치를 잘못하는 길잡이가 된다면 그 배에 탄 중생들은 다 소멸되고 악으로 떨어지고 죽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한테만, 어떠한 장소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고 있는 데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만생, 즉 말하자면 태로 낳는 거, 알로 낳는 거, 질척한 데서 낳는 거, 화해서 낳는 사생이 사는 데는 다 불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을 하고 밥을 해다 놓고 빌고 타의에서 구하고, 이러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사생이 다 생명이 있으니 바로 '불(佛)' 인 것이고, 그것이 생각을 하고 움죽거리니 '법(法)' 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대로 살아나가는 그 생활이 불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불법을 잘못 알고 계신다면 바로 귀신, 미신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스님이 된 것도 아니요, 호화롭게 남이 가져오는 거 먹고 살 양으로 스님이 된 것도 아닙니다. 스님 노릇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아마 그 실천을 해 보지 못해서 모르실 겁니다. 무(無)의 법, 유(有)의 법을 한데 합쳐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그 자체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가자!" 이러겠지마는 평소에 스님들은 배가 부르면 마음이 해태해지고, 또 기름진 쌀밥을 먹고 배가 불러도 남이 배고픈 줄 모른다고 해서 일종식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본래 내 몸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지금도 하루에 먹는 것이 보리밥 한 공기도 안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 우주간 법계에서 나를 용서치 않을 거예요. 누구도 내 행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내 행동과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양심이 부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남 보지 않는 데서 무슨 일을 하고서는 아무리 안 한 척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이상 우주간 법계에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천체통신기 있잖아요? 무전기. 무전통신기가 벌써 모든 법계를 싹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 어찌 한 치라도 우연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진실하고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한마음의 안테나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신통이 한마음의 안테나에 붙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축이 있음으로써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프로펠러가 있기 때문에 축이 있다는 것을요. 축은 본래 자기 자성불이요, 움죽거리지 않고 들이고 낸다 이겁니다. 움죽거리지 않는 자성불을 중심으로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입니다. 그러니 그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하늘을 받치는 안테나 기둥이서야 모든 일체, 삼천대천세계에서 일체 만물만생이 서로 살아나가면서 전달하는 그 이치가 거기 안테나에 잡히거든요. 이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모두가 막혀요. 나한테서 지혜가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연결이 되지도 않고요. 본래 연결이

☞26면으로 계속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부천역 3층 이마트앞 북부역쪽 300m 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15-5575
휴대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福田函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buddhanews.com

두 손을 쩍 벌려서 다 안아줄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가져야

☞25면에서 계속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끊어서 태질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으로다가 아무리 뜨고 날고, 만약에 한 사람이 백 명을 밀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말이에요, 밀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아시고 계십니까. 배움도 있고 상식, 교양, 학식이 있어서 모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전에 산에 있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축지법을 하고 수없이 육신 무예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막대기 하나를 짚고서 시도를 해 봤죠. 그랬는데 그 후에 잠깐 사이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얘깁니다만, 여자가 하는 일 있죠? 그냥 그 추운 데 앉아 있었더니 말이에요, 돌하고 나하고 옷하고 그냥 붙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춥기는 하고 그래서, 아주 까마득하게 보이는 저 너머 집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축지법을 한다면 저 건너 집을 갈 수 있을 텐데…' 하고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나자마자 뒤따르는 마음이 '어허, 이것은 내 육신 하나에 관한 건이지 육신이 아무리 축지법을 해서 저 집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는 몸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시점을 한번 넓혀 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 한생각에 의해서 컴퓨터를 쓰고 있고 한생각에 의해서 지금 공중으로 날아다니는데 한 개인의 축지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와 같죠. 그래서 '아차! 나의 이 생각이 이 시점에서는 참 잘못된 생각이로구나! 앞으로는 못 갈망정 뒤로 물러선다면 말이 되나?' 하고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으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 골짜기 골짜기를 다니며 겨우 물을 찾았는데 물이 거죽에는 얼어붙고 그래서 흙을 파내고 파내서 요만한 돌 하나를 캐서 얼음을 깨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옷을 싹 벗고선 빨아서 꼭 짜서 입으니 그게 그냥 얼어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버린 몸, 하하하…. 여러분도 좋은 옷을 입고 조심조심 가다가도 뭐 흙이 튀거나 비를 맞거나 그런다면 '에이그, 어차피 버린 옷, 버린 몸!' 하고 그냥 맞고 가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버린 몸!' 하고서 있었더니 부처님께서 불쌍하게 보셨던지 양지에 있는 산소로 끌고 가서 그 밑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그렇게 잘 말렸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그런 것도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싸움을 하고 나는 못 산다, 산다 하고 애쓸 때에 그러한 뜻이 참고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일 조건은 뭐냐? 내 주인공의 안테나. '주인'이라는 건 축을 말하고 '공'이라는 것은 프로펠러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살아나가시는 데에 고정관념과 고정된 행과 고정된 말과, 고정되게 듣는 거와 고정되게 만나는 거와 고정되게 가고 오는 거와 고정되게 먹는 거와 그렇게, 고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된 것이 있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모든 게 고정됨이 없습니다. 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온종일 그렇게 놓고 가면서도, 고정됨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공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은 그것이 도대체 뭐기에 주인공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자 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혜능 선사가 이런 말을 했죠? 오조 홍인 선사가 밤중에, 삼경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라는 말이나 했나요? 주장자를 탕 탕탕, 세 번 쳤었죠. 그러니까 벌써 알고서 삼경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금강경』을 강설하시는데 육조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가지 조건 말입니다. '본래자성불이 청정함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런 말이요. 이 중에 청정이라는 자체가, 바다가 깊어서 모든 물이 바닷물로 다 모이는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구정물 깨끗한 물 뭐, 고름물 핏물 다 한데 합쳐서 거기에 모이는 거! 모이는 그것도 아니라고 해서 젖는 거! 허허, 똥물에도 젖고 핏물에도 젖지 않습니까? 그걸 청정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찌 본래자성불이 청정함을 알았으리까. 본래자성불이 생멸이 없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본래자성불이 일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본래자성불이 움죽거림이 없이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 네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정관념도 없고 어떤 것도 없이 여러분은 그대로 본래 자성, 바로 신이며 본래자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래자성불인데 그 본래자성불 가운데에 바로 중생들이 수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동서가 둘이 아니요 세상이 전부 둘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 뜻을 아신다면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돌리면서, 깔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아상 부리지 말고, 살생을 일부러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실천해 가십시오. 그러면 이런 계율들을 일부러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지혜롭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써,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위로는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통솔력이 있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손을 쩍 벌려서 다 안아 줄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가져야만이 우리 이 마음이, 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회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 당신이시여! 당신도 나고 나도 당신이라니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화목하게, 즉 말하자면 파워를 일으키지 않고 회전을 해 줄 때에 내 몸도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몸을 가졌으니 마음도 건강해져서 일하는 것도 능률이 나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 능력이 있어서 위로는, 부모 조상들한테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원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심력은, 보는 것만도 도가 아니고 남의 속을 아는 것도 도가 아니고, 과거의 일을 잘 아는 것도 도가 아니고 오고 가는 것이 없이 오고 가는 것도 도가 아닙니다. 그 오신통도 놓고 나와야 바로 원통력을 굴릴 수 있다 이겁니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타의에서 구하는 그 기복! 그것은 이익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만, 요 몸뚱이가 있을 때 요것만이 나라고 하지 마세요. 한 나무로 비유한다면, 저 가랑잎이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떨어진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내가 죽는 게 아니요, 그 많은 이파리가 바로 내 형제 내 부모, 모두가 나 아님이 없는 한 나무의 한 이파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싸운다면 한 나무에 한 이파리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거대하고 광대무변한 우리의 이 마음 하나가, 수억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있고 수억을 살리려 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도법이, 바로 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셔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울 때는 자기 내면세계에 주인공 안테나를 탁 세워 놓고 '보고 듣고 하는 오신통이 모두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이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 세균이나 유전성이나 영계가 들어와서 내 집이 빈집인 줄 알고 맘대로 왕래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안테나는 바로 자동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들일 건 들이게끔 해서 내 몸과 내 가정과 사회를 튼튼히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테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현시대를 잘 내다보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전화나 모든 게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는 이 허공에도 길이 있고 생명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왜 그냥 뜨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허공에 생명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냥 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도, 또는 그 뭡니까? 저, 불 일어나는 거 뭐죠? 물어봐야지.

대중 가운데서: 화산요.

스님: 네, 화산! 화산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생명체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체가 지수화풍의 바탕으로 인해서 미생물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조성됐고, 그 조성된 생명들로 인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하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몸뚱이가 나왔으면 칼을 뺀 거와 같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치지 않았어도 주인공의, 즉 말하자면 한마음의 안테나를…, 몸뚱이로 봐서도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의 여래의 집이에요. 내 집만이 아닙니다. 한마음의 집이죠, 이게. 여러분 몸뚱이가 한마음의 집입니다. 그래 한마음의 집에서 그 한마음으로 한 번 내디딜 수 있는 패기와 물러서지 않는 믿음과 그런 것이 있다면 역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는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내 몸에도 만약에 간이 아프다 그러면 소장이 대장더러 하는 소리가 '여기가 이렇게 파워가 일어나고 고장이 났습니다' 하고 누진으로 신호를 올리는 거라고요. 신호를 올려서 나를 알게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알았으면 조치를 해야죠. 대장이, 선장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아픈 걸 알면서도 금방 대치를 못해요. 왜? 모르니까요. 이것은 의학이라도 심성의학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을 찾아도 심성 없이는 과학도 의학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없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몸뚱이도 움죽거려서 왔죠? 마음이 있으니까 차도 끌고 다니지요? 마음이 있으니까 일체 만법을 응용하고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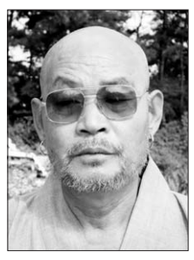
그러니 모든 것은 누구의 짓이냐? 잘못하든 잘하든 자기의 짓이라 이거예요. 남이 잘못한다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내 탓이라고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렇더라도 만날 말로 잘못했다고 긁적거리면 집안이 화목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진실로 이끌어지질 않아요. 여자가 그렇더라도 그렇고, 또 자식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당신밖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치라고 믿었을 때, 바로 그 천체무전통신기와 에너지는 거기로 속사포같이 그냥 한 찰나에 가서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전기 가설이 되었기 때문에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불이 저쪽에도 들어오고 이쪽에도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심성과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몸뚱이가 나왔으면 칼을 뺀 거와 같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88년 7월 3일 부산지원 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함께 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평생을 불가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의 원력을 세워 금생을 회향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의 사고로 1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나 10여년 전 아미타종을 창종하여 노인복지의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이젠 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달마노인복지회'를 통해 무의탁 노인들의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 저의 원력입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의 뜻에 동참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싶으신 분들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대한불교아미타종 종정 달마 합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1리 138-1 용주사

031)642-8345 / 010-9493-8977

(株)天星建設

석·납골당
석·굴법당 전문

석·납골당 조성공사
석·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축대 및 보수공사
석·저장실, 보관실(과일)
석·까다로운 석·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卍 한글 한문 겸용불교상용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③겸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④겸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운'을 없게하고 집전자의 작은 애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청하는 청사를(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구 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 법우당 02)999-8315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세상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가 보다.

고등학교 1학년 김모 양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낙서처럼 끄적인 유언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 사망한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937명 가운데 교통사고가 357명으로 가장 많았고, 2위가 자살로 무려 233명에 이른다. 자살의 원인으로는 학교 문제가 11.7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부모와의 갈등, 우울증, 육체적 질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자들은 자살을 하는 심리적 기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첫째는 자신을 향한 공격성의 결과다. 둘째는 우울증이다. 우울증이 심하면 자신과 세계와 미래에 관해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 셋째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문제가 있을 때다. 인간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통합되고 일관된 개념이 형성되지 못하면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된다. 넷째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때다. 왕따를 당한다든가 스스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자살은 개인과 가족의 불행은 물론이요,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손실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잘 대처해야 한다.

우선 자살의 징후를 알아차려야 한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자살할 거라는 신호를 주변에 보낸다. 소중한 소유물을 남에게 주거나, 일기장이나 편지 등을 태우거나 버리는 행위, 자살 사이트에 빈번히 접속한다거나 부모 몰래 약을 사 모으는 행동 등이다.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 외에 죽음에 대한 관심이 평소에 비해 매우 높아졌거나 심한 성격 변화를 보이거나, 외모에 대한 정상적인 관심이 결여될 때, 자기 능력에 대해 회의를 느껴 절망감을 표출할 때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자살하려는 의도가 감지된다면 즉시 대처해야 한다. 스스로 삶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정서적 면역체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삶의 곤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헤쳐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찾도록 돕는다.

두번째는 면역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해와 수용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셋째는 지지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부모, 친구, 교사 등 주변사람들이 언제든 도와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

넷째는 청소년의 관심이 무엇인지 경청하는 것이다.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

다섯째는 충고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충고를 강요하게 되면 청소년 스스로 문제해결책을 찾아가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된다.

여섯째는 문제를 축소하지 않는 것이다. 듣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문제도 당사자에게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심각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곱째는 의사소통의 연락망을 계속 열어 놓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관심이다. 자살을 한 다음에야 아이가 무엇을 원했고 무엇 때문에 죽었다며 관심을 가져봤자 이미 때는 늦은 뒤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섭이 아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의 개체성과 고유성은 무시한 채 부모나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면 그것은 간섭일 뿐이다. 하나의 생명이 자신의 지향성대로 잘 적응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관심이다. 즉 존재에 대한 인정이다.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할 의미가 있는 생명체로 느낄 때 누군가를 사랑할 힘을 갖게 되며, 누군가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덧붙일 것이 불교의 인과론이다.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에게 지은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의 법칙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자살이란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살생 행위임을 알게 하고, 당장 현실의 고통을 피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님을 알려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불자 세상보기

권 경 희
상담심리전문가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청소년 자살과 '존재'의 인정

社說

제18대 국회 정각회에 바란다

제18대 국회 정각회가 7월 23일 아침 조계사에서 출범식과 기념법회를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상생의 정치를 다짐했다. 또 불교계와 관련한 각종 규제와 관계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복잡한 정황 때문에 출범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8대 국회 정각회의 출범과 임원 구성 등의 행보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제18대 국회에는 지난 17대 때와 달리 많은 수의 불자의원들이 입성했다. 본지 조사결과 59명이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종교가 불교라고 밝힌 의원 모두가 정각회에 입회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제18대 정각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자의원 모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일 것이다. 또 불교계의 현안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회 정각회는 초당적인 입장에서 불교신행과 불교계 권익 옹호를 위해 합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관련한 현안이 발생하면 신행도 권익도 사라지기 일쑤였다. 제18대 정각회는 이런 면에서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과 불자로서의 입장은 별개일 수 있다. 정각회는 그 '별개'의 자리에서 만난 불자의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정치현안에 휘둘려 정각회가 제 기능을 상실 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정각회 소속 의원들이 초당적인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정치적 행보를 걸을 수 있다면 나라와 불교계와 정각회 모두가 행복해 질 것이다.

대불련의 비상을 위하여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각종 수련회에 참가해 체력과 자신의 내면을 닦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여름불교학교도 보다 다양해진 프로그램으로 전개되고 있고 중고등 학생들의 여름 수련회도 알차게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린이 청소년이야 말로 한국불교 미래다. 여름방학 동안 2일 내지 3일간의 짧은 시간이나마 부처님의 도량에서 신행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

대학생 불자들도 남해안 일대에서 1600년 대회를 열 계획이다. 날로 위축되는 캠퍼스 불심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는 불교계 구성원 전체의 화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기도 하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다소 씁쓸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대학생 불자들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 이번 1600년 대회는 그들이 갖는 꿈에 날개를 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캠퍼스 불심은 대학생들만의 힘으로 되살아날 수 없다. 초종단적인 관심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지 않는 한 캠퍼스에서 성공적인 포교를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어린이 청소년이 불교의 '미래'라면 대학생들은 불교의 '현재'다. 그들을 포교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재원과 치밀한 조직력을 앞세워 선교를 펼치고 있는 이웃종교들을 생각하면 암담하기까지 하다. 8월 7일부터 열리는 대불련 1600년 대회는 캠퍼스 불심에 희망을 심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그 사람이 싫어졌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⑭ 수렁에서 건진 내 딸

결혼할래요

"아빠, 우리 결혼해도 되지요, 네?" 김씨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니 이럴 수가.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이 방학 때 나온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공항에 마중 나갔다. 그런데 딸은 혼자가 아니라 웬 남자가 동행하고 있었다. "아빠, 제 친구 ○○예요. 인사시켜드리려고요." 딸은 공항 찻집에 들어가 이야기부터 하자는 것이었다. "사실 저희 둘이 약혼했어요. 이번에 부모님께 결혼 허락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순간 김씨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결혼이라고? 이제야 3학년인데 졸업도 안하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사귄지 몇 달된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 그런데 영 인상이 마음에 안 드는 청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시켜보니 도무지 인생 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자네 꿈은 뭔가?" "꿈같은 건 없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꿈도 없다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전 매일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삽니다. 졸업 후에 어떻게 되겠지요. 계획 같은 건 없어요. 노숙자도 잘 살지 않습니까." 뭐라고! 옆에서 딸은 "아빠, 얼마나 좋아요. 전 지금까지 너무 지겹게 살았어요. 매일 계획, 공부, 아, 이 사람은 정말 자유로워요." 그러더니 "결혼식도 할 거 없대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면 된데요." 김씨는 '이 청년은 안 돼! 절대 안 돼!' 하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래도 마음공부를 했기 때문에 참았다. "그래, 일단 집으로 가자"고 달랬다.

그 날부터 딸은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 공부도 더 잘 되고 좋을 것 같다는 것이다. 천만다행히 딸은 부모님 허락이 있어야 함께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것만은 청년과 의견이 달랐다. 그 청년에 대해 알아볼수록 정신상태가 엉망인 사람이었다. 대학도 세 번째 다니고 있고 성적도 바닥인데다 마약복용까지 한 전력이 있었다. 여자관계도 복잡한 것 같았다. 딸은 처음 해보는 연애라 그 모든 것이 멋있어 보인다고 했다. 스님은 김씨 부부에게 "절대로 반대한다거나 나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반발이 생겨 더 부작용이 날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 따님 속의 부처님이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으세요. 열심히 정진하세요."

딸 구하기 정진

김씨는 스님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딸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부모를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둘은 외국에서 살고 있다. 거기서 무슨 짓을 할 지 어떻게 아는가. 딸은 학교 사정상 한 달 내에 허락을 받고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좋다, 김씨는 잘 안하던 정진을 매일 하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108배를 하며 참회했다. '내가 전생에 저 청년하고 무슨 악연이 있어 딸에게 왔는기.' 참선을 하며 딸의 마음 속 부처님에게 호소했다. '제발,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게 해 주세요.' 며칠 후 딸에게는 편안한 얼굴로 "우리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떡하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했다. 딸은 "아빠, 말 안 하고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전 그래도 부모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한 달 내로 허락해주세요." 이제 김씨는 큰일이다 싶어 기도할 때 일체 조상님들까지 찾게 되었다. "이 자손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조상님들, 당신 손녀 아닙니까. 제발 저 애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악연을 물리쳐 주세요." 김씨는 작전대로 답을 미루기만 했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다. 딸은 "아빠, 그럼 가서 연락드릴게요. 딱 한 달만 더 기다리겠어요. 그 때는 허락안하셔도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고생해서 자식을 키운 댓가라니. 김씨는 눈물을 삼켰다.

부처님의 승리

딸은 2~3일마다 국제전화를 했다. 김씨는 전화를 받기 전에 자성 부처님에 관하고 받았다. 그러면 야단치고 화내고 싶은 마음이 스르르 사라졌다. "애야, 사랑한다. 아빠는 아직 아무 생각도 안 나.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저 멀리 있는 둘이 무슨 일을 해도 말릴 재간이 없었다. 오직, 딸의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아침저녁으로 김씨는 평생 처음으로 지극하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저 애를 살려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 주세요, 조상님, 부처님." 3주가 지나자 1주일간 전화가 없었다. 4주가 다 되는 날, 전화가 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아빠, 이상하네요. 저 며칠 전부터 그 사람이 싫어졌어요. 그 날 크게 싸웠어요. 저보고 부모에게 매달려 사는 바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아빠가 떠오르면서 어지나 화가 나는지. 아빠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은 울먹이고 있었다.

"이제 보니 아빠엄마만큼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빠, 죄송해요. 그 사람 이제 안 만날 거예요."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 비구니 통학 강원 –

◆ 학장 : 석도기

(사)한국불교금강선원은 제천 금강사를 창건하여 여성불자 교육도량으로 부설하고 아래와 같이 통학 학인을 모집합니다.

◇교육시간 :
매월 음력 10일 오후 2시~ 음력 11일 정오 12시
매월 음력 20일 오후 2시~ 음력 21일 정오 12시

◇개 강 일 : 음력 7월 20일 (양력 8월 20일)

◇교육내용 : 전통강원에서 교육하는 사미, 사집, 사교, 대교 과목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며 의식교육을 필요에 따라 지도하고 특강을 통해 부족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 : 2년(강의를 녹음한 통신교육도 가능함)

◇강 주 : 활안 한정섭스님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전화 겸 팩스 043)646-3800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학원

◆ 원장 : 활안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08년 9월 8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개 강 : 2008년 9월 4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969-4881 / 팩스 02)964-2433

2000만 불자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사뉴스피플 2008. 7 (노동진 기자)

Cover Story
황우석 박사

황우석의 원천기술, 해외에선 독보적 국내에선 끝나지 않은 진실공방

황우석 박사,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황우석 박사가 중국 '사자견 복제'에 성공했다고 전해졌다. 황우석 박사가 몸담고 있는 수암연구소는 지난 6월 16일 공식적으로 "일명 사자견이라 불리는 희귀종 티벳마스티프를 중국과학원 과학자들의 요청에 따라 복제에 돌입, 17마리의 복제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이들 복제견들이 태어나는 장면의 동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이번 사자견 프로젝트는 최단 시일 내에 간단하게 성공해 중국의 과학자들을 놀라움에 휩싸이게 했다고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에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미국 연구진이 실패했던 복제개 프로젝트인 '미시 프로젝트'에 착수해 12월에 미시의 첫 복제 개 '미라'를 탄생시켰으며 올해 2월에는 친구와 사랑이를 각각 추가로 복제해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황우석 박사가 '사자견'으로 불리는 희귀종개의 복제에 성공하면서 '진실공방'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 박사는 이른바 '황우석 사태'로 불리던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2006년 3월 파면된 이후 재판에만 참석 했을 뿐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내왔다.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애완견' 상업 복제에 성공한 데 이어 두 번째 들려온 이번 '사자견' 복제 소식은 2년간 장기공판을 이어오며 진실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황 교수에게 새로운 국면이 될 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략)



황 박사의 조속한 연구승인은 '747 공약' 실현을 위한 첫 걸음

지난 2월 1일 미국의 USA투데이지가 '올해 최대의 의학적 성과'로 꼽고,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 정부가 5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인공만능줄기세포(ips) 분야에서 국내 박세필, 조쌍구 교수팀이 그들보다 더 높은 효율의 성과로 특허출원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3번째 인공만능줄기세포 수립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과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재개를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 인공만능줄기세포의 근간은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비롯된다. 세포 치료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2가지가 있는데, 세포분화기능이 떨어지고, 배아줄기세포는 분화능은 탁월하지만 난자를 사용하는 윤리문제가 봉착한다. 박세필 교수는 "인공만능줄기세포(ips)의 성과는 좀 더 효율적이다는 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아 여전히 배아줄기세포가 연구의 근간을 이룰 것이며 인공만능줄기세포(ips)는 '보조제' 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것" 이라며, 국내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시급함을 시사했다. 또 박 교수는 "체세포 핵이식 기술이라는 것은 바이오산업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고 국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술이며, 이 기술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 연구(인간배반포 수립)에 서도 볼 수 있듯이 테크니컬한 측면이 많이 알려져 있기에 우리가 빨리 점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황우석 팀은 이 분야에서 많은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런 내용(연구재개 및 승인)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개인적 소견이다" 라고 밝혔다. 사실 배아줄기세포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다. 미국 NIH 자료에 의하면 세포치료제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5년 100조원 정도며, 세포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3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2008년 새해 예산 256조원을 넘어서는데, 국내 1642만 가구 당 1가구에 돌아가는 금액이 18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가치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사활을 걸며,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난자공급에도 종교를 떠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연구승인을 미루고 있는 현실이다. 한시바삐 정부도 전 국민의 88.4%가 염원하는 황우석박사의 연구승인을 조속히 이뤄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과 정책, 지원 등이 따라야 한다. 이미 황우석 박사의 수암연구소는 국제연구기관으로 등록된 상태다. 연구승인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747 공약'을 위해 달려가는 현 정부로서는 바이오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황 박사의 연구승인이 가져올 미래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NP



전국 사찰 플랜카드 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문의 : 황우석특허수호시민연대 051-245-9511)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불교조계종 26개 교구 본사 주지 일동은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구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정부와 학계가 황우석 박사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관련재판은 장기화 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명분으로 황우석 박사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와 줄기세포를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불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불교TV(BTN특별기획)는 "미국 새튼의 음모와 NT-1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황우석 박사의 진실을 알려 사회적 정의와 양심에 호소하였습니다.

최근 불교TV의 방송 내용들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즉 황우석 박사팀이 직접 담당했던 복제 배반포는 104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공동 연구팀이었던 상대측의 영역에서 섞어 심기를 하였습니다. 비록 연구 총괄 책임자로서의 관리 감독의 책임은 있으나 상대 공동연구팀에 의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특허가 국내외에 등록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복제 세포치료 분야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게 됩니다. 줄기세포 기술이 미래의 주요 성장동력이란 점을 고려해볼 때, 선진국들이 정부차원에서 BT산업에 전력투자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처럼 천연자원 부족국가에서는 국가 발전이라는 의미해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할 시기인 것입니다.

그 동안 줄기세포 연구의 종주국으로 자처했고,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중단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줄기세포 연구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병고자를 위한 숭고한 연구이자, 생명을 살리고자하는 자비사상의 과학적 실천 행위인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는 독보적으로 복제 배반포를 대량으로 만든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여전히 동물 복제에서 세계적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생명공학의 선진국으로 자부하던 미국에서도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미시프로젝트"를 단기간에 성공하였고, 중국의 사자견등을 복제하여 상용화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주지스님들은 이제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 승인을 해주면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준비와 윤리적 자세를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26개 교구 본사 주지 일동은 진지한 고려와 판단을 한 결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결 의 문]

1.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를 부당한 이유로 억제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더 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1. 특허청은 황우석 박사가 제출한 줄기세포 특허를 원천특허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사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정부는 생명공학과 관련한 국가제도와 법령을 개선하여야 하며 불교계 의견을 수렴 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26개 교구 본사 주지 일동